

김재성 교수(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緣起따라 온 생명
'지혜 · 자비'로 보듬자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8월 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62호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화엄경〉
그대는 알라.
모든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움은 괴로움을 낳는다.

'염화미소법' 논의 본격화 원장 선거 혁신특위 구성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서 결의… 위원장 초격 스님 선임

前 호계원장 법등 스님의 '염화미소법' 등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종단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9월 8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의 건'을 다루고 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위원장에는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초격 스님이 선임됐다.

대표 발의자 초격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제도와 관련해 많은 분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선출제도를 혁신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특위를 구성해 주시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스님들은 특위 구성은 의장단에 위임해 종단 집행부, 본사 주지, 종회의원 등 21인으로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특별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헌 개정안 인준 이후 필요한 부속 종법들을 잇달아 가결됐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상정된 원로회의법 등을 비롯한 13개 법안은 원로회의의 종헌 개정안 인준 이후 개정이 필요한 종법이었다.

이에 따라 원로의장은 단임하게 됐으며,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겸직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게 됐으며, '중앙교원'을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으로 변경됐다.

9월 8일 임시회 개원해 종헌 개정 후속 法 정비

승려법이 개정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관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의 도제는 사미(니)계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법 개정으로 미등록 사설사암과 미등록 법인, 법인 산하 사찰의 관리인, 권리인, 임직원, 도제는 교육 제한을 받게 되며, 교육원장 자격이 '종사급'에서 '종사'로 개정됐다.

포교법 개정으로 포교원장의 자격을 '종사급'에서 '종사'로 개정됐으며, 포교원 회의의 구성을 종헌에 맞게 바뀌었다. 선원법, 승가고시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사설사암, 미등록 법인과 산하 사찰은 선원 입방과 승가고시 응시가 제한된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동국대 이사 일면 스님의 후임 인사안이 부결됐다. 이날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관련 안건을 만장일치로 성안할 것을 의견을 제시했으나 만당 스님이 무기명 투표로 정할 것을 제안해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일면 스님 후임으로 복수 추천된 일면, 호산 스님은 찬성 30표 반대 41표로 부결됐다. 성타 스님의 후임으로 추천된 성타 · 명강 스님은 찬성 51표, 반대 19표, 무효 1표, 심경 스님의 후임 추천자인 수불 · 무관 스님은 찬성 63표, 반대 7표, 무효 1표, 미산 스님의 후임 추천자인 보광 · 지환스님은 찬성 54표, 반대 16표, 무효 1표로 각각 가결됐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그간 논란이 됐던 사천 다솔사 관할 교구로 범어사를 확정했다. 쌍계사와 범어사는 다솔사의 관할 교구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이날 중앙종회는 71명 스님 가운데 쌍계사 4표, 범어사 49표, 기권 18표로 범어사로 교구가 확정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日정부, 이래도 위안부 부정할텐가

일본 극우 정치세력은 올해 종전 70년을 맞아 발표될 아베 신조 총리의 담화에서 "위안부는 없었다"는 사실을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 극우들은 지금도 위안부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일본 조동종 이치노헤 쇼고 스님이 9월 10일 군산 동국사에서 공개한 일본 위안소 사진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사진의 중국 산동 칭따오 위안소는 번화가에 버젓이 설치됐으며 상관들이 병사들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칭따오에는 해군 위안소가 설치됐다는 기존 기록만 있지만, 이번 사진으로 육군 위안소도 설치됐음을 알 수 있다. 〈관련 기사 3면〉

글=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 이치노헤 쇼고 스님

국내 경매서도 범어사 칠성도 2점 발견

서울옥션 15일 경매에 출품 범어사, 환수 적극 추진

유실됐던 범어사 칠성도 2점이 국내 경매를 통해 발견됐다. 총 11점으로 구성된 범어사 칠성도 가운데 3점은 범어사의 노력으로 지난 7월 스위스 경매를 통해 돌아온바 있다.

9월 8일 범어사와 서울옥션에 따르면 오는 15일 제137회 서울옥션 미술품 경매에 범어사 칠성도 가운데 '나무최승길상여래'(南無最勝吉祥如來)와 '나무금색성취여래'(南無金色成就如來) 불화가 출품된다.

칠성도는 김민영 전 부산저축은행장의 문화재 컬렉션 중 하나로 월인석보, 정약용 필적 하피첩 등과 함께 경매로 나왔다. 불화의 추정가는 350만~550만원.

정상창 범어사 기획실장은 "경매 출품 소식을 듣고 범어사에서도 오전에 긴급 회의를 열고 적극적으로 환수 활동을 추진 중이다"며 "주지스님께서도 반색하시며 오전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검토 하셨다"고 전했다.



제137회 서울옥션 미술품 경매에 출품된 범어사 칠성도 중 하나. 총 2점이 출품됐다.

범어사 칠성도는 밀양 표충사에서 선종(善宗)이라는 화승의 주도로 제작된 불화로 북두칠성을 비롯한 하늘의 여러 별을 형상화한 칠성신을 그린 작품을 뜻한다. 범어사 극락전에 봉안돼 있다 한국사회 혼란기인 1950~1960년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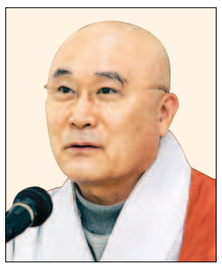
이번에 출품된 범어사 칠성도는 11점의 작품 가운데 3,4 번이다. 불화 아래쪽 빨간색 화기(畵記)에 시주자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어 스위스에서 환수한 칠성도와 같은 표기가 적혀있다.

이에 앞서 범어사는 올해 치성광 삼존도를 포함한 칠성도 3점을 스위스 경매를 통해 환수해 크게 주목을 받은바 있다. 50여년 만에 돌아온 칠성도는 7월 14일 귀환식을 거쳐 성보박물관에 임시 봉안했으며 '칠성각'을 새로 조성해 영구 봉안할 계획이다.

부산=하성미 기자

조계종 신임 호계원장 지원 스님 선출

중앙종회 8일 임시회서 자광 스님 7일 사직



조계종 사법기관의 최고 수장인 호계원장에 포교원장 지원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9월 8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에서 후임 호계원장으로 지원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호계원장 선출 직후 지원 스님은 "부족한 점이 많은 소납을 종단 종헌 종법을 통한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호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종단의 종헌 종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스님은 1964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9대, 14대, 15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교무국장, 포교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육지장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한편, 의현 스님 재심 논란으로 8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 사퇴 의사를 밝혔던 자광 스님은 9월 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광 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여러 사부대중이 개혁의 대의와 대중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이에 대한 부족함을 통감한다"면서 "지난 8월 대중공사에서 사부대중에게 9월 말까지 호계원장을 사직한다고 했으나 사법 공백이 없도록 이번 종회에 앞서 소임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직의 변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청정 승풍 위한 승가청규 발표

조계종, 8일 청규 고불식 의식주 등 현대 사회 관련 승가 위의 지킬 규칙 담아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종단 공식 승가청규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조계종은 9월 8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고불식'을 개최했다.

승가청규는 지난 2012년 백양사 승려 도박사건 이후 구성된 종단 쇄신위원회의 내놓은 쇄신 방안 중 하나로 청규제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청규 성안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청규 제정위원회는 총 10차례 회의를 거쳐 청규를 성안했고, 3년 만에 공표됐다.

조계종이 발표한 승가청규는 수행 · 생명 · 평화 · 나눔 · 문화의 장 5개 분야로 나눠 있으며, 실천의 장을 통해서는 현대사회에서 승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날 고불식에서는 그간의 경과보고와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총무부장 지현 스님의 청규 봉정, 고불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계율은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며, 승가 화합을 도모하는 공동 규범"이라며 "승가청규는 밤길을 떠나는 등불이 되고 강을 건너는 이에게는 뗏목이 되고 수행하는 이에게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설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종단 청규는 승가가 지켜야할 생활 윤리와 함께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보살행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규를 실천함으로써 불교가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발원하고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은 9월 8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고불식'을 개최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보련기획

✓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사찰불사 · 불교용품 전문회사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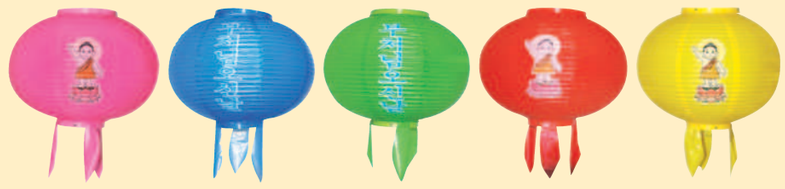


| 인등시공 |





만 월 등



극락왕생등



공 단 등



황 금 등



영 가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 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동국대 불교대 발전위 규정 대폭 간소화

8일 이사회서 결의

종립학교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불교대학발전위원회(이하 불발위)의 규정이 대폭 간소화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일면)는 9월 8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294회 이사회를 열고 개방이사 선임, 분과위원 위촉, 불교대학발전위 규정 개정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분리운영하던 불교대학교원초빙위 규정 및 시행세칙을 폐지, '불발위'로 일원화됐다. 교원 초빙의 경우 교원초빙 시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법인임원과 불교대학장, 교원초빙 담당처장 등 5인 내외로 내부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교원 초빙의 자율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불교대학발전위원장은 '법인 임원 중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개방이사에는 김기유 태광관광개발 대표가 선임됐다. 개방이사로 선임된 김기유 대표는 1980년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서 2001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아그룹 감사실장과 상임이사, 기획조정실장, 고려종합건축 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사회는 새로 선임된 이사 지홍, 호성 스님과 감사 함결 스님을 각각 교육분과, 의료분과위원으로 위촉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피폭자 지원책 조속히 마련하라"

특별법추진회 8일 성명 발표

종교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이하 원폭피해자특별법추진회)는 9월 8일 '일본최고재판소 판결 논평문'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강력히 요청했다.

원폭피해자특별법추진회는 "그동안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의료비, 건강검진 등서 자국민과 차등 지원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모든 재외국민피폭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길 기대한다"면서 "해방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환우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한국 정부는 반드시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대 국회는 원폭피해자들 실태조사를 통한 건강 · 교육 · 추모사업 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원폭피해자및원폭2세환우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 ·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아름 기자

"정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어라"

종교계 · 시민단체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성토

"민족의 영산 설악산이 죽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어라!"

지난 8월 28일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이 가결됨에 따라 이를 성토하는 불교계와 시민사회,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환경 · 시민사회 ·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설악산케이블카반대국민행동(가칭, 이하 케이블카반대행동)은 9월 10일 서울 명동성당서 국립공원설악산케이블카 저지를 위한 집담화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불교계 대표로는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법응 스님과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집담회에 참석했다.

케이블카반대행동은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위원회서 가결됐다. 이 과정서 승인부서인 환경부가 사업자인 양양군을 컨설팅하며 케이블카 추진팀을 구성 · 운영해왔단 사실이 확인됐다"며 "환경부가 환경파괴부가 됐고,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파괴정책 통과위원회가 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 재앙은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야생동물, 나아가 우리의 미래까지 모두 민영화시키고 있다. 자연은 국가나 기업의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가 양양군을 직접 컨설팅해
"山 개발되면 '환경 파국' 맞을 것"
산악관광 진흥 정책 추진 중단해야
종회도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결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지리산, 속리산, 신불산 등 현재 케이블카 건설이 거론되는 곳들 모두 개발돼 '환경 파국'을 맞을 것이란 우려다.

이에 케이블카반대행동은 설악산케이블카사업계획 폐기를 주장하며 정부에는 올바른 국가환경정책을 세울 것을, 최문순 강원도지사에는 건설계획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이밖에도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추진 중단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정연만 차관 퇴진 등 주장했다.



종교계, 환경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설악산케이블카반대국민행동은 9월 10일 서울 명동성당서 국립공원설악산케이블카 저지를 위한 집담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와 함께 조계종 환경위원회 등 불교계는 전국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9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부 조건부 승인을 받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국립공원위원회에 설치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계종 환경위는 성명에서 "오색케이블카 설치 승인은 그동안 환경부가 스스로 지켜왔던 자체 규정을 무시하고 강행한 결정"이라며 "케이블카 설치 불가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치 계획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승인은 환경부에서 규정해왔던 케이블카 설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환경위는 "강원도 오색 지역은 산양 등 보호대상 동물 서식지이며 원시림과 고령림에 해당하는 9등급 이상의 녹지자연보호지역"이라며 "케이블카 설치 검토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치 불가 기준 지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신불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9월 8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 · 발표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10년간 2번에 걸쳐 신불산 군립공원의 자연환경을 파괴한다고 반려된 사안"이라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사전에 검증되지 않은 무모한 사업을 다시는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 박아름 기자

"韓불교사 최대 탄압 사건… 모두가 기억해야"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법난 듣기워크숍' 첫 발제

"2차례 수술… 자살 충동도"
사회적 관심위해 소설 준비
릴레이 강연 · 현장 탐방 등
10.27법난 기념사업 진행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9월 7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보현실서 10.27법난 35주년 기념사업 '10.27을 듣는 사람들'을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는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이 나섰다.

한국 불교 최대 탄압 사건인 10.27법난 피해자들의 아픔 치유를 위한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10.27법난 35주년 기념사업 '10.27을 듣는 사람들'을 개최하고, 9월 7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보현실서 듣기워크숍을 진행했다. 법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훈과 치유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듣기워크숍 첫 발제에는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이 나섰다.

법난 피해 당시 월정사 재무국장을 맡았던 원행 스님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참혹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당시 고문으로 다리를 절뚝거리게 돼 2차례 수술을 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힘들었다"면서 "불교계 1600년 역사에 이토록 탄압받은 적이 없다. 또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모두가 기억하고 관심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스님은 법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소설도 집필 중이다.

스님 발제 후에는 대학생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법난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문제라는데 동조했다. 이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작년에 10.27법난을 알게 되면서 왜 이런 사건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지 궁금했다. 청년들이 사회적 사건에 대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느낀 자리였다"고 소감을 남겼다.

듣기워크숍은 앞으로 △9월 21일 오후 7시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보현실 △10월 31일 구례 화엄사서 2차례 더 진행된다.

아울러 35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릴레이강연과 현장탐방도 함께 실시한다. 릴레이강연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국가폭력과 1027법난'을 주제로 △10월 8일 오후 7시 광주 무각사 불교회관 2층 △10월 16일 오후 7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대강당 △10월 22일 오후 7시 전주 전북생명평화센터 등에서 각각 개최된다. 또한 10월 31일~11월 1일에는 조계사, 고양 흥국사 등 법난의 상징적 장소들을 현장 탐방한다.

참가희망자는 인터넷(http://bit.ly/1PGfaCA) 접수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한편, 이번 기념사업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광주전남불교NHO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관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깨달음, 논리적 사유로 이룰 수 있다"

현응 스님, '깨달음의 역사' 발간 25주년 세미나서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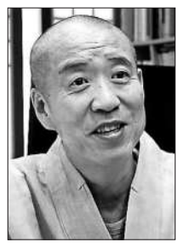
불교는 이루는 깨달음이 아닌
'이해하는 깨달음'에 요체 있어

"부처님은 고행과 선정이 아닌 논리적 사유와 성찰로서 깨달음을 얻었다. 불교의 요체는 '이루는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깨달음'에 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사진〉은 자신이 1990년 펴낸 '깨달음의 역사' 발간 25주년을 맞아 9월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의 깨달음은 이해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응 스님은 '깨달음과 그 역사, 그 이후'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부처님의 보리수 아래의 깨달음을 서술한 〈마하박가〉를 보면 '삶의 괴로움을 연기적으로 즉 원인, 조건, 결과, 생성, 소멸의 관점으로 파악해 통찰로 이해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부처님은 깨달음을 고도로 수련된 높은 정신세계를 이루는 것이라 하지 않고,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인이 잘 깨달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야 할까. 현응 스님은 부처님 당시부터 진화돼 왔던 다양한 모습의 연기론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와 동시에 현대인의 삶의 문제를 깊은 사유와 탐구해야 한다고 했다.



스님은 "연기, 공, 자비 등 불교적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불교경전이 아닌 일반 자연과학이나 진화론 등 생물학과 뇌과학을 탐구하며 사유하는 것도 훌륭한 사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깨달음'과 '역사'의 결합을 강조했다. 현응 스님은 "'깨달음'은 연기를 잘 이해한다는 영역이고, '역사'는 방향과 내용을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행위하는 것"이라며 "'보디(깨달음)'만 있고 '사트바(역사)'의 영역이 없으면 소승적 아라한일 뿐이다. 또한 보디가 없는 역사행은 범부중생의 삶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깨달음과 역사는 다른 차원의 영역이지만 이 둘을 결합하면 '보디사트바(보살)'가 된다"면서 "보살은 역사성으로부터 해탈의 자유를 담보하면서, 동시에 역사 속에서 목표를 세워 행하는 삶이다. 이것이 보살의 머물지 않는 구체적인 자비행"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9월 25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종군 위안부는 존재했다… 일본은 인정하라”

이치노헤 스님, 8일 동국사서 위안소 사진자료 공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동아시아에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연구해온 일본 조동종 이치노헤 쇼고 스님이 일본 위안소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그간 일본 극우 정치 세력이 주장한 일본 종군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이치노헤 스님은 9월 8일 군산 동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 위안소와 군인들 사진, 중국 남경의 위안소 부지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위안소 사진이다. 이 사진은 130mm 카메라로 찍은 사진으로 전문 직업 사진사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의 현수막에는 중국 칭따오(靑島)라는 지명이 선명히 있으며, 군인들이 위안소에 들어가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위안소 사진은 일본에도 10점 밖에 없을 정도로 휘소성이 높은 자료이다. 여기에 위안소 지역명이 적혀있는 것은 공개된 사진이 유일하다. 이치노헤 스님은 일본 옥션 경매를 통해 올해 1월 1일 입수했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일본 위안소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군인들의 이용

올해 1월 일본 옥션 경매서 입수
위안소 사진, 日도 10점만 존재
칭따오 육군 위안소 설치 증거
남경에 걸립될 박물관 기증 예정
종걸 스님과 화해 법회도 계획

이 끝나면 현수막을 철거해 버리기 때문에 사진이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사진의 상황에 대해 이치노헤 스님은 상관이 병사들이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 ‘안에 들어가면 몇 분안에 나오라’ 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 등 당시 위안소마다 규칙이 있었다”면서 “아주 생생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치노헤 쇼고 스님이 9월 8일 일본 위안소 설치 증거 사진들을 공개하고 있다.


중국 남경 위안소 부지. 올해 중으로 위안부 박물관이 설치된다. 이치노헤 스님은 이곳에 위안소 사진들을 기증하고 종걸 스님과 함께 화해의 법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진을 통해서 몇 가지 역사적 사실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치노헤 스님에 따르면 칭따오에는 해군 위안소가 설치됐다는 기록만이 존재했지만, 이번 사진의 발견으로 육군 위안소 역시 칭따오에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치노헤 스님은 “일본군에서도 해군과 육군은 사이가 좋지 않아 함께 위안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서 “이 사진은 육군 위안소 사진이며, 칭따오에는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 위안소도 함께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안소 운영의 특이점도 발견됐다. 일본군은 대대적으로 위안소를 이용하는 것을 감추기위해 시내가 아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교외에 위안소를 설치했으나 공개된 사진은 칭따오의 시내임을 알 수 있다.

이치노헤 스님은 “위안소 옆의 간판은 약국이며, 화장품 가게의 포스터가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사진의 위안소는 칭따오에서도 번화가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치노헤 스님은 공개한 자료들이 객관적 역사를 실증하는 데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올해 개관하는 중국 남경 위안부 박물관에 위안소 사진 일체를 기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걸 스님과 이치노헤 스님은 이곳에서 화해 법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치노헤 스님은 “피해자는 문제의 접근을 감정적하기 쉽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의 강제성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감정선을 건드려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강제성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문제의 본질에서는 멀어지게 된다. 자료를 공개하는 이유도 사실을 검증하고 확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역사 연구가 진행되기 바래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족주의는 분쟁을 만들고 평화에 기여하지 못한다. 민족을 넘는 철학이 필요하며,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불교”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 조동제 전북 지사장

인성교육 강화 ‘새 컨트롤타워’ 구축

조계종 포교원 8일 출범식… 위원장 혜거 스님 위촉

조계종 포교원이 2012년 출범한 ‘청소년심성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9월 8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서 ‘인성교육계발 · 인증위원회(이하 인성계발위원회, 위원장 혜거)’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선 기존 청소년심성프로그램자문위원회 경과보고 및 확대 · 개편 취지보고, 위원회 조직 구성 소개, 위촉장 수여 등 진행됐다.

포교원은 “인성교육진흥법및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인성교육을 위한 불교계의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다”며 “포교원 인증 청소년인성프로그램 등 사회에 적극 홍보 · 보급하고, 종단차원 인성교육사업 계획을 위해 ‘청소년심성계발자문위원회’를 확대 ·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이 위원장으로 나선 인성계발위원회에는 고문단으로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정갑운 국회부의장, 송석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이 참여했으며, 계발위원은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인경 스님, 교육부장 진각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등 15명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9월 8일 인성계발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종단차원 인성교육시스템 마련
고문단 용타 스님 외 3명
위원회에 인경 · 마가 스님 등
“불교계 사회적 역할 수행할 것”

위원장 혜거 스님은 “청소년 범죄율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와 종단은 함께 힘 모아 ‘사람다운 사람’을 교육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단 한명이라도 제대로 인성 갖춘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불교계가 나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송석구 고문은 “인간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믿음 아래 불교계가 청소년 심성계발에 나선 것이 매우 반갑게 느껴진다”며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인성이 계발될 수 있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이어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새롭게 구성된 고문 · 위원단에 축하를 전하며, 템플스테이문화가 인성교육의 새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님은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이 전국 약 140여개 되는데 주로 10대를 비롯한 20~40대 청 · 장년층이 고루 참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명상 · 인성프로그램이 불교계 전인적 인성교육의 새로운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포교원은 2012년 ‘청소년심성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청소년심성계발프로그램을 인증 · 계발 · 보급해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청소년 마음등불’을 국고사업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밖에도 ‘명상과 함께하는 감정조절 프로그램’, ‘청소년명상프로그램-나를 찾아가는 선’ 등 개발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화쟁’의 올바른 이해 · 실천 방안 모색

화쟁위 · 화쟁 아카데미 22일 좌담회 개최

‘화쟁(和諍)’은 여러 대립되는 의견들을 조화시키려는 불교 사상으로, 현대사회 갈등과 문제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화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실천법을 모색하기 위한 담론의 장이 열린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와 화쟁문화아카데미(대표 조성택, 이하 화쟁아카데미)는 9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사간동 란스튜디오 3층서 ‘화쟁 좌담회-화쟁(和諍)을 화쟁하다’를 공동 주최한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 조성택 고려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이도흠 한양대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좌담회는 최근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의 ‘화쟁론’에 대해 이도흠 교수가 모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반박하며 사회적 화제를 이끈 것이 단초가 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화쟁에 대한 이해와 오늘날 사회상에 화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화쟁아카데미는 “화쟁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증대될수록 이해와 관점도 달라지며 쟁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화쟁의 방법으로 풀어보고자 ‘화쟁을 화쟁하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마련했다”며 “쌍용차나 강정마을, 종단 내부 관련해서는 의현 스님 재심결정 등 현실 사례들에 화쟁을 적용해보는 등 진지한 성찰과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문의 (02)2011-1925

박아름 기자

‘사부대중위원회 구성’ 종령 입법예고

개혁정신 계승과 과거사 문제 논의를 위한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될 종령이 제정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9월 3일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사부대중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의제로 열린 제5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구성이 결의된 기구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부대중위원회는 ‘1994년 종단 개혁의 정신 및 내용을 계승하고 통합종단 이후의 과거사 문제 해결 및 1994년 멸빈자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과 분과위원장, 자문위원회, 총괄처, 실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교구본사주지, 중앙종무기관, 중앙종회의원, 전국비구니회, 신도 및 신행단체, 불교시민사회단체와 대중공사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7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한다.

분과로는 △과거사 정리 분과위원회 △1994년 멸빈자 처리 분과위원회 △종단개혁 계승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활동기한은 1년이며 △통합종단 출범 이후 과거사 문제의 선정 및 조사, 처리방향 및 기준과 원칙 마련 △1994년 멸빈자 문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해결방안 마련 △대중공의를 통한 종단개혁의 미래지향적 계승과 발전방안 제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운영예산은 종단 보조금, 후원금, 희사금 등으로 이뤄진다.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에 대한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ykkim@buddhism.or.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02)2011-1732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 주 문



인드라망 귀정사 숲 템플스테이

도법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스님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남원 인드라망숲살림원에서는 '아이와 함께하는 귀정사 숲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제2차 신묘장구대다라니 사경기도

원명 서울 조계사 주지 스님은 10월 1일~21일 오후 6시 조계사서 '제2차 신묘장구대다라니 3·7독 사경기도'를 진행한다.



사찰건강도시락 경연대회

원학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10월 8일 오후 2시 '사찰건강도시락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9월 21일 접수 마감해 10월 8일 본 경연대회를 실시한다.



교정인불자연합회 수련법회

민육기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회장은 10월 3일~4일 마곡사서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정찬주 작가 오스트리아서 강의

정찬주 작가는 9월 2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추기경문화회관에서 '한국인에게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불교방송 '제2의 도약' 이루겠다"

선상신 BBS불교방송 제9대 사장



오는 10월 8일 취임식 개최
직원 워크숍·대외 홍보 강화
내·외부 소통위한 사업 추진
BBS 발전 담은 비전 선포도

"9월 1일 업무현황을 문서로 보고 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식 업무일은 오는 9월 27일부터이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서 방송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취임식 준비도 철저히 하려 합니다."

선상신 BBS불교방송 제9대 사장<사진>은 9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계획과 취임식에 대해 간략히 밝혔다. 선 사장의 취임식은 오는 10월 8일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열린다.

7월 22일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선출된 선 사장은 지난 2개월여 동안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 스님,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예방하고 불교방송에 대한 관심을 부탁해왔다. 또한 불교방송 발전 방안 구상도 지속적으로 준비했다.

실제 선 사장은 후보 당시 이사회에 6대 목표 28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6대 목표는 △사옥 건립 △효율적인 조직 운영 △재무 건전성 확보 △시청률 및 청취율 제고 △프로그램 제작 내용 및 환경 개선 △언론사 위상 정립 등이며, 세부 계획으로는 BBS글로벌미디어센터 건립, 신규 불교문화콘텐츠 제작, 공정한 인사제도, 라디오 주파수 추가 확보, 시사 보도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서도 내·외부 소통을 위한 자신의 생각들을 피력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불교방송 처음 개국 당시 모두가 환희심을 갖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조계종과 대한불교진흥원의 관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매끄럽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취임 이후 9월 30일 직원 조회에서는 김규칠 진흥원 이사장이 격려사를 하고 10월 8일 취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참석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불교방송 사장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개국 이래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이번 취임식은 개인의 일을 넘어 '제2 개국 선언'의 의미를 가집니다."

선 사장은 '소통'의 주요 방안으로 직원 전체 워크숍과 미디어 전문가 세미나, 외부 홍보를 위한 홍보 라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정관계 인사가 참여하는 불교방송 비전 선포식도 계획 중이다.

"취임식에서는 불교방송의 대략적 운영 목표를 발표하고 이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운영 계획을 밝히겠습니다. 또한 직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내놓을 것입니다. 불교방송이 불법 홍포의 미디어이자 사회의 공기(公器)임을 자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신성민 기자

고운사, 각성 스님 대승기신론 특강



고운사(주지 호성)가 9월 7일~11일 고운사 화엄템플관에서 각성 스님 대승기신론특강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각성 스님은 "과거의 보살들이 이미 이 법에 의지하시어 청정한 믿음을 얻어 이루셨다. 현재의 보살이 지금에 이 법에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얻어 이루며 미래의 보살도 마땅히 이 법에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얻어 이룰 것"이라고 법문했다.

한편, 고운사 특강법회는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점수 30점이 부여된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영천 은해사 불교대학 수계식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9월 9일 은해사 영천포교당에서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80여 명의 불자들은 은해사 주지이자 은해사 불교대학장인 돈관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돈관 스님은 특별법문을 통해 업에 대해 말하며 앞으로 대중들이 참된 불자로 살기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묘각 스님 선출



한국불교미륵종은 9월 1일 새 총무원장 선임을 위한 중앙종의회(의장 보성)를 열고 총무원장 권한대행 묘각 스님을 만장일치로 한국불교미륵종 제5대 총무원장으로 추대했다.

총무원장 추대는 종헌 상 절차에 의해 법인이사회(이사장 : 법일 스님)에서 이사 5명의 전원 찬성으로 인준을 거쳐, 종정 무불 스님의 재가를 받아 9월 1일자로 실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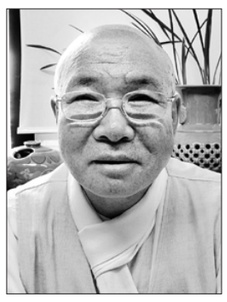
한국불교미륵종 제5대 총무원장으로 선임된 묘각 스님은 한국불교미륵종 재무부장과 중앙교구원장, 종회의원, 감찰원장, 법인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묘각 스님은 "미륵종단 중흥과 위상 향상 발판마련을 위해 종단 분규사태로 흐트러졌던 조직을 재정비해 종단 기강을 확립하고 진정한 종도화합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100분 선지식에 진리의 법 청하다

만청 한국불교최고지도자연합회 총재 스님

9월 15일 오후 2시 부여체육관서
백고좌 및 진신사리 친견법회



"나라 안팎으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때보다도 국운융창과 국민화합을 위한 평화가 절실합니다. 이에 각 종단의 종정과 총무원장 및 원로 스님들 100여 분을 모시고 감로법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9월 15일 오후 2시 충남 부여군민 실내체육관서 세계평화기원 백고좌 대법회 겸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여는 석만청 한국불교최고지도자연합회 총재 겸 대각종 종정 스님<사진>은 이번 법회의 취지를 이렇게 피력했다. 백고좌법회는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고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100일 동안 매일 한 분씩 100인의 큰 스님을 모셔 법문을 듣는 법회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진평왕 때 황룡사에 백고좌를 차리고 원광법사 등을 맞아들여 설법한 것이 처음이었다. 이번에 4회째를 맞은 백고좌 법회는 종단을 초월해 한국불교에 영향력을 미친 스님들을 초청해 하루동안 법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문화마당이 펼쳐지며, 특히 부여 미암사에 보관중인 1과서 3과로 증과된 진신사리를 이운해 친견하는 진신사리 특별친견법회도 마련된다. 만청 스님은 "현실 감각에 맞고 삶의 번뇌를 물리칠 수 있는 단비 같은 말씀이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삶의 진리를 청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서울시 노동권익 힘모아

노동위, 9월 9일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



왼쪽부터 김성희 소장, 사회부장 정문 스님, 노동위원장 혜용 스님.

각종 사회문제에 앞장서온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이번엔 서울시와 손잡고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해 나선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노동위)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9월 9일 노동자 마음과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사회부장 정문 스님, 위원장 혜용 스님과 서울노동권익센터 김성희 소장, 심재옥 기획협력팀장 등 함께했다.

노동위와 권익센터는 향후 노동자템플스테이, 심리상담 및 명상프로그램 등 마련하는 등 상호업무협력 체계를 구축·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혜용 스님은 "많은 소방관들이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다. 소방관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자들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이 필요할 것"이라며 "불교계와 서울시가 합심해 템플스테이, 명상프로그램 등으로 근로자들의 쉼터를 마련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박아름 기자

법왕사 제 30회 백고좌대설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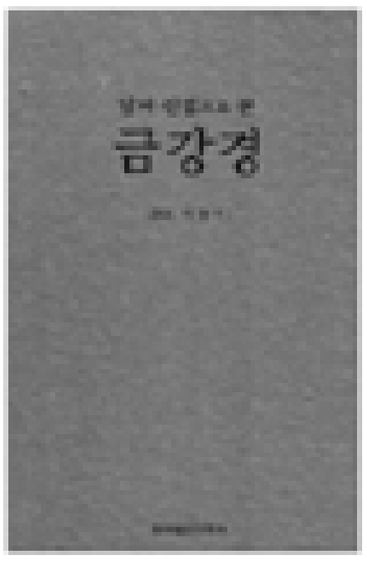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가 9월 9일 제30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식을 가졌다. 법회는 중심문도회 회주 심경 스님을 증명법사로 12월 17일까지 100일간 열린다. 법회의 첫 법사로는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스님이 나섰으며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각 스님은 "초발심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정각을 이룬다"면서 승만경을 강설했다. (053)766-3747

손문철 대구지사장

〈바로 잡습니다〉

제1061호 2면에 자료오류로 인해 잘못 보도된 능인선원 서울대불 높이를 18m에서 **38m**로 정정합니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해주 | 464면 | 양장 | 372쪽 | 15,000원 | 여시아문

제대로 된 금강경 해설서!
공개된 무지를 비밀스레 묻는 산방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인습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산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심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게 될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전국중고등학생 대표 선사의 제자 세사로서 오랫동안 대중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다음세대를 한 걸음앞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고쳐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자성에 불복 혹은 실상 아닌 이야기 없는 것 같지만 될 거는 공제 아닌이 더 무는 공제 전제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깨어나는 연세되기 쉬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깨치기 쉽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 을 참불로 살아야 한다' 고 말한다.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정 · 아미타경과 정토개술 -
인천스님 · 보문주사 번역 | 464면 | 무량합장 | 256쪽 | 15,000원 | 비움과소통

관세음 보살진지에 들어 상생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정, 관한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서술한 정토의 진액만 뽑은 책로, 보통 서점수 하시는 인스코리아에서 펴낸 '아미타경, 관무량수경과 함께, 여러분의 새롭게는 법을 개설한 대한 법문주의의 정토 학술자료입니다. 한국불교에 아직이 없다. '관한 학술, 관 삶이 최상의 삶 하려를 여러분 인스코리아 번역한 경전이 중이면 지침서이다.

엄청이 살아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토경서 일부를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무무량수불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아미타불의 무량수정 서원을 세상에 널리 회향하고자 합니다.
불교소식을 비움과소통 홈 www.bnw.co.kr
불서안은 책방 비움과소통 02-3012-8700

여시아문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화 : 02-2004-8230 | 팩스 02-737-0608



9월 4일 베트남 짱방현 웬자이 고등학교서 열린 불교계 NGO 단체인 월드머시코리아의 희망장학금 수여식이 끝난뒤 수혜받은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며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웬 반보 위원장이 현진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롱칸현 보산사에 열린 월드머시코리아 장학금 수여식.

전쟁의 상흔 위에 흩뿌려진 '희망'의 빛줄기



현진 스님(월드머시코리아 대표)

"장학금은 돈이 아닌 희망을 전해 주는 것"



지일 스님(복지법인 내원 상임이사)

"용기 잃지말고 꾸준히 학업에 전념 해주길"



석혜심 스님(보산사 주지)

"어려운 이웃 돕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



레콩자 회장(쭝립하 지방정부 대표)

"새학기 시작 때마다 학생들에 용기줘 감사"



썬 부동장(빈구현 동사무소 부동장)

"꿈 펼치려는 이들에게 장학금은 큰 도움"

월드머시코리아, 9월 3~5일까지 베트남 희망장학금 전달식 열어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머시코리아의 자비행이 베트남 오지마을에 펼쳐져 현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월드머시코리아는 대표이사 현진 스님을 비롯해 지일 스님(사회복지법인 내원 상임이사), 루이엔 월드머시 베트남 희망장학회 회장 등 관계자 4명이 9월 3일부터 5일까지 베트남 남중부지역인 쭝랍하, 짱방현, 롱칸현, 빈푸성, 빈구현 등 5개지역 초·중·고·대학생 총 616명(초등=264명, 중등=231명, 고등=72명, 대학생=49명)에게 2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중 라오스 국경지역에 위치한 빈푸성 지역은 안타깝게도 정치적 여건상 해당관청서 월드머시코리아의 방문에 난색을 표해 관계자를 통해 수혜자 110명 학생의 각 집마다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졌다.

월드머시코리아 대표이사 현진 스님은 "산간 오지지만 지난해엔 수혜자 학생들을 찾아가 장학금을 직접 전달했으며, 이번에도 베트남 입국전까지 아무말이 없어 순조롭게 행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방문하루전 갑자기 해당지역 관청서 외국 NGO단체 방문을 불허해 당황스럽다"며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산간지역으로 갈수록 아직도 외국인들과의 접촉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 구호복지사업을 펼치기도 힘들때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월드머시코리아가 주는 장학금의 이름은 미래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의미에서 붙여진 희망장학금이다. 이번에 이를 전달한 지역은 베트남 남중부 산악지대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롱칸현과 빈구현은 소수 민족이 거주한다. 또한 대부분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피해가 크며 아직도 회복이 안돼 경제적으로 낙후된 것이 특징 이다. 하지만 높은 교육열로 지역 학생들의 학업 열기는 뜨거운 편이며, 이번 장학금 수혜대상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해당 동사무소와 학교에서 선별했다.

함께 동행한 지일 스님은 "한국과 베트남은 전쟁으로 인해 비슷한 뼈아픈 역사를 지닌 나라이다. 양국이 이번 장학전달사업 등으로 우호관계가 증진되길 바란다"며 "장학급을 지급하는 것은 베트남 미래의 희망을 일궈갈 동량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각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공부하는데 충분치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용기를 잃지말고 꾸준히 학업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9월 4일 첫 방문지인 쭝랍하 동사무소 행사에서 펼쳐진 희망장학회 전달식에서 레콩자 지방정부대표는 "우리 쭝랍하지역은 베트남전쟁중 가장 치열했던 꾸찌현에 속해 있어 피해가 가장 심했었다"며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지역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인데 이렇게 해마다 잊지 않고 새학기가 시작할때마다 방문해 학생들에게 학비를 보조해 주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짱방현 등 낙후된 남중부 5개지역 방문
초중고대학생 616명에 2700만원 수여
내년 1월 우돔싸이에 중등학교 완공 예정

짱방현 웬자이 고등학교 앞마당 특설무대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은 재학생 10명이 무대에 올라 현대식 허슬 춤을 공연하는 환영 행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웬 반보 짱방현 인민위원회 부 위원장은 "학생들이 희망장학금을 받고 성장해 사회의 인재로 진출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희망과 꿈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며 "지역정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필요한 인재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관심을 표명했다.

월드머시코리아의 장학금 전달식이 끝난 뒤에는 웬자이 고등학교장이 월드머시코리아 대표 현진 스님에게 감사패와 학생들의 감사편지 20여통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편지를 살펴보니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꼭 성공해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등 감사와 희망의 언어로 가득차 있어 월드머시코리아 관계자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웬자이 고등학교 출신이자 베트남 희망장학회 회장인 루이엔씨는 "저도 학생시절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지만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해 베트남 최고 대학인 호치민대와 한국의 명문인 서울대, 연세대 등서 석박사를 받았다"며 "여러분들도 공부하는데 현실적인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꼭 극복해 나중에 어려운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는 자비와 보살행을 펼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마지막 행사는 롱칸현 보산사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장학금 전달식이 시작되기 전 사찰 어린이 무용단이 '존경하는 스승님께' 라는 주제로 연꽃춤과, 소수민족 어린이 무용단 6명이 '스님의 마음'을 주제로 환영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지친 여정의 노고를 풀어주었다. 이 자리에서 석혜심 보산사 주지 스님은 "종교를 초월해 공부를 잘하면 후원해 주는 것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우리 베트남은 총 인구 9500만명중 약 50프로 이상이 불교신자이다. 우리 불자들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며 "베트남은 통일된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은 전쟁의 피해로 어려움이 계속된다. 우리 롱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우리 지역을 찾는 월드머시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5일에는 빈구현 동사무소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썬 부동장은 "우리 빈구현은 산악지대에 위치해 매일 2~3시간을 걸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을 정도로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하는 학생이 많아 희망장학금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환한 미소를 지우며 설명했다.

실제로 행사장서 만난 학생들중에는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다. 고교시절 집이 멀어서 학교 근처서 하숙을 하다 부탄가스가 폭발해 심한 화상을 입고도 호치민소재 웬 덧 탄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한 웬 푸닥 군(21)은 "2년째 장학금을 받고 있다. 몸이 비록 정상이지 않지만 힘들때마다 저를 응원하고 후원을 해주는 월드머시 현진 스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대학졸업 후 취직을 해서 돈을 벌게되면 어려울때 은혜를 받은 만큼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할 것"이라고 연실 허리굽혀 인사하며 고마워했다.

소수민족 출신의 고등학생인 웬티 홍판(17)도 "집이 학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매일 통학하기 힘들지만, 이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새 학기에 낼 학비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렇게 1년치 학비를 주셔서 올해에도 학비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어 기쁘다"고 즐거워 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초등학생에 50만동(2만 5천원), 중학생에 60만동(3만원), 고등학생에 80만동(4만원), 대학생에 200만동(10만원)의 장학금이 각각 지급됐다.

한편 2011년 창립돼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불교계 NGO단체인 월드머시코리아(www.worldmercykorea.com)는 국내 청소년 장학사업을 비롯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지서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및 해외 이웃돕기, 국내외 긴급구호, 환경개선, 국제구호단체 네트워크 결성 및 홍보, 교육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000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특히 청소년 교육 지원과 저소득층 생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월드머시코리아는 내년 1월 라오스 북부지역 최대 산악도시인 우돔싸이에 10개의 교실로 구성된 돔싸이 중고등학교 건립 완공을 앞두고 있다.

베트남=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원효대사가 밝힌 정토왕생의 길



유심안락도
遊心安樂道
-마음이 극락에서 노니는 길-

한국불교의 위대한 성자 원효대사가 서방정토와 극락왕생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유려한 문체로 명쾌하게 서술한 정토신앙의 지침서!

원효 저/혜봉 역주/국판 양장/200쪽/값 12,000원

각종 점안의식의 작법절차를 집대성!



해사 편집/사륙배판/스프링 제본
312쪽/값 30,000원

점안의식집

전래되는 의식집들을 비교분석하고 보완하여 여법한 점안의식을 완성!

삼화상청, 신중작법, 불상점안, 삼보통청, 신중권공, 화엄시식, 조탑점안, 나한점안, 신중점안, 시왕점안, 천왕점안, 산신점안, 가사점안, 조전점안, 불상이운, 괘불이운, 파불급경가사소송법 등 수록

드디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반야심경 출간!

어린이 반야심경

어른도 함께 보는 알기 쉬운 반야심경 풀이



오랫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장선생님이 어린이들을 위해 펴낸 책!

어린이의 수준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해설, 편안하고 예쁜 삽화들이 어린이들을 행복하고 지혜로운 반야심경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민병직 글·용정운 그림/전면컬러/
208쪽/값 11,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나눔과 전통예술 한마당… 교리 퀴즈, 문화경연 등

제1회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 및 제7회 나란다 축제 '성료'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9월 5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서 전국 고등학생 대상 '제1회 은정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제7회 나란다 축제에서 열린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 대회

가을비가 남산 산록을 적신 9월 5일 아침, 동국대 캠퍼스 곳곳에는 빗소리 사이로 가야금, 창소리 등 국악 가락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고운 한복을 입고 전통악기를 든 청소년들이 이날 열린 전통예술 경연대회 준비에 여념 없는 모습이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 이하 은정진흥원)은 9월 5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서 전국 고등학생 대상 '제1회 은정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주최로 제7회 나란다축제와 함께 열린 이번 행사는 불자청소년들을 위한 놀이 한마당을 제공하는 한편, 불교계가 청소년 국악인재 발굴 · 육성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경연대회는 △성악 △기악 △무용 △타악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오전에 열린 예선을 통해 각 분야 4명씩 총 16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공연 순서는 분야와 관계없이 본선진출자들이 직접 추첨해 정해졌다. 성악 참가자들은 긴아리랑, 산염불, 창부타령 등 열창했으며, 기악 분야서는 대금, 가야금, 거문고 등 한국 대표 전통악기들이 선보여졌다. 사물놀이패는 무대에 흥겨움을 더했고, 화려한 한복자락을 휘날리며 절제된 선을 연출한 무용들은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참가번호 12번 김시은(전통예술고 1년 · 여) 학생은 "민요를 부를 때 가락보다는 가사를 좀 더 자세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가사를 있는 그대로 느끼면 감정이 더 살아나고, 그로써 가락도 조금 더 구성지게 연출되는 것 같다"며 민요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전했다. 또한 참가번호 16번 정유정(브니엘예술고 3년 · 여) 학생은 '긴 아리랑'을 경연곡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가사와 선율, 기술적으로도 모든 게 마음에 들었다. 또 어려운 곡이라 꼭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패기를 드러냈다.

시상은 종합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비롯해 분야별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각각 수여해 본선진출자 16명 모두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종합대상은 참가번호 7번 강태훈(전주예술고 3년 · 남) 학생이 차지했다.

느린 템포에서 빠른 템포로 변화하며 흥을 돋우는 곡을 준비한 강태훈 학생은 "전통 악기 연주가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평소에도 즐겁고 신나게 연주하려고 노력한다"며 "젊고 신선한 거문고 연주로 훗날 세계에 한국예술을 널리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악 · 기악 · 무용 · 타악 4개 분야서
각 4명씩 16명 본선행 '전원 수상'
전주예술고 3년 강태훈 대상 '영예'

이밖에도 △금상 박소연(성악), 이정제(무용), 유민영(타악) △은상 김시은(성악), 강병하(기악), 김현수(무용), 이보미(타악) △동상 정유정(성악), 천세흔(기악), 강주은(무용), 이정현(타악) △장려상 백승연(성악), 김진희(기악) 유미라(무용), 김영탁(타악) 등 각각 수상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안숙선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 감독은 "숱한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표출되는 표현이 아닌 학생들만이 가진 순수한 표현에서 우리 국악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가 첫 걸음을 내딛은 만큼 국악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대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아울러 교리 경연 등을 통한 불교 인재 양성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제7회 나란다 축제'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나란다 축제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기부 동참'이었다. 부문별 참가자 1인이 1문제의 정답을 맞출 경우 100원의 기부금이 적립되기 때문이다. 경시대회 및 댄스대회 참가자는 응시만으로도 100원이 자동 적립된다.

'제7회 나란다 축제'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불교교리 경시대회 △전통문화 체험마당 △백일장 및 사생대회 △회향마당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 등 6개 마당으로 펼쳐졌으며 궂은 날씨에도 3천여 명의 초 · 중 · 고등생이 참가해 실력을 뽐냈다.

본 행사에 앞서 만해광장서 입재식이 거행됐다. 입재식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상임이사 법경 스님 등 참석했다. 지원 스님은 "빗속에서도 해맑게 웃는 친구들을 보니 마음까지 흐뭇해지는 날"이라며 "부처님 자비심처럼 넓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글짓기와 그림에 임하면 모두가 좋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이해랑예술극장 및 대각전서 초 · 중 · 고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나는 누구인가'와 '광복 70년주년 나라사랑'을 주제로 열렸다. 다만, 만해광장서 예정돼있던 백일장 행사는 우천으로 진행됐다. 또한 나란다 축제의 시발점이 된 '불교교리 경시대회'는 서울 동국대를 비롯해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지역에 시험장을 개설했다. 참가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차분하게 시험에 임했다.

궂은 날씨에도 3천여 명 참가
초등생 '범종 울려라' 우승 김지현
전통문화 체험 등 행사 '다채'

초등생들의 경연대회인 '도전! 범종을 울려라'도 열기가 뜨거웠다. 초등 참가자를 응원하기 위한 사찰 응원전도 눈길을 끌었다. 첫 문제는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출제했다. '불 · 법 · 승' 삼보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답을 맞혔지만, 일부 틀린 학생도 있었다. 20여 개의 문제가 지나자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자리를 비웠다.

마지막은 '부처님께 드리는 약속'인 '발원'을 묻는 문제였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참회'와 '오계'를 적었고, 단 1명의 학생만이 '발원'을 적어 우승이 결정됐다. '발원'을 적은 우승의 주인공은 보라매법당 어린이 법회에서 출전한 김지현 군(대곡초 · 5)이었다.

이미 앞선 대회에서도 2번의 장려상을 받았던 실력자였던 김 군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줄 알고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쉬웠다"면서 "대상을 받아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보라매법당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 혜장 스님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스님은 "법회에서 북아트나 애니메이션, 놀이를 통해서 쉽게 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대회서 성과를 보인 것 같다"면서 "우승한 학생은 평소 법회에도 잘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다. 그런 아이가 우승해 지도법사로서 더 기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펼쳐진 전통문화 체험마당은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준비한 체험마당 부스들이 다양하게 설치 · 운영됐다.

한편, 군장병 부문 교리 경시대회도 9월 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개설된 시험장에서 진행됐다. 사관생도 · 경찰대생 부문은 9월 16일 오후7시~8시까지 해당 학교법당에서 실시됐다.

신성민 · 박아름 기자

한가위선물 '불교판매점'서 준비하세요!



BTN '산사애' 홈페이지

불교계 추석선물 판매처

산사애 www.sansae.co.kr	1899-3815
조계종출판사 '승소' www.jogyebook.com	(02)720-1760
인드라망생협 www.shopping.happycoop.or.kr	1600-6215
현불샵 www.hyunbulshop.com	(02)2004-8213

산사애, 승소 등 추석선물 출시

시중에 판매 중인 추석선물세트가 유통기한, 거품가격, 품질 등에서 온전하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구매 앞에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만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믿음이 안 간다면 올해는 불교계 판매단체서 구매해보는 것은 어떨까? 불교계 판매점들이 추석을 맞아 국내산, 친환경 추석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BTN '산사애'는 추석을 맞아 김치 종류를 총망라해 판매하고 있다. 3kg부터 10kg까지 중량별로 전라도 포기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갓 김치 등을 기호에 맞게 주문할 수 있다.

홈페이지서는 모든 김치 재료 원산지와 제조과정,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등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재해 놨다. 또한 사찰전통식품관 목록에선 상주 도림사 · 상선암 · 영평사 · 해인사 · 선운사 등서 판매 중인 장류와 특산품도 만나볼 수 있다.

승소는 조계종출판사 유통사업부가 운영하는 수익사업브랜드로 '福 선물셋트' 11종을 출시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국수 · 김 혼합세트는 승소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품목이다. 국수 6봉에 전장김 5봉, 자반볶음 2봉 등 다양한 구성으로 3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감식초 · 골드농축액 · 건강기능성 음료 · 진삼 · 수삼 세트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건강 품목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가격대는 2만원~12만 원선이다.

인드라망생활협동조합은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기반으로 2003년 창립돼 친환경유기농산물 직거래를 지향하고 있다. 올 추석을 맞아 선물모음, 차례용품, 주류 선물세트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택배예약신청도 별도로 진행한다. 특히 현대인들의 편의에 맞춰 과일부터 유과, 식혜, 생선포, 나물 등 차례상 차림을 위한 재료들을 구비하고 있다.

현불샵은 기존 추석 선물과 차별화된 물품을 마련했다. 삼베타올선물세트, 밀납양초세트, 쑥양초세트, 희담석염주세트 등이다. 특히 삼베타올세트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원료로 제작된 순식물성 제품이다. 샤워타올 · 세안타올 · 수세미 등 3종 구성으로 가격은 2만 7천원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佛法으로 不法없는 사회 수호 '발원'

경찰불교회, 9월 5일~6일 창립14주년 대법회 봉행

대한민국 경찰불교회(회장 허영범, 이하 경불회)가 창립 14주년 대법회를 열고, 부처님 법에 의지해 평화 사회를 수호할 것을 다짐했다.

9월 5일~6일 서울 조계사서 열린 이번 행사는 템플스테이로 진행돼 경불회 회원 및 가족 2백여 명이 함께했다. 6일 12시 대웅전서 열린 14주년 대법회는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법문이 진행됐으며, 앞서 오전 10시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마가스님의 자비명상도 실시됐다.

경불회는 "사회 평안과 안정을 위해 전국서 활동 중인 경찰불자들이 부처님법에 의지해 사회 활동을 펼쳐가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대외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마음의 안정을 찾길 바란다. 한 사람 한사람이 밝아지면 살만한 사회가 될 것"이라 서원했다.



경찰불교회가 9월 6일 서울 조계사서 창립 14주년 대법회를 봉행했다.

박아름 기자

봉 초대합니다 행

화순동복 모후산 도원사 개원 11주년 기념 1080연등불사(불자노래자랑)

소년소녀 가장돕기 제6회 산사음악회

연등은 광명의 등불이요. 지혜는 무명을 밝히는 의미이고, 등불을 밝히는 진정한 의미는 탐,진,치 삼독심을 씻고, 업장소멸과 재앙을 물리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갖가지 소원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공덕 지으시고 권선공덕도 쌓으시기 바랍니다.

◆1부 : 내외귀빈 축사, 장학금전달식(소년 소녀 가장), 공로패 증정
◆2부 : 문화공연, 신도 노래자랑, 경품추첨 (푸짐합니다)
◆3부 : 공연 – 사회(서봉식), 특별출연(현진우, 온희정, 평양예술단), 초청가수(정현, 정주호, 박동운, 이진숙), 모후산 난타

◆일시 : 2015년 10월 3일(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모후산 도원사 야외음악단

1인 1등 일만원 / 접수 : 9월 30일까지 (바쁘신 불자님은 전화 접수 가능합니다)
▷행사장 오시는 길 : 화순군 동복면 한천리 한천농악 전수관 (내비찍고 오십시오)



■ 주 관 : 사단법인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 주 최 : 대한불교선각종 전남교구 종무원
■ 협 찬 : 선각종 전국교구본사, 불교TV 광주방송, 호남일보, 현대불교신문, 화순군계사회, 삼천불교상사, 광주사랑모임, 영진골재중기(화순읍), 신세계약국, 한일리모델링, 금호타이어, 한우곰탕, 금강민물식당, 금성식당, 우진관광, 동복하나로마트, 매실내떡방앗간, 사평맛고을식당, (주)천하산업, 해남 장성 제재소, 방생회, 신도일동, 스님모임 달마회

대한불교선각종 전남교구종무원장 도 원 사
주지 진철 총무 다선 신도회장 오찬열 두손모음
061)372-1047 / 010-6258-8325. 010-4433-0506
계좌번호 : (우체국) 500173-02-030214 (예금주 : 도원사)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48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이웃과 함께하며 풍성한 한가위를…

교계복지관 추석 프로그램 풍성

본동복지관-무료급식 및 쌀 전달
종로노인복지-세시풍속행사 진행
마천복지관-명절음식 나누기 행사





추석을 맞아 교계 복지관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사진 위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마련한 세시풍속행사 '늘 한가위만 같아라' 지난해 행사 장면. 사진 아래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지난해 합동차례 사진.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다. 추석은 보름달만큼이나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고유의 명절이다. 9월 27일 추석을 맞아 교계 복지관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송편 나누기에서부터 소외이웃 쌀 지원, 합동차례 등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추석 프로그램을 모아봤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추석을 맞아 국민은행 IT운영부 지원으로 동작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한가위 자비 나눔 한마당 나누 米' 를 실시한다.

본동복지관은 "기업과 연계해 무의탁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저소득 가정에 명절의 의미와 명절이 가진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자 마련됐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에 본동복지관은 9월 23일 동작구 거주 저소득 및 취약계층 200가구 독거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40여 가구에 쌀을 전달한다. (02)817-8052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9월 22일 세시풍속행사 '늘 한가위만 같아라' 를 진행한다. 복지관 어르신 120명이 함께하는 이날 행사에는 젊은 예인들이 모여 만든 전통타악그룹 '모리' 의 타악퍼포먼스와 판굿 무대를 시작으로, 시각장애인 합창단 '라파엘코러스' 의 아름다운 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농촌살리기의 일환으로 경북 상주 특산물인 '문장대 햇포도' 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한다.

관장 정관 스님은 "복지관 어르신들께서 풍성한 한가위의 느낌을 만끽하시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함께 모여 즐거운 공연도 즐기고 음식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2)6247-9924

마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시형)은 명절음식을 이웃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마천복지관 '늘푸른대학' 어르신들이 직접 명절음식 만들기에 참여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한다. 마천복지관은 "우리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복지관 어르신들이 명절음식을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 등의 소외 이웃과 나누고자 한다. 또한 경찰관 소방대원 등 업무상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없는 이웃들도 직접 찾아가 음식을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02)449-3141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도 추석을 맞아 송편나누기, 합동차례 등을 실시한다.

자양종합복지관은 "9월 23일 복지관 어르신들이 송편을 빚어 소외이웃에 직접 전달한다. 24일에는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석합동차례 지내기' 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02)458-1665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무산복지재단(이사장 정념)과 양양군노인복지관은 추석을 맞아 낙산사 회주 도후 스님의 후원으로 한가위 어르신 큰잔치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무산복지재단은 9월 22일까지 6회에 걸쳐 양양군 6개 읍·면 어르신 4000여 명을 복지관으로 초청 식사를 대접하고 기념품을 전달한다. (033)673-2685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도 공동차례지내기와 1~3세대가 함께하는 윷놀이를 진행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는 어르신들과 전과 송편 등을 함께 만들어 차례를 지낼 예정이다. 또한 오후에는 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윷놀이를 하고 3층 강당에서는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02)739-9501

이밖에도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24일 어르신과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고 공연을 마련할 예정이다. (02)376-414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제천장애인복지관 대통령 표창 수상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맞아 우수시설로 선정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9월 7일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회복지 우수시설 '대통령표창' 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표창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국 182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 후 지난 6월 점수를 공개했던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평가' 의 결과다. 제천장애인복지관은 98점으로 총점 1위를 획득, 6개 분야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천장애인복지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어려운 근무 여건에도 마음을 모아 함께 해 온 직원들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법인과 사찰·스님들께 감사드린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 내 장애인복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제천장애인복지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서 전국 182개 장애인복지관 중 평가 1위를 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의 흐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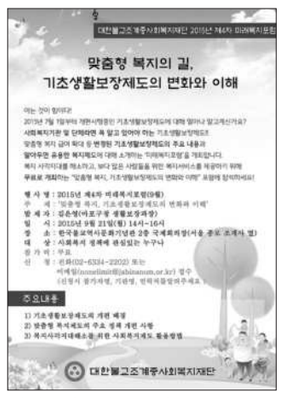
조계종사회복지재단 9월 21일 미래복지포럼 개최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9월 21일 오후 2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이해' 를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7월부터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시행되고 있지만, 변경 기준과 세부 지원 내용에 대해 현장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며 포럼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개최하는 미래복지포럼은 마포구청 김은영 생활보장과장의 발제로 진행된다.

김은영 과장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교육급여와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주거급여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의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제도의 개편 배경과 변경된 주요정책에 대해 안내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현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복지포럼 포스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번 포럼으로 복지 현장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변화하는 국가복지정책을 이해하고, 발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보다 좋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지정책 의제생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02)6334-2202 정혜숙 기자

종단협, 네팔 지진피해 구호 성금 전달

아름다운 동행에 1억9천1백 여만원 전달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은 아름다운동행에 네팔 지진피해 구호 성금 1억9천1백 여만원을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9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네팔 지진피해 구호 성금을 전달했다.

종단협 측은 "지난 4월 25일 부처님의 탄생 성지 룸비니가 위치한 네팔에 강진이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와 엄청난 규모의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종단협에서는 이번 지진피해와 관련해 애도문을 발표하고, 피해를 입은 네팔국민들의 구호와 재건을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했다"며 그간의 과정을 밝혔다.

성금 총액은 191,153,000원으로 천태종 1억원, 진각종, 총지종 각 2천만원, 관음종·보문종 각 천만원, 일붕선교종, 용화종, 조동종, 본원종, 미륵종, 법륜종, 진언종, 원융종, 정토종, 법연종 등 10개 종단에서 모금한 19,153,000원,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만초)에서 1200만원이 모연됐다.

한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제2차 이사회에서 네팔의 사찰 복원이나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조계종 '아름다운동행' 에 성금을 기탁해 복구키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동행에서는 기금사용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한 종단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한국불교계 명의로 복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혜숙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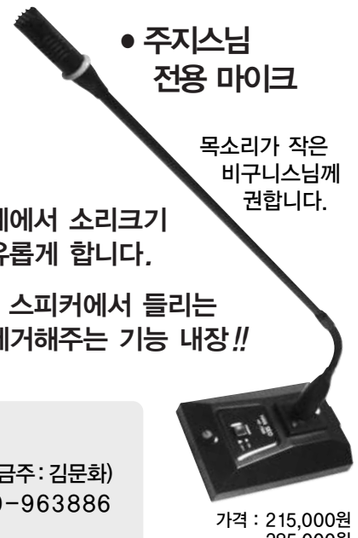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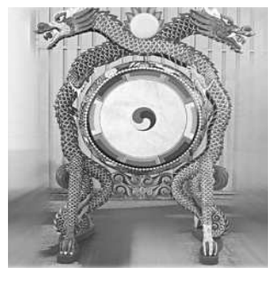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緣起따라 온 생명 '지혜·자비'로 보듬자

불교생명윤리협회 불교생명학교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생명윤리의 실천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자살률, 임신중절수술 비율 등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올바른 생명윤리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다. 부처님은 '생명존중사상'을 널리 설파하며 "자신과 타인, 나아가 모든 생명체의 목숨을 해치지 말라"고 가르치셨지만, 중생들은 그 뜻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월 7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열린 제1기 불교생명학교(주최 불교생명윤리협회)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지혜와 자비가 불교 생명윤리적 실천의 토대이자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핵심적인 두 덕목"이라며 "이는 생명에 대한 무의미한 집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생명윤리협회는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조계사 교육관 2층 대강의실서 '제1기 불교생명학교'를 진행한다. 정리=박아름 기자



김재성 교수는 … 1988년 서울대학원 철학과 석사, 1995년 일본 동경대학원 인도철학불교학과 석사 졸업, 2000년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8년~2012년 조계종 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선임연구원, 2013년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교수 등 맡은 바 있으며, 현재 불교생명윤리협회 집행위원, 삼보정사 상임법사,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등 역임 중이다. 저서로는 〈불교의 이해〉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등 펴냈다.

불교가 바라보는 '생명'

현대 사회에서 불교생명윤리를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생물학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아와 성체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는 난치병 치료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또 의료기술 발달과 함께 임신중절, 뇌사 상태의 연장 등 생명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락사와 존엄사도 죽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대사회 인권의식의 고양은 사형제도 철폐를 주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불교는 생명윤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의 시작과 그 끝인 죽음이 언제부터라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불교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생명윤리는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연구, 토론이 필요한 때입니다.

불교의 인간관은 미혹한 범부와 깨달은 성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전미개오(轉迷開悟)의 방향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인이라는 여섯 범부의 세계, 즉 윤회하는 세계인 어리석음의 세계(迷界)에서 성문(아라한), 연각, 보살, 붓다의 성인의 세계(悟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연기의 원리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조건에 의해 생성, 지속, 변화 소멸하는 연기적인 세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불교에서는 12연기 무명 · 행 · 식 · 명색 · 육입 · 촉 · 수 · 애 · 취 · 유 · 생 · 노사우비고뇌 라고 하여 중생들의 괴로움이 발생하는 구조와 소멸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욕계 · 색계 · 무색계의 삼계와 삼계에 사는 6가지 생명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대승불교에서는 초기불교의 세계관을 계승하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상호의존성을 더욱 강조하였고, 초기대승경전인 화엄경에서 보여주는 법계연기는 모든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의 상호연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불교의 깨달음 내용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 12연기입니다. 사성제를 깨달아 아라한이 되고 12연기를 깨달아 연각이 되며, 10바라밀을 완성하면 붓다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승불교는 마음과 중생과 붓다가 차별이 없음을 깨닫는 것을 강조하며, 생사의 세계와 열반의 세계가 조금도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이루면 불성(佛性), 법성(法性), 공성(空性)으로서의 인간 본성을 회복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에서 들어온 번뇌를 없애버리고 본래 청정한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을 깨달은 것이라고 합니다. 대승불교의 입장에서는 번뇌가 바로 보리(깨달음)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중생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어떤 중생이라도 자신의 생명은 아끼고 사랑하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생명도 사랑해야 한다고 붓다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한 자비와 타자를 향한 자비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의 소중함

초기경전에서는 맹구우목(盲龜遇木)의 우화를 통해 삶의 소중함과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맹구우목이란 큰 바다에 눈먼 거북이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이 거북이는 백년에 한 번씩 물 위로 머리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 한가운데 떠다니는 구멍 뚫린 나무판자를 만나면 잠시 거기에 목을 넣고 쉰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판자를 만나지 못하면 거북이는 그냥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5취를 윤회하면서 잠깐이라도 사람의 몸을 받기는 저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특히 어렵다는 것을 말하며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정신적 성숙을 이루어 더 나은 인간이나 천인 또는 성자가 되기는 더욱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이 될 가능성과 성자가 될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수행하기에는 인간계가 제일 좋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육도로 다시 떨어 질수도 있지만 바르게 수행하며 덕을 쌓으면 얼마든지 더 좋은 세계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더욱 수행정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생명관은 오온설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된 중생의 다섯 가지 요소가 바로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의 오온입니다. 물질, 육체와 더불어 감각, 느낌(受)과 지각, 판단(想), 의지적 행위(行), 의식(識)을 지닌 존재가 바로 생명체가 됩니다. 하지만 오온은 끊임없이 조건에 의해 변화하고 있으며, 길게는 한 개체의 태어남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생이 유지되고 엄밀하게는 찰나적으로 생멸합니다. 오온은 실제 하지만 오온의 배후에 고정불변의 자아(영혼)는 없고 이 오온이 생사를 이어갑니다. 이 때 '식(識)'을 종자로 한다면 '번뇌'(무명, 갈애, 집착)는 수분, '업'은 토양이 돼 생명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이나 증유 또는 중음식은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영혼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연기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정자난자 수정부터 '불교 생명' 간주
죽음 정의… 수명과 체온, 식의 소멸
지혜와 자비 실천은 불교의 생명윤리
큰 보시는 '장기기증' 등 생명 주는 것

불교에서는 인간 생명의 시작을 정자와 난자의 수정의 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불교 이래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설 때 임신중절과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독립된 생명체로서 오온의 파괴를 의미하는데 수명과 체온과 식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죽음 이해는 뇌사 상태가 완전한 죽음 상태는 아니며 뇌사와 함께 심폐사가 되어야 죽음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중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제도적인 살인으로 보며, 아무리 극악무도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살과 안락사도 역시 살인에 해당하며 안락사의 대안으로는 자연사에 해당하는 존엄사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있습니다. 하지만 병고로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간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터미널 케어로서의 완화의료인 호스피스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실천-생명윤리

불교는 중생의 입장에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않으며(諸惡莫作),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여(衆善奉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한다(自淨其意)"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팔정도를 실천하여 출세간의 열반에 도달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윤리적인 도덕규범인 계를 토대로 마음의 정화를 이루는 '선정'과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지혜'를 닦아 해탈에 이르는 과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계정혜의 삼학은 팔정도로 세분화되고 서로 해탈을 위한 수행(自利行)인 상구보리와 함께 남의 해탈을 돕는 수행(利他行)인 하화중생으로 제시됩니다. 자리행은 지혜를 추구하는 수행이며 이타행은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초기경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자리행의 핵심은 염처수행이며 이타행은 인내와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입니다. 바로 지혜와 자비가 불교 생명윤리적 실천의 토대이자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핵심적인 두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는 세간적인 가치를 넘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덕목이므로, 생명에 대한 무의미한 집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의도적인 행위의 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사자가 되기 전에 자신의 의지로 장기기증을 천명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이타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엄사도 생명의 가치와 한계를 아는 지혜로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는 지혜와 자비의 실천입니다.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있었다면 그 뜻을 존중해주어야 할 보시의 정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 중에서 가장 큰 보시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신체 일부를 주는 것, 세 번째는 물질을 주는 보시입니다. 하지만 장기기증의 경우는 가족이 반대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장기기증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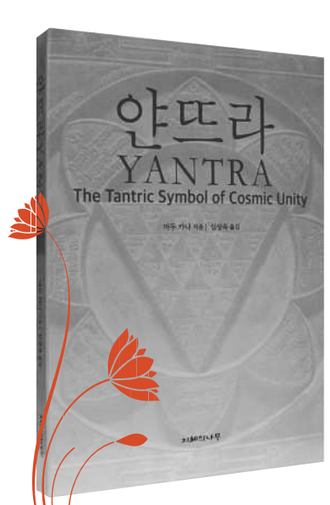
그런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반대하는 일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기준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무엇인가 라는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환자가 심폐정지가 온다면 병원에서는 당연히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회복이 어려워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면 본인의 의사로 심폐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환자가 이미 죽음의 단계로 들어갔고 더 이상 살려낼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자각이 있을 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사형제는 제도적 살인으로 불교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사형수들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죽인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교화를 해야 할 대상이지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연기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적부터 시작된 것인지 모를 우리의 이 생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임을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고양된 인권의식 만큼이나 생명윤리 의식이 불교를 통해 바르게 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지혜를 들여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얀뜨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 얀뜨라
얀뜨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이 책은 얀뜨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다. 170장 이상의 흑백과 컬러 얀뜨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로 회귀하기 위한 영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으로 얀뜨라의 역동적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얀뜨라는 전통적 사원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만뜨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흑주술과 백주술 전통 모두에 사용되는 얀뜨라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서 힘을 가지는 얀뜨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가격 : 19,800원 | 마두 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수능엄경 (首楞嚴經)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 중 20,000원 / 하 27,000원 | 세트 전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

세계불교학의 과제? "교류가 발전 담보"

동국대 세계불교학硏, 제1차 학술대회 개최

세계 불교학계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불교학의 세계화를 이끌어갈 연구소가 창립됐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는 9월 12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세계불교학연구소 개소를 알리고 이를 기념한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동아시아 · 동남아시아 · 유럽 · 미주에서 공부한 소장학자들이 각 지역별 불교학의 과제를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아시아 "한문불전 연구 집중"

배경아 일본 류코쿠대 박사는 동아시아 불교학 연구동향과 과제에서 동아시아 불교학의 새 연구분야를 제시했다. 배 박사는 "현재 연구되는 한문불전은 실제 범어나 빨리어로 기술된 인도 경 · 율 · 논서의 번역본으로 인도와는 매우 다른 형태의 중국적인 불교가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며 한문불전 연구의 방법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배 박사는 "불교인식론논리학의 경우 한문 번역본이 거의 없어 범어와 티베트어 연구가 진행돼고 있어 그동안의 불교학 연구와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석사 이상 스님 드물어"

김한상 스리랑카 켈라니야대 박사는 동남아시아 불교학 연구동향과 과제에서 전통적으로 빨리 불교학을 담당해온 승려들의 학풍이 위축돼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박사는 "오늘날 대학 중심으로 재가학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승려는 석사 이상으로 공부하는 이가 적은 실정"이라며 "외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그 외연이 넓어지고 내포가 심화되기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스시랑카의 경우 과거 높은 교육열과 영어사용인구, 국립대의 불교학부 등에서 유능한 불교학자들이 배출됐지만 이제는 장밋빛 미래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유럽 "문헌학 연구에 치우쳐져"

이민성 독일 보훔대 박사과정은 이미 국내에 소개된 함부르크대의 연구를 제외한

원문 연구 한계점 공통 지적

응용분야 접목 과제로 꼽아

국가 교류 통한 교학 발전 제시

무니헨, 하이델베르크, 보훔, 괴팅엔 대학의 불교학 연구를 소개했다. 이 박사는 "독일의 불교학 프로젝트는 문헌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독일 인문학 연구의 특징으로 응용불교학 분야일지라도 1차 문헌 기반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민성 박사는 "독일의 경우 오랜기간 문헌학 방법론이 발달했기에 한국불교문헌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응용불교학 분야와 독일의 문헌학 기반이 만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주 "논쟁 통해 선불교 발전"

문진건 CIIS 박사는 1953년 hilosophy East and West에 게재된 스즈키를 비판하는 호적의 논문과 이에 대한 답으로서 같은 호에 실린 스즈키의 논문 사이에 전개된 논쟁을 분석해 미국 선불교 연구를 설명했다.

문 박사는 호적과 스즈키의 이분법적 대립이 해소되는 단초를 아베 마사오의 '이 세계에서 여래의 모습과 상관없이 법은 언제나 현존한다'는 주장에서 찾았다. 문 박사는 "논쟁을 통해 그리고 후속되는 논쟁에 대한 분석에 의해 스즈키와 호적 모두가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대안의 길이 열렸다"며 "이러한 논쟁 문화를 더욱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대행선사 가르침부터 운문사 학인 수행까지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학술총서 1~2권 발간



전국비구니회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소장 명우)는 비구니 스님들의 학위논문을 엮어 학술총서 2권을 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학술총서는 〈보살십지사상연구〉와 〈연꽃 피는 시간〉으로, 〈보살십지사상연구(菩薩十地思想硏究)〉에는 성기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연꽃 피는 시간〉에는 운성 스님의 석사학위 논문인 〈운문사 학인승의 수행〉과 혜교 스님의 석사학위 논문인 〈묘공대행(妙空大行)의 주인공 사상과 관법〉을 수록했다.

연구소는 학술총서 출간을 기념해 9월 10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연구소 측은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제고를 목적으로 먼저 수행체계를 담은 논문과 근현대 비구니 스님을 연구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총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연구소는 한국 비구니승가의 전통성 연구와 법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비구니 연구자들에게 학술 출판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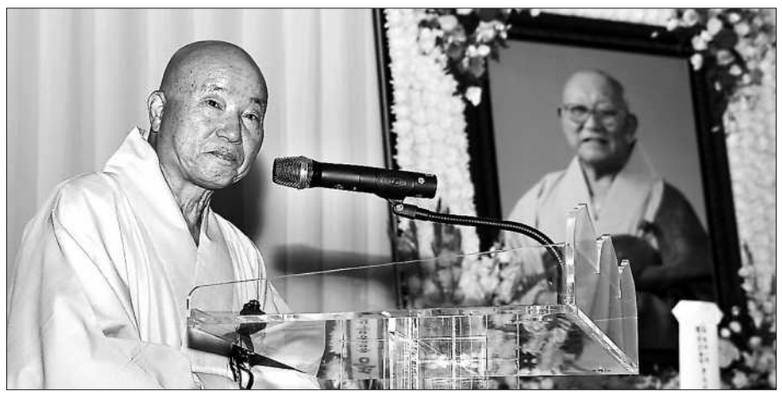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 스님은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운영으로 전국비구니회의 위상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비구니 승가의 역할 증대에 부합할 수 있는 연구와 실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불교의 사회적 책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는 비구니 승가의 권익 증진과 불교계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전국비구니회의 정책연구소다.

노덕현 기자

"항상 무소유와 무집착을 설한 분"

법산 스님, 무진장 스님 2주기 세미나서 추모 발제



"무진장 스님이 설한 〈금강경〉 설법이나 특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강경〉 이해가 목표가 아닌 그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대중포교의 아버지로 불렸던 무진장 스님의 입적 2주기를 추모하는 학술세미나가 11일 조계사에서 열렸다.

이날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사진〉은 '금강경과 무진장 스님의 불교사상'에서 "무진장 스님은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신 참 비구였다"며 "우리나라 설법 제일 한국의 부르나존자라고 칭송 받았으며, 영원한 포교원장으로 살아 온 스님은 한국불교 포교의 초석을 다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무소유와 나눔을 몸소 실천해 보였다. 법문을 해 보시를 받으면 어려운 학자나 배고픈 중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런 스님 덕분에 많은 불교를 공부하고 싶었던 학자들이 불교를 공부할 수 있었고, 배고픈 거지들에게 진정한 설법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속박에서 해탈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금강경〉에서 찾을 수 있었기에 무진장스님을 비롯해서 역대 많은 선사들이 〈금강경〉을 소의로 하여 전수하여 왔다. 스님의 삶 전체가 바로 〈금강경〉의 사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산 스님은 "알음알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무소유'와 '무집착'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 무진장 스님께서 하신 〈금강경〉에 대한 법문의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의 '무진장 스님의 생애와 원력'에 이어 김경집 위덕대 겸임교수와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17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무진장 스님의 발우와 죽비,주장자 등 유품을 전시한다.

노덕현 기자

불교 전통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불교학연구회 9월 19일 가을 논문발표회 개최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9월 19일 오후 1시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227호에서 '불교 전통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가을 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논문발표회는 △김성욱 UCLA 박사의 '삼처전심(三處傳心)의 한국적 기원과 적용' △박인성 동국대 교수의 '변행심소 촉(觸)에 대한 규기의 해석' △임승택 경북대 교수의 '무아 · 윤회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초기불교를 중심으로' △박서연 동국대 강사의 '한역 화엄경입법계품과 만주어역 화엄경속입법계품의 비교 연구'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남 회장은 "이번 발표 주제들이 불교의 전통적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어 학계에 신선한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존엄사에 대한 종교계 공식 입장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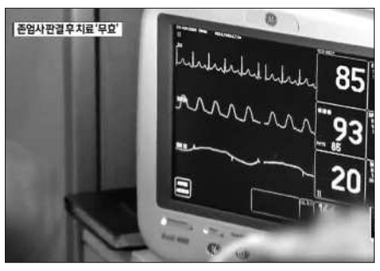
박상언 한국종교문화연구원 연구원, 불교평론 논단서

"생명의 한계를 연장하려는 의학의 열정은 죽음을 인간에게서 일시적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도 함께 내몬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종교는 물음을 제기하고 답을 구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존엄사에 대한 종교계의 공식입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준비가 종교계 내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언 한국종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은 〈불교평론〉 63호에서 '존엄사 혹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의와 종교의 위상'에서 "종교적, 철학적, 문화적 관점에서 존엄사에 대한 법재화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몇몇 학자나 단체를 통한 것이 아니라 종단이나 교단의 합의기구를 통해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생명의 임의적인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기결정권 보다는 생명권의 중요성을 종교가 강조하고 있다. 또 의료현장과 환자의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대리자에 의해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될 수 있다"며 "사전의사를 설정하고, 연명치료 중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고전어 · 문헌연구…' 성과 콜로키움

금강대 불문연, 10월 28일까지 6회 진행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소장 박창환)는 HK사업인 '불교고전어, 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의 연구'의 성과를 점검하는 콜로키움을 9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금강대 본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9월 16일에는 △김성철 금강대 HK교수의 '〈십지경〉 삼계유심게에 대한 유식과 중관의 해석', △김지연 HK연구교수의 '〈대승기신론〉의 지정상(智淨相)에 대한 〈석마하연론(釋摩訶衍論)〉의 해석 고찰'이 발표된다.

콜로키움에 발표를 원하는 이는 담당자(tatpum@gmail.com)으로 주제와 간단한 요약을 보내면 된다. 발표자에겐 소정의 발표료를 지급한다.

노덕현 기자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광주 증심사, 유튜브 활용 포교 '눈길'

QR코드 및 동영상 서비스 제공, 신도 증가 효과

"이제 스님의 법문을 유튜브에서 보자"

소셜네트워크의 대표 주자인 유튜브를 활용한 포교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는 세계인들의 영상공유 공간인 유튜브(YouTube)에 사찰안내와 주지 스님의 법문을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해 탑재해 사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찰의 소식을 휴대폰 안에 담아 대중들과 소통하자' 를 모토로 진행되는 이번 증심사의 유튜브 홍보에는 사찰 안내와 주지스님의 기초강좌, 사찰 행사의 이모저모가 담겨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있는 사찰 홈페이지와도 연동해 전개된다.

증심사 유튜브에 접근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찰 QR코드를 통해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유튜브에서 '증심사' 를 검색하는 것이다.

증심사 관계자는 "신도들이 사찰에 올 수 없을 경우 집과 회사에서 휴대폰을 통해 주지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한국사회가 이미 휴대폰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만큼 포교방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심사 QR 코드

이번 유튜브 홍보방법을 통해 증심사의 포교방법도 변화했다. 먼저 증심사 안내방법이 달라졌다. 광주 무등산에 위치한 증심사는 매년 많은 탐방객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특히 초 · 중 · 고등학생들의 견학 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수 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사찰을 안내하는 것도 사찰측에서는 큰 고민거리였다. 증심사는 사찰 건물마다 QR코드를 설치해 스마트폰을 통한 접속으로 안내를 시작했다.

유튜브 홍보 이후 증심사 신도교육 입문자의 수도 대폭 증가했다. 신도기본교육의



유튜브를 활용한 포교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를 활용한 증심사 홈페이지

문화재 해설 고민거리 덜어

스마트폰 · 홈페이지 연동

외국인 관광객 호응 높아

전 과정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되고 언제든지 다시보기가 가능해졌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영문 교리 동영상을 통해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이 전통문화를 접할 때 필수적으로 찾는 과정이 됐다.

주말을 맞아 사찰 탐방을 온 김영민(상무중2) 학생은 "QR코드로 보니 사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증심사 홈페이지 또한 대폭 개편됐다. 현재 증심사 홈페이지에는 가람 도입부 영상과 증심사 역사(국문, 영문), 템플스테이(국문, 영문), 가람 둘러보기(파노라마, 국문, 영문), 주지스님 법문, 강좌, 법회 및 행사 6개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다.

증심사 측은 "젊은 불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과감히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서비스와 QR서비스 등을 도입하게 됐다"며 "포교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군 307부대 의상암 산신탱화 점안 법회

서해안 영공을 수호하고 있는 공군 307부대의 의상암 산신탱화 점안법회가 9월 5일 봉행됐다. 부안 공군 의상암 법당에서 봉행된 이 날 점안식에는 선운사 종고 스님, 진용 스님, 심학 스님 등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부대장 정희두 중령, 공군본부 군종감 각원 스님, 상조 스님 등 군종교구 법사 스님과 불자장병, 전북불교대학 재학생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종고 스님은 법어를 통해 "미물까지 사랑하고 환경과 인권을 보살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곳 군법당에 한송이 연꽃이 꽃을 피웠다"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모든 장병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작은 씨앗이 우리 이웃과 가족들을 위한 평화의 꽃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대장 정희두 중령은 방치된 의상암을 복원한 김윤봉 거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윤봉 거사는 군산 공군 38전대 호국 군성사와 부안 307부대 의상암의 공군 불자들을 위해 격주로 법회를 봉행해 오고 있다.

김윤봉 거사는 "아들의 군 입대로 군 법당에 관심을 갖게됐다"며 "공군 불자들이 편안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정일 작가 초대전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는 9월 21일까지 '이이남의 기획 〈공존,자연으로부너 온 메시지〉' 정일 초대展을 개최한다.

작가 정일 씨는 초대의 말을 통해 "우주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행성은 기적에 가까운 존재이다. 지적인 능력을 갖춘 인간과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명체와 그 구성성분인 물질이 한 공간에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유일한 공간이다. 여기에 '조화'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오랜 시간 동안 '조화로운 공존'이 지속된 가운데, 지적 생명체가 그 지혜를 폭력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부조화'가 발생되어 더 이상 공존이란 말이 무색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본 작가는 예술이 감당하는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고자 '공존'을 열망하며 이러한 부조화스러운 현상들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화면에 가감없이 서술, 나열하고 그에 대한 대안 또는 현상직시, 현상인식에 대한 질문, 제안 등의 메시지를 자연에서 찾은 알파벳 형상 사진문자로 조합하여 구성하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 마이산 탑사, 어르신 생일잔치 성황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가족과 떨어져 생일상을 받기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일잔치를 열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는 9월 8일 진안지역 홀몸 어르신 100분을 초청해 생일잔치를 열었다.

진안 전통문화원에서 열린 이날 생일잔치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100개의 생일 케익과 전주 한옥떡갈비 등이 차려졌다. 또 탑사 전주분원 실상사 밴드의 난타공연과 색소폰 연주가 펼쳐졌다.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은 이들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쌀 500kg과 라면, 식료품등을 전달했으며 태고종 나누우리 봉사단이 음식 준비를 맡았다.

올해로 4년째 열리고 있는 홀몸어르신 생일잔치는 진안 동부새마을 금고, 마이산 탑사, 쌍봉사, 태고종 나누우리 봉사단, 진안자원봉사센터 등이 동참하고 있다.

탑사 진성 스님은 "어르신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선운골 공동체 화합한마당 개최


사진은 9월 8일 선운사 생태공원서 열린 '공동체 화합한마당' 장면

전북 고창 선운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선운골 공동체 사람들의 화합한마당 잔치가 열렸다.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상가 번영회,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석상마을 주민들은 9월 8일 선운사 생태공원에서 '선운골 공동체 화합한마당' 를 개최했다.

이날 화합 한마당에서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박우정 고창군수 등 지역 기관장 상가, 마을주민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한마당에서 참가자들은 준비한 푸짐한 음식을 나눠먹으며 정담을 나누고, 간단한 게임을 즐기며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즐거운 잔치를 벌였다.

선운사 스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서로 격의 없이 어울리며 노래자랑, 족구, 윷놀이, 투호, 고리 던지기, 농구 자유투, 훌라후프 돌리기 등 간단한 게임을 통해 서로 웃고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각 종목당 우승 상품외에 추첨을 통해 압력밥솥 등 100여점의 상품이 제공됐다.

올해로 여섯번째 맞이하는 선운골 화합 한마당은 사찰과 주민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승속이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불교계, 외국인 노동자 어울림 한마당

전북 불교단체들이 가족과 고향의 품을 떠나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전주 '우리는선우' (회장 오종근)와 '좋은 이웃' (회장 정용기)은 9월 6일 전주 완주 산업단지 내 현대자동차 체육관 인화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카자흐스탄 등 13개국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06년 첫 시작 이후 올해로 10회 째를 맞은 이번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농악단의 길놀이를 비롯해 전통민요와 국악 연주, 여성 댄싱그룹 및 락 밴드 공연, 그레이스 공연단의 부채춤시연, 각 나라 민속 공연,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특히 송광사 · 금선암 · 원경사 등 지역 사찰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등 관련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한국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필품이 상품으로 전달됐다. 특히 천천클럽 회원과 전주 풍남 로터리 회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겨울의류를 기증했다.

베트남 출신의 은위엔띠번(28세)씨는 "오늘 이 행사를 오게 돼 기분이 너무 좋다" 며 "앞으로도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같이 놀면서 같이 기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국 조선족인 김융(45세)씨는 "이 자리에서 같은 동포들을 만나니 반갑고 기분이 좋다"며 "앞으로 이런 행사를 자주 진행하고 외국인 동포들을 위해서 자주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용기 운영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지 불쌍한 사람들은 아니다"며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따뜻하게 이해하고 감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4대 종교인 백제문화유적 역사탐방

전라북도 4대 종교 지도자들과 9월 10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역사탐방을 실시했다.〈사진 위〉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4대종교인과 함께하는 역사탐방' 은 80여 종교 지도자들은 익산 왕궁리 유적전시관을 출발해 고도리 석불입상, 서동 생가터, 익산토성, 미륵사지까지의 8km 구간을 도보탐방했다.

이어 서구식 건축양식과 전통건축양식을 잘 절충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나바위성당, 두동교회, 원불교중앙총부 등 종교성지를 버스투어하며 각 종교 의미를 되새기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금산사 포교국장 지월 스님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우리지역의 자랑이고 우리불교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축하할 일이다" 며 "찬란했던 천 년 전의 자랑스런 역사를 이어받아 새로운 불교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이제 곧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현한 진시사리가 다시 석탑에 봉안되게 된다"며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불자들이 친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4대 종교인과 역사탐방을 하며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종교간 벽을 허물고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출재가자 함께 법문 들으며 하안거 회향

수도암, 9월 3일~6일 원순 스님 초청 '어록 릴레이 특별법회'



12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김천 수도암이 산문을 열었다. 하안거 회향을 맞아 수좌스님들과 함께 재가자들을 초대 특별한 법석이 마련된 것이다.

김천 수도암(선원장 원인)이 9월 3일~6일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 원순 스님〈사진〉을 초청해 어록 릴레이 특별법회를 마련했다.

법문의 마지막 날인 9월 6일 수도암 법회 현장에는 스님들과 재가자 50여명이 한치의 미동도 없이 원순 스님의 법문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번 릴레이 법석은 원순 스님이 역해한 〈진심직설〉과 〈신심명〉을 교재로 오직 강의와 법문에만 집중됐다.

원순 스님은 "〈진심직설〉은 말 그대로 '중생이 갖추고 있는 부처님의 참마음'을 바로 눈앞에 펼쳐주는 글"이라며 "바른 믿음과 수행법 등 참마음에 관한 15가지 주제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 4일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순 스님은 "〈신심명〉은 부처님의 말씀을 시의 형태를 빌려 풀어낸 주옥같은 책이다. 읽는 것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책이니 대중에게 어울릴만한 저서"라고 설명했다.

수도암 선원장 원인 스님은 "재가 불자들이 바른 정진을 이어가려면 바른 법을 알아야 한다"며 "이번에 개최한 법석을 통해 바로 배우고, 중도를 지켜 정진해 나아가길 바란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하루 6시간 이상 경전 강의
전국 불자 50여명 동참 경청
"열린 법석 꾸준히 마련하고자"

참가한 대중들은 이번 법석이 스님들이 용맹정진하는 선원에서 열려 더욱 감개무량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승욱 불자는 "원순 스님의 강의를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너무나 행복했다. 특히 함께 공부했던 스님 중 법랍이 50이 넘은 분이 계셨는데 원순 스님의 책을 예습한 흔적으로 새까맣게 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다.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넘 좋은 시간이 되었다"며 감동의 마음을 전했다.



김천 수도암이 9월 3일~6일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 원순 스님을 초청해 출재가자들을 위한 '어록 릴레이 특별법회'를 마련했다.

이갑영 불자는 "일상생활 가운데 부처님이 말씀 하신 참 마음을 지키며 생활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정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 또한 수도암은 처음 방문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수도암은 재가 불자들을 위해 정기 법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참을 위한 시민선방을 건립할 예정이다.

선원장 원인 스님은 "불교 공부는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통적인 선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아울러 재가자들을 위한 교학 강의도 잊지 않고자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수도암은 원순 스님을 지도법사로 재가자들을 위한 릴레이 법석을 매년마다 두 차례 진행 할 계획이다. 또한 한달에 한번 펼치고 있는 경전 강의를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불자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암은 "앞으로 있을 경전 강의에도 원순 스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라며 "스님은 교학 뿐 아니라 실참에서도 뛰어난 분으로 스님과 재가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戒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사회운동"

부산불교연합회, 9월 4일 율사 스님 초청 토론회



부산불교연합회는 '팔재계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사회운동전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지만 계율에 있어 본질을 지키고 계를 실천 수행하는 것이 곧 사회운동의 답이며 불교 내적 정화에 바탕이 되는 것이다. 불교 수행자가 현재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마음을 바꾸고 계를 지킴에 타협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9월 4일 안국선원 교육관 세미나실에서 '팔재계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사회운동전개 방안'이란 주제로 '2015팔관회 율사스님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겉모습 및 적용법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으나 부처님이 설하신 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가장 불교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인 것이다. 계를 실천하고 수행하는 내면적 정화 운동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바른 수행 정신을 통해 불교의 본질을 회복 할 때 지금 부끄러운 불교의 현실도 극복하며 사회운동에 대한 답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수행과 계율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스님은 참가한 재가자들에게 계율의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다. 지현 스님은 "부처님은 가장 행복한 분이다. 그 부처님이 제시한 계율을 따를 때 부처님의 행복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며 "불교 수행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관점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계를 지킴에 현실과 타협하는 자세로 무슨 지혜를 얻겠느냐"며 불자로서 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쌍계사 율원장 해강 스님은 "팔관재계가 현대 사회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역류하는 면이 있다"며 "현대인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묘수를 사회 윤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재정립해 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심산 스님은 "이번 토론회가 바로 그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장이다. 앞으로 많은 율원 스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답을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팔관회를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광사 율원장 대경 스님은 "살림이란 말이 우리 불교에서 나온 말이다. 대중을 함께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민해야 할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 금련회 회장 상화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호법국장 인수 스님, 전법도량 의장 하림 스님 등 사부 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종단 · 지역 그리고 성주사 발전 발원"

창원 성주사 9월 6일 주지 원종 스님 진산식

주지 임명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던 창원 성주사가 9월 6일 성주사 대웅전에서 주지 원종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신임 주지 원종 스님은 "승가의 가풍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도록 승풍을 지켜 국가발전, 사회평화, 종단의 발전 및 지역사회와 성주사의 번영을 이루고자 한다"고 발원했다.

법회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치사,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직인 전달식, 수불 스님의 격려사, 원종 스님의 취임사 및 내빈들의 축하 인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 스님, 창원불교연합회 상임고문 원행 스님, 창원불교연합회장 도홍 스님, 안상수 창원시장,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안홍준, 강기윤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성주사 사부대중은 원종 스님과 함께 수행가풍을 계승하고 현대 사회에 알맞게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포교 원력을 훌륭하게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사 원종 스님 진산식 개최

원종 스님에게 주지 직인을 전달한 수불 스님은 "본사와 잘 협조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청정 도량으로 가꾸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원종 스님은 "그 어느때 보다 더 열심히 정진하고 불사하며 포교를 할 것"이라며 "종단과 교구본사의 발전을 위하고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문중의 화합을 위해 소통하는 주지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원종 스님은 1980년 흥교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 지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2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강화도 보문사, 제주 관음사 주지를 역임했다. 하성미 기자

울산 종단협 '자비도량참법' 기도법회

울산의 스님과 불자 15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참회 수행과 함께 나눔으로 행사를 회향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만초)와 울산불교신도회는 9월 4일~ 8일 울산 태화강변에서 '제 5회 울산 자비도량참법'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자비도량참법 기도법회는 참회 기도와 독송, 업장과 과보 드러내기, 마음의 짐 내려놓기, 3000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기도 기간 동안 모은 동참금은 울산불교회관 건립 기금 조성, 군법당, 포교당 및 각 사찰 어린이 법회, 장학금 등 포교와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해 회향될 예정이다.

법회에 참석한 김정숙 불자는 "매년마다 참석하면서 끝날 때면 내년을 다시 기대하게 된다"며 "다른 많은 불자들도 각 지역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울산 자비참법도량 기도는 매년마다 종단을 초월해 울산의 불자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발전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불교미술사학회, 해외 연구 개시

통도사 불교미술사학회(학회장 지준)가 향후 해외 불교문화 연구기관과 연계해 공동 연구 및 특별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미술사학회는 9월 3일~5일 일본 간사이 지역 불교유적지를 답사했다.

이번 답사는 불교미술사학회에서 발간하는 전문학술지 〈불교미술사학〉이 올해 7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더욱 폭 넓은 학술활동을 펼치고자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학회장 지준 스님 및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 관장 정암 스님, 양산시립박물관 신용철 관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10여명이 동참했다.

답사는 '나라박물관 하쿠호(白鳳) 특별전', '교토박물관 불교의 동점(東漸) 특별전' 및 '고려미술관', 헤이안시대 정토건축의 백미 죠루리지(淨琉璃寺) 등을 방문하고 관계자와 향후 공동 연구 방안 등에 대한 논의 및 관람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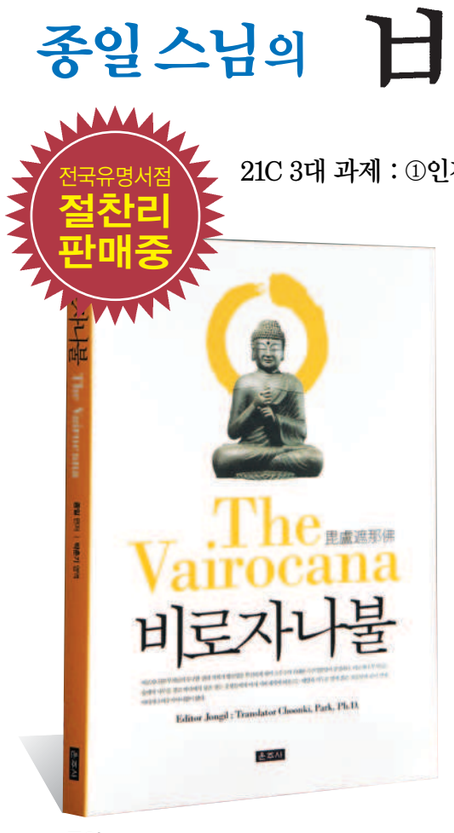
특히, 정조문(1918~1989) 선생이 설립한 고려미술관을 찾은 미술사학회는 공동연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내년 봄 학술대회에 미술관 관계자를 초청, 특별강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성미 기자

참 불자를 위한 성불로 가는 지침서

종일 스님의 비로자나불

21C 3대 과제 : ①인간과 자연의 화해 ②종교 간의 화해 ③지식과 삶의 화해

전국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종일 편저 박춘기 영역
193쪽 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The Vairocana 毘盧遮那佛

나무 암밤람함캄 청정법신 대교주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무구한 진리 자체가 법신임을 확신하게 하며 소우주의 위대한 즉신성불임이 분명하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숲에서 나무를 찾고 바다에서 물을 찾는 중생들에게 마치 사바세계에 떠오르는 태양과 어두운 밤에 밝은 보름달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비추지 아니함이 없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체득함으로써 우리네 삶이 영원히 나고 죽음에 벗어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이치인가! – 불교TV 회장 석성우 스님의 추천사 中

■ 구입문의 : 도서출판 운주사 02-3672-7181

동국대 평생교육원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인성교육지도사 양성과정

불교계 유일한 '인성교육지도사' 자격교육과정
2015년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최고 인기강좌

제 2015-003438 인성교육지도사 국가등록 민간자격 취득가능

2015년 7월 21일부터 국가기관, 학교 의무적 교육시행

법률 제 13004호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자비명상

법제는 통과되었지만 당장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할지 일선 교사들도 막막하다고 합니다.
당장 지도할 강사도 없으며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인성교육지도사 양성과정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성교육 전문가 세분을 모시고 인성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교수 : 마가스님
· (사)자비명상 대표
· TVN '오마이갓' 외 다수 방송출연
· '알고보면 괜찮은' 외 저서 다수


교수 : 황수경
· 동국대 명상심리학 교수
· 미국 AAPC 전문심리치료사
·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교수 : 박선형
· 동국대평생교육원 원장
·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교수 : 최원영
· 국제인성교육개발원 대표
· KACE 부모리더십센터강사
· 인문학협동조합 이문회우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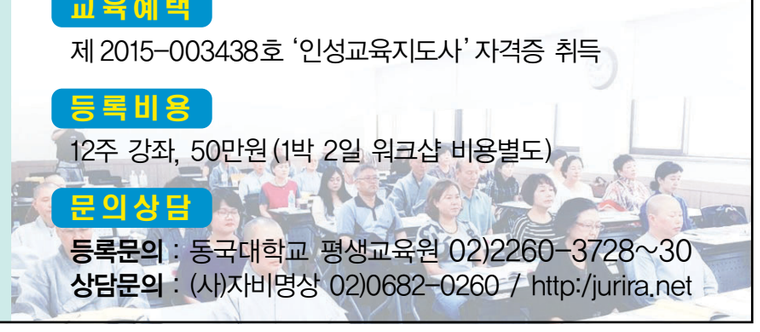
모집대상
인성교육에 관심있는 부모, 선생님, 일반인 모두

교육기간
2015년 9월 22일 (화) 개강 14~17시 (매주 화요일 3시)

교육혜택
제 2015-003438호 '인성교육지도사' 자격증 취득

등록비용
12주 강좌, 50만원 (1박 2일 워크샵 비용별도)

문의상담
등록문의 :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02)2260-3728~30
상담문의 : (사)자비명상 02)0682-0260 / http:/jurira.net





중국 쓰촨 청두 번화가에 자리한 대자사. 2004년 중건된 대자사는 3~4세기 경 창건됐으며, 당나라 시기에는 신라 구법승 정중 무상 선사가 주석하며 선법(禪法)을 펼쳤다.



조계종 교육원 동티베트 순례단은 순례의 마지막으로 대자사를 순례하고 무상 선사 등 구법승들을 추모했다.



대자사 신도들이 도량을 돌며 아미타불 정근을 하고 있다.



대자사 개산일 기념 사진전에서 만난 무상선사비 개막식 사진.

신라 무상 선사의 구법 정신을 되새기며

조계종 교육원 순례단, 동티베트를 가다 – ⑤ 대자사

중국 쓰촨 일원=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모든 여행에는 끝이 있다. 여행의 끝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다짐을 하고 일상에서 살아갈 활력을 얻는다. 오명불학원과 야칭스를 순례한 조계종 교육원 동티베트 순례단(지도법사 정우)은 마지막을 그 옛날 한국 구법승의 정신을 되짚었다.

야칭스를 뒤로 하고 찾은 순례지는 쓰촨(四川)의 성도(省都)인 청두(成都)에 소재한 대자사였다. 대자사는 청두 시내 번화가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실제 주위에는 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이미 세워진 고층 빌딩들도 상당 수였다. 도심지에 있어서 인지 대자사는 중국 사찰답지 않게 크지 않고 아담했다.

그래도 신행활동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조계종 동티베트 순례단이 7월 9일 오전에 대자사를 찾았을때 사찰 신도들은 아미타불 정근하며 도량 안을 포행하고 있었다. 정근하는 신도들 모두 진지했고, 높은 신심을 가늠할 수 있었다.

무상 선사의 주석처 대자사

대자사는 위진 시대인 3~4세기 경에 창건됐다고 알려져 있다. 현장법사가 622년 이곳에서 수계를 받았다. 대자사는 신라 구법승인 정중 무상 선사(680~756)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무상 선사가 청두에 머물고 있을 당시 당나라에서는 안사의 난이 일어났고, 황제였던 현종은 환난을 피해 쓰촨성으로 도망쳤다. 피난 과정에서 환난의 이유가 애첩이었던 양귀비에 있다는 신하들의 주장에 양귀비를 죽였다. 또한 왕위를 태자에게 계승하기도 했다.

현종의 말년은 무상함과 회의감의 연속이었다. 그런 그에게 불교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안식처였다. 현종은 대자사에 '대성자사' 라는 현판을 하사하고, 무상 선사에게 이 사찰을 재건해 상주토록했다.

대자사는 당시 96개의 정원과 천여 폭의 벽화가 있을 정도로 당대 청두에서 가장 큰 도량이었다. 하지만 역사의 격랑 속에서 대자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현재의 사격을 갖춘 것은 2004년에 이르러서다.

사천왕문을 들어서면 관음전, 대웅전, 장경루를 중심으로 양쪽에는 무상대상의 조사당과 찻집, 서예실, 요사채 등이 들어서 있다. 사찰을 중건했던 무상 선사의 정신을 지금까지도 기리고 있는 것이다.

순례단이 찾았을 때에는 사찰 개산을 기념하는 기념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사진전에는 무상 선사의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불교의 학술대회, 무상선사 행적비 개막 등 교류 행사들의 내용과 결과 등도 전시됐다.

티베트 불교와도 만난 무상 선사

무상 선사는 신라 왕족 출신으로 출가해 당나라에서 널리 구도행을 펼쳤다. 무상 선사는 신라 군남사에서 출가해 제방을 두루 참방하며 수도하다 46세이던 해에 바다 건너 당나라로 유학의 길에 올랐으니, 당 개원 16년(729)이었다. 그는 당나라 수도 장안에 이르러 당 현종을 알현하고 선정사에 머물렀다.



조사전에 걸려 있는 무상 선사의 진영.

신라 왕족으로 출가해 구도행
당나라서 더 유명… 나한 추앙

순례단, 대자사서 추모재 열어
무상 선사 등 구법승 기려
한국 의례에 현지 불자 숙연
9빅 10일 순례 일정 마무리

끝없는 두타행으로 이어진 구도 행적 중에는 신이한 이야기도 상당 수다. 맹수가 그를 호위하거나 산속에서 5일 간 입정좌선한 이야기, 범과 생활한 이야기 등이 대표적이다. 입적 당시에는 90년 뒤 일어난 회창 법난을 예언하기도 했다.

당 개원20년(732) 4월 당시 고승이었던 처적은 제자 무상 선사를 불러 가사를 전수하고 "이 가사는 달마조사가 전한 법의인데, 무후에 의해 지선화상에 전해지고, 화상이 나에게 전한 것을 오늘 그대에게 전하노라. 그대는 스스로 잘 보호하여 나의 선법을 크게 선양하도록 하여라. 스승을 능가해야 훌륭한 제자가 되는 법이니, 그대는 정중사에 머물며 크게 정중선을 일으키도록 하라"고 후사를 부촉했다. 무상 선사의 정중종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같은 구도 행적으로 무상 선사는 중국 500나한 중 455번째 조사로 올라 있다.

사실 무상 선사가 알려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1908년 20세기 불교사의 큰 수확인 돈황의 발굴과정에서 무상 선사의 게송인 〈무상오갱전(無相五更轉)〉과 〈무상어록(無相語錄)〉이 발견되며 긴 잠에서 깨어나 비로소 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고, 1930년대부터 중 · 일 학자들 사이에 무상 연구가 치열하게 이뤄졌다.

중국의 석학 호적(胡適)과 일본인 학자 야마구치(山口瑞鳳) 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무상 연구가 속속 나왔다. 그에 비해 국내 학계의 연구는 지극히 미미해 아쉬움이 많다.

무상 선사의 법맥은 남북종 분립 이전의 한국선의 원류를 살필 수 있게 한다. 5조 홍인 선사의 법맥에서 출발한 사천 선종을 집성한 정중종은 무상 선사와 긴밀한 관계 였던 마조 도일 선사로 이어지며, 또 그 영향은 신라에 까지 이어진다.

무상 선사는 사법 제자로 산시, 세르난 등 티베트 스님들을 두어 티베트에 불교가 도입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제자들은 티베트에 정중종선을 전하기도 했다. 중국불교가 티베트로 진출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무상 선사는 중국불교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삶과 사상의 흔적은 중국을 넘어 티베트와 돈황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그 법맥은 한국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구법 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이날 조계종 순례단은 무상 선사의 진영이 모셔진 대자사를 찾아 참배하고 칠정례, 반야심경 봉독 등 한국 불교 의례를 봉행했다.

또한 정중 무상 선사와 도당 구법승 행적 · 현휘 스님, 정중 무상의 사법 제자 산시 · 세르난 스님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의 사천학의 태두 서여 · 후스 선생 등을 추모하며 〈화엄경〉 법성게를 봉독하고 아미타불 정근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추모재에서 지도법사 정우 스님은 회향 법문을 통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다. 우리는 출가하면서 이미 길손이 됐다"면서 "동사섭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이탈없이 충실히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한국 순례단 스님들의 정연한 불교 의례에 현지 불자들의 이목도 집중됐다. 청두 대자사 신도 환메이쥔 씨는 "한국 불교의 스님들이 대자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라며 "한국 불교 의례를 처음 봤는데 감동스럽고 환희롭다. 불법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고 말했다. 〈끝〉

世界佛教 法王廳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0월 3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8월 31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였기에 모든 직무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

10th 10년의 열정 100년의 희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개원 10주년

‘비전 2020’, 자비의술 세계로 펼친다

개원 10주년 맞은 동국대 일산병원·한방병원

동국대 일산 · 한방병원이 올해로 개원 10년째를 맞았다. 동국대 일산 · 한방병원은 2000만 불자들의 염원을 담아 2005년 6월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일대에 개원한 이후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따른 의료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동국대 일산 · 한방병원은 9월 15일 ‘10년의 열정, 100년의 희망’을 주제로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동국대 일원병원 · 한방병원 전경. 700여 병상에 1000여 직원이 불교 공립병원의 자부심을 안고 활동하고 있다.


의료진의 꼼꼼한 회진 모습


추가도입된 3.0T MRI설비



2005년 6월 개원 후 자비의료정신 펼쳐
양방 15개 센터, 한방 3개 센터 및 특수클리닉운영
비전 2020… 중증치료 · 신기술 개발 확대

10년 간, 하루 평균 2200여 환자 방문

동국대 일산 · 한방병원은 2005년 11월 550병상, 약 1000여 직원으로 문을 연 이후 현재 약 700병상, 약 1400명을 거느린 수도권 대표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양 · 한방 통합 의료정보시스템을 갖춰 양의학과 한의학이 함께하는 협진치료병원으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만 9373㎡(연건평 2만 8000여 평)에 1000개 병상을 갖추고 하루 평균 2200여 명의 환자에게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산병원의 경우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특성화 센터 및 특수클리닉을 마련해오고 있다. 2005년 11월 심장혈관센터, 2007년 2월 암센터, 2008년 12월 응급의료센터, 2010년 10월 갑상선센터, 2012년 6월 국제진료센터 등 총 15개 센터와 58개 클리닉을 운영하며 맞춤형 진료를 선보이고 있다. 또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OCR, PACS)을 구축하고 있으며, 3차원 입체 촬영 장비인 ‘128SLICE-CT’, 3.0T MRI, 암 조기발견에 탁월한 ‘PET-CT’ 방사선 암치료 선형가속기, 최첨단 협대역 컬러내시경 등 첨단장비를 보유해 정확한 진료를 하고 있다.

현대화된 한의학 서비스도 제공

한방병원은 동국대 만의 특성화된 한의학을 바탕으로 이를 과학화시켜 발전시키고 있다. 총 8개 분야의 진료과목에 13명의 교수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는 하루 평균 200여 명. 12층 건물 중 3층(외래진료실), 5층(입원병동), 12층(탕전실)이 한방 병원이다.

양 · 한방 통합의료서비스는 환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 양방 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을 받고 한방 진료실을 찾아 침을 맞거나 뜸을 뜨고 갈 수 있다. 한의학이 강세를 보이는 신경관련 치료에 탁월하다.

한방병원 내에는 중풍센터 등 3개 센터와 척추와 관절 통증을 다스리는 통증 클리닉, 난임 클리닉 등 14개 특수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의학 장점인 보양 및 비만체형관리 프로그램, 한방미용센터 등도 개설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올 7월부터 양 · 한방융합 뇌 건강클리닉도 개설, 치매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와 함께 한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처님 자비정신 펼치는데도 ‘앞장’

동국대 일산 · 한방병원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자비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파키스탄 지진을 비롯해 스리랑카 쓰나미, 캄보디아 지진해일, 아이티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긴급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의료봉사를 펼쳐왔다.

국내에서도 2006년부터 매월 한차례 무료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불교계 종립병원인 만큼 불자들에게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계종과의 협약을 통해 조계종 신도증 소지시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스님들을 위해 1층에 승가지대방을 운영하고 원무과에는 스님들을 위한 전용 접수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법당 지도법사 스님 등이 회진하는 ‘승가라운딩’도 진행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동국대 의료병원은 각종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 3월 보건복지부 1주기 우수의료기관 인증, 2011년 6월 보건복지부 최우수 응급의료센터 선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선정, 2013년 10월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2015년 2월 일산병원의 보건복지부 2주기 우수의료기관 인증, 1월 한방병원의 보건복지부 1주기 우수의료기관 인증도 획득했다.

비전 2020…세계화에도 앞장선다

동국대 일산병원과 한방병원은 10주년을 맞이해 ‘비전2020’을 선포할 계획이다. 동국대 병원이 나아가야 할 로드맵이 담긴다. 여기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우수인재 양성 등이 포함됐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자비와 신뢰를 바탕으로 의학발전을 선도하자’는 목표하에 중증질환 치료 기반의 질적향상, 장기이식 활성화, 진료특성화 및 센터중심 체계 구축, IT 혁신 통한 스마트병원 구축 등을 목표로 삼았다. 병원기부금 모금 활성화, 불교계 유관기관 공조 및 의료봉사 상시체계 구축 등을 전략분야 과제로 선정했다.

한방병원 또한 ‘한의학 선도 및 자비실천으로 믿고 찾도록 하자’는 목표하에 신기술 및 신약개발 확대, 양한방 협진 활성화, 브랜드화 통한 홍보강화, 한방특화 경영체계 확립, 협력병원 협조체계 개선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설정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상교육 및 연구를 통해 우수의료인재를 양성하는 자비구현의 터전으로 발돋움 해 나갈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양·한방 융합, 수도권 대표병원으로”

오민구·정지천 일산병원·한방병원장

“양·한방이 한 곳에 융합된 수도권의 대표 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 한방병원의 오민구, 정지천 원장은 9월 8일 개원 10주년을 앞두고 각오를 밝혔다. 동국대 일산 · 한방병원은 후발주자로 그동안 많은 걸림돌이 있었지만 그 비전만큼은 뚜렷해 보였다.

두 원장은 병원 운영에 있어 불교계 종립병원으로 정체성을 뚜렷이 하며 불자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전국 규모의 병원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15년 초 양방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오민구 동국대 일산병원장은 “초창기 유능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일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10년, 큰 무리없이 극복해 왔다. 양 · 한방 협진을 한 울타리 안에서 펼칠 수 있다는 강점을 십분 활용해 도약의 발판을 다지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여기에 올 5월 새롭게 부임한 정지천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장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정 교수는 “고령화 · 다문화로 인한 새로운 의료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한방과 양방의 협진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 융합병원으로 환자들에 많은 혜택과 치료의 만족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원장은 “서울의 대형병원에 비해 늦은 출발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전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체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돌보는 노력을 통해 전국의 불자들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병원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국대일산병원이 올해로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새로 취임한 오민구 원장(좌측)과 정지천 일산한방병원장 모습.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NAVER 연꽃소전대 검색

귀사찰에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작품을 제안합니다.

작품성과 실용성 모두 완벽에 가까운 수제 작품입니다.

디자인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를 모두 획득한 작품이며 장인의 땀과 혼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열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귀사찰의 기제사나 천도제의 마지막 의식인 소전 준비 하신다면
사찰의 품격과 신도님들의 품격또한 높여
귀사찰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 연락처
010-9195-1044 / 070-7563-3898
■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82번길 30
불교조각연구원

우연성의 업보가 지배한다는 두려움 갖지 마라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⑰ 부처님 앞에서 힘자랑 하는 손오공



그림 · 최주현

손오공이 말한 대로 "옥황상제는 누가 정해놓고 하라는 법 있나? 힘센 자가 최고다. 그러니 힘센 내가 옥황상제 해야겠다!"하는 방식, 거기서 앞부분은 부정할 필요가 없겠죠? 옥황상제 씨가 따로 있냐는 식의 생각은 인류 역사에 매우 중요한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했겠죠? 바로 핏줄에 의해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를 벗어나는 데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태생에 의해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야말로 가장 불합리한 사회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 참 불합리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가 얼마나 오랜 동안 인류 역사를 지배해 왔던가요?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이런 잔재가 청산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손오공의 말 가운데 앞 이야기는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뒷부분이라 했죠?

"힘센 놈이 최고다!"

이 말을 받아들이면 이건 거의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무조건 힘이 지배하는 세상, 그건 오히려 핏줄이 지배하는 세상보다 더 험한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힘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나가는 길에 한번 생각해 보지요. 사람이 사람다운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어떤 원칙에 의해 세상을 꾸리느냐에 대한 답도 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자,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하려면 사람이 다른 존재들, 특히 동물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서양 철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내놓은 답은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라는 답입니다. 사람에게 고유하게 있는 것은 '이성(理性)' 이라는 것이죠. 이건 사람의 지적인 부분을 가장 중시하는 답이라 할 수 있겠네요. 또 '정치적인 동물이다' 라는 답도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한다' 는 답도 있지요.

중국 제자백가 가운데 하나인 묵자(墨子)는 '사람은 노동하는 동물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무기나 옷이나 하는 것들을 타고나는 데 의존하지만, 사람만은 노동을 통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고 사용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자는 노동의 산물을 낭비하거나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묵자가 유교의 예(禮)나 음악(音樂)을 비난하는 것은 그 때문이죠. 이에 반해 유학(儒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도덕적인 동물' 로 규정합니다. 인간만이 남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나와 남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도덕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도덕을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덕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 가르치면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를 물어본 적이 있지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과 같은 답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발하고도 발칙한(?) 답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어냐고요? '사람은 발정기가 따로 없는 동물이다!' 라는 답이었어요. 하하~ 맞기는 맞는 이야긴가요? 흠, 나칠계님은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신다는 표정이군요. 나칠계님의 상태를 잘 알겠습니다 그려. 나칠계님 주변으로는 여성 접근 금지 표시를 붙여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전혀 아니라구요? 여성을 존중할 지언전 절대 위험한 생각을 한 적은 없다구요? 표정과 발언 내용이 너무 다른데 어느 것을 존중해야 할지 판단이 잘 안서네요. 하하!

그건 그렇고, 앞에 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인간이 인간다운 까닭 가운데 힘이라는 것은 없군요.

'인간은 힘센 동물이다' 하는 인간의 정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 '힘' 으로 세상의 질서를 세우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길은 없는 셈이겠죠? 그리고 손오공의 이야기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이야기인가도 들어나는 것 이겠구요.

이런 손오공의 억지 주장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타이르십니다.

"이 어리석은 축생도 못 벗어난 원숭이 아저씨야! 옥황상제는 천 칠백 오십 겁의 수행을 쌓으신 분이야. 네 따위 갓 도술 익혀 힘자랑하는 녀석이 엿볼 상대가 아니란다."

요컨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힘이 정말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는 오랜 수행으로 닦인 인품과 도력과 선행의 과보 같은 것이 없으면 앉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차분하게 타이르시는 부처님! 그런데 천둥벌거숭이 손오공이 들어먹을 리가 없다는 게 문제이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슬쩍 손오공을 도발하여 내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부처님의 차분한 타이름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 하나를 살펴보고 가기로 할까요? 수행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지만, 이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업(業)' 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업에 의해 세상의 신분질서가 정해진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업이라는 것의 의미와, 그것으로 세상의 신분질서를 합리화하는 것이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업을 중심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아서 말이지요. 불자들이 가장 입에 많이 올리는 말이 바로 '업' 아니던가요? '애고, 전생의 업이 많아서……' 라든가, '이게 무슨 업인지' , '다 업보야!' 하는 말들 심심치 않게 하시잖아요? 그 만큼 업이라는 게 우리 의식의 바탕에 깊게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업 또는 업보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불교의 '업' 은 '의도' 가 가장 중요
무의식의 업은 약한 업이 될뿐
선업 쌓아 잘살자는 세태 '잘못'

업은 행위란 뜻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업보란 행위의 결과로 또는 그 결과로 오는 과보를 말합니다. 인과응보란 말은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이지요. 그리고 인과응보가 없다면 세상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겠지요. 인과응보가 있다는 믿음 아래 우리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인과응보가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겠지요. 업이 결과를 낳는다면, 그 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과응보의 해석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까마귀가 휙 날아가는 바람에 까마귀가 앉아 있던 배나무 가지가 출렁이고, 그래서 배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 배가 마침 그 아래를 지나가던 뱀의 머리를 정통으로 가격(?)하고, 또 재수가 없어서 뱀이 치명상을 입었고, 그래서 뱀이 죽었습니다. 뱀은 죽어서 사냥꾼이 되었고, 까마귀는 죽어서 멧돼지가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다가 우연히 비탈길에 바위를 건드렸고, 그 바위가 굴러 우연히 산자락을 유유히 산보하던 멧돼지를 덮쳐 깔아뭉개고, 그 결과 또 우연히 멧돼지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또 그렇게……. 이런 우연의 연쇄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모두 인과응보 이니라! 이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업의 사상일까요? 업보란 그런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업이나 업보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정말 우리는 옴치고 뛰지도 못합니다. 발걸음 하나 옮길 길이 없어요. 우리 발밑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런 생명들 밟아 죽이면 그것이 업보가 되어 또 나를 괴롭힐 테니까요. 그런 것은 불교의 업 사상이 아닙니다. 자이나교라는, 불교와 비슷한 시대에 시작한 인도의 종교에서는 이와 비슷한 업설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은 무의식으로 짓는 업까지 업보를 낳는다고 생각해서 철저한 무소유를 실천하려 합니다. 재가 신도들도 마찬가지라서 가능하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다보면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상업을 직업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는군요.

불교의 업설은 이와 다릅니다. 업을 업이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도' 라고 보는 것이 불교 업설의 특징이지요. 어떤 행위를 하는데 목적의식이나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생명을 해쳤다 하더라도 생명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는 우연한 일이거나 피치 못할 일이라면 업으로 여겨지지 않거나, 업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아주 약한 업이 된다는 게지요.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가 업보의 연쇄를 낳지는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우리 불자들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식의 업을 지을까 전전긍긍할 필요 없이 어깨 펴고 살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우연성으로 일어나는 업보가 지금의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구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좋은 업을 쌓아서 좋은 결과를 누리고 잘 살자는 것이 불교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되는 풍조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나칠계님, 모처럼 손을 번쩍 드시네요. 말씀해 보세요.

나칠계 ; 삼쾌선생, 괜한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런 잘못된 믿음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오직 부처님께 열심히 빌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건강한 믿음을 지고 살고 있어요! 전번에도 주식투자한 거 잘되라고 기도 붙히고 열심히 빌었더니 정말 대박이 났거든요. 또 그 전에는 우리 아들놈 대학합격 기도도 영험이 있었어요. 전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 이룬다는 건강한 믿음 지니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허걱! 정말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네요. 제 걱정은 이런 것이었거든요. 불교의 목적은 좋은 업 쌓아서 이 세상에 좋은 복 누리고, 내생에는 좋은 세상 태어나자는 것이 아닌데, 지금의 불교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칠계님 말씀 들으니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칠계님,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라면 정말 부처님 가엾어 어쩌나요? 수많은 불자들의 수많은 기도 들어주시노라, 정말 잠시도 못 쉬실 것 같아요. 완전 노예 신분? 깨달아 부처되면 모든 중생의 기도에 일일이 봉사하는 노예 같은 거 되는 건가요? 애공, 갑자기 제 신심 떨어지네요.

에잇! 나칠계님의 수준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수준에서 걱정을 계속 하렵니다. 불교는 좋은 업 쌓아 좋은 결과 보자는 종교 아닙니다. 그리고 업에 의해 신분을 합리화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훌륭한 업 쌓은 사람이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말고 나도 지금 생에 좋은 업 쌓아서 내생에는 그렇게 높은 신분 되자는 종교도 아닙니다! 불교가 그런 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데, 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게 제 걱정입니다!

그럼 불교는 무엇이 목적이냐고 물으신다면, 누구나 다 아는 답이 있지요. 불교는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잖아요. 그리고 업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윤회를 벗어남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잖아요. 그거 너무 고상한 목표고, 또 현실에 맞지 않아 그렇게 불교를 말하면 현실에 불교 발붙일 곳이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가 그런 종교이기에 현실에 의미가 있고, 또 현실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믿거든요.

애고, 좀 어려운 이야기기 될 듯하여 일단 통과! 다음에 손오공 빌미삼아 쉽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요. 다음 시간에 뵈어요.






선으로 가는 길 (대,소)


달마도 (대,소)


밝고 향기롭게 (대,소)


선화의 향기 (대,소)


반야심경 (대,소)


산사의 꽃 야생화 (대,소)


암자에 길을 묻다 (대,소)


부처님의 성지 (대,소)


그리운금수강산 (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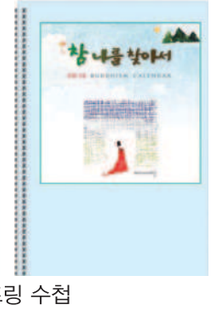

붓다의 향기 (대, 소)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 · 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 · 암자 · 포교당 등 대 · 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수첩


트윈스프링 차걸이

‘이익 의지’가 언쟁에서 진실 외면



원효의 혜안-화쟁(1)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

한국 사회에서 갈등 문제는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지만 성과는 미비하다.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은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는 10월 17일 ‘국회인문학아카데미’에서 ‘화쟁’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그는 인간의 다툼과 갈등에는 언어가 기저에 있음을 분석하고 이견을 안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화쟁’을 제시한다. 그의 원고를 미리 받아 4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주〉



염라대왕이 주관하는 발설지옥을 묘사한 시왕도. 발설지옥은 구업을 심판하는 곳이다. 언어로 인한 갈등이 문제라는 것은 오래 전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1. 싸우는 존재

지구상의 생물들은 경쟁한다. 살아남기 위해, 종족을 유지하고 복제하기 위해 경쟁한다. 특히 동물은 동종(同種) 내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운다. 그러나 동물의 다툼은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일차적 욕구가 채워지면 그친다. 그에 비해 인간의 경쟁과 다툼은 특이하다. 채워야 할 욕구의 내용과 범위는 끝없이 확장되기에, 경쟁과 다툼도 끝을 모른다. 잔인성과 폭력성도 밑을 드러내지 않는다. 기억을 계승하며 싸움의 기간을 무한히 연장하기도 한다. 혈통이나 지역, 종교나 신념의 차이를 두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꺼이 피의 강물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싸움이다. 그런 점에서는 인간 종은 ‘싸우는 존재’이다.

‘싸우는 인간’의 면모에는 언어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욕구의 무한증식과 싸움의 무제한성에는 인간의 언어능력이 심층에서부터 개입하고 있다. 인간의 등장이 언어에 앞서겠지만, 현실의 인간은 언어와 선후를 가르기 어렵게 한 몸이 되어 있다. 우리가 무엇을 욕구하거나 생각할 때, 이미 그 욕구의 형성과 생각의 발생에는 선행하는 언어적 관념이 개입한다. 언어적 관념과 무관한 순수사유나 순수욕망은 발려내기가 어렵게 된 것이 현존 인간의 실제이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로 싸우는’ 존재다. 언어로 싸울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다. 인간의 싸움은 관점과 욕구를 담은 언어들의 각축이다. 언어의 승패가 곧 현실과 삶의 승패가 되고, 언어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공감이나 연민 같은 생명 본래의 감성은 한 순간에 내팽개친다.

2. 언어의 양달과 응달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드는 존재로 진화한 이후에도, 인간은 한 동안 표정이나 몸짓, 음성으로 의사를 교환했을 것이다. 좋음과 싫음, 위험과 안전을 알리는 단순한 발성단계로부터, 의미를 복잡하게 분절하는 개념적 언어를 구사하는 단계로 진화하다가, 급기야 그 개념 구사력이 문자라는 고도의 유형적 기호 조작능력과 결합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진정한 ‘언어 인간’의 시대가 개막되었을 것이다.

인류가 영성의 원천으로 삼는 고전 지혜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한 것은 대략 지금부터 약 2550년 전(B.C 6세기) 무렵의 일이다. 이 시기에 각 문명권에서는 심오한 혜안을 지닌 인물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등장하는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진다. 불교권 국가들의 합의된 산정방식에 따르면, 붓다(Buddha)는 기원전 624년에 출생하여 80년을 살다가 기원전 544년에 삶을 마감하였다.

노자(老子, 기원전 6세기경)나 공자(孔子, 기원전 551-479)의 활동시기도 거의 겹친다. 기원전 5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소크라테스(기원전 470년경), 기원전 4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장자(莊子)까지 고려하면, 기원전 6세기를 전후한 100~200년간은 동·서양 보편지혜의 원천들이 앞 다투어 지혜의 감로수를 흘리기 시작한 각별한 시대이다.

칼 야스퍼스(1883~1969)는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를 제1차 ‘지식의 폭발’이 일어난 '축(軸)의 시대'라고 불렀는데, 인류 정신사의 중심축이 형성되어 구르기 시작한 시대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축의 시대 중에서도 기원전 6세기즈음은 가히 중심에 해당한다.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 영성들이 구사한 언어의 수준이다. 개념 선택, 명제 설정, 분석과 추론, 상징과 비유, 의미지평 등에 있어서 그들의 언어능력이 보여주는 수준은 ‘언어적 인간’의 고도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현재 구사하는 언어능력은 기본적으로 그 시기 그들이 보여준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약 5-6천 년 전에 문자언어와 결합하기 시작한 인간의 언어능력이, 그로부터 약 2500년이 지나서는 현재 우리가 구사하는 정도의 고도 언어능력을 보여주는 수준에 이미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시기의 인간은, ‘사유와 욕구가 언어와 한 몸처럼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는 길’, ‘언어의 화려한 궁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길’, 그리고 ‘언어로 싸우는 길’에 올라, 거침없이 질주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만-미개-문명’이라는 부실한 시대구분 도식에 맞추어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사람들의 언어능력을 ‘문명 이전의 미개수준’으로 추정하는 통념은 근거 없는 무지의 자만이다. 2500년 전의 혜안이 펼쳐놓은 언어들은 현재언어가 아직도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가족 규모이건 대가족 규모이건 군집생활을 선택한 인간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방어하고 싸워야 할 상황에 노출된다. 그럴 때는 구성원들의 결집력이 강할수록 유리하다. 소속 집단의 구성원들을 묶는 힘은 ‘동일성’에서, 대적해야 할 상대에 대한 전투력은 ‘배타성’에서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언어는 매우 효과적이다. 개념과 그에 의거한 언어는 동일성과 차이성을 명백히 구획함으로써 분류와 비교,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개념 언어의 이러한 속성은 생존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 예컨대 일정한 혈연이나 지연, 국가나 민족을 언어로 지칭함으로써, 방어와 공격의 동력인 ‘같음에 대한 동일성’과 ‘차이에 대한 배타성’을 명백히 확보할 수 있다.

생존 이익을 위한 또 하나의 언어적 전략은 평가의 견해를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비판단이나 선악평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견해 수립은 진실을 온전히 포착하고 구현하기 위한 진리 의지에 의거하기도 하지만, 개인과 소속 집단의 이익을 구현하려는 이익 의지가 판단과 평가를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진실에 반하더라도 이익 확보에 유효한 판단과 평가를 내리려는 이익 의지가 일상을 주도한다. ‘우리는 정의의 사도이고 저들은 악의 무리들이다’라는 견해를 무오류의 절대 진리로 수용할수록, 집단의 결집력과 전투력은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익 의지가 지배하는 판단의 견해는 무조건적·절대적 타당성을 주장하려는 충동이 수반된다. 만약 ‘우리는 선이고 정의, 저들은 악이고 불의’라는 견해를 조건적·상대적으로 수용한다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 결집력과 배타의 전투력은 원천에서부터 희석되고 만다. 조건적·상대적 이해가 사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이지만, 이익 의지는 진실과 합리성을 얼마든지 외면한다.

박태원 교수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원효, 선(禪), 니까야 대장경을 실존적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탐구하여 그 성과를 글에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같은 학문적 성과로 제2회 원효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주고받는 인사도 시대에 따라

우리말 표현에 ‘운다’는 말과 ‘조금’이라는 말이 있다. 나라 역사 5000년에 외침이 430여 차례에 이를 정도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우선 ‘운다’ 먼저 살펴보자. 종(鐘)이 운다, 새가 운다, 바람이 운다 등등. 종이 울리고 새가 노래하고 바람소리가 세차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한이 많은 우리네 민족의 귀에는 ‘운다’로 들려 왔을 테니까.

다음은 ‘조금’에 대해서다 식당에서는, ‘밥 좀 주세요’를, 약국에서는, ‘약 좀 주세요’를 즐겨 쓴다. 밥은 조금 줄 수 있지만(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약은 조금 줄 수 없을 터이다. 그런데도 외침이 잦아 먹을거리 문화가 졸아들 수밖에 없던 가난한 생활에서는 조금이라는 체면치레가 품위를 지켜왔던 것이다.

요즘은 인사말이 달라지고 있지만 저자거리나 고샅길에서 동네 어른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별고 없으십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가 주고받는 인사말 이었다. 전쟁과 굶주림이 상존(常存)했던 민족 간에는 밤새 안부가 궁금했고 끼니 걱정이 앞섰던 게 분명하다.

‘국물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어린 시절 싸움질하며 자주 사용했던 상대방의 기를 꺾고 으름장 놓을 때 쓰던 말이다. 손님이 오면 곡식을 꾸어서라도 밥을 짓고 국을 끓여 대접한다. 굶주린 아이들은 문틈을 통해 손님이 밥과 국을 조금이라도 남기길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밥과 국을 송두리째 말끔히 먹어치우면 아이들 입에서는 저절로 ‘국물도 없구나.’라는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온다. 하여 국물도 없다는 말은 희망이 없는, 절망의 또 다른 표현으로 자리매김 했던 것이다.

요즘은 ‘종이 울린다.’, ‘새가 노래한다.’, ‘바람이 세차게 분다.’ 등으로 표현이 사실적이고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부정적인 거부 보다 긍정적인 신뢰가 세상살이에 약이 되고 도움이 된다. 예전엔 배부른 게 꿈이었지만 요즘은 배부른 게 탈이 되는 세상이다.

주고받는 인사말과 생활의 언어도, 이제는 부드럽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겠지만.

내가 그 누구의 것일 수 없듯

어느 노 교수가 있었다. 정년이 가까워 오는 나이인데도 부부싸움이 잦았던 모양이다. 교단에 서 있을 때와, 아내와 치사하고 대수롭지 못한 일로 싸우는 자신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타인(他人)이었다.

그날도 노 교수는 아내와의 전쟁이 아닌 전쟁을 치르는 뒷동산의 숲길을 거닐고 있었다. 바람에 우수수 솔잎이 소낙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무심결에 솔잎을 한 응큼 쥐고 같은 모양새의 솔잎을 찾고 있었다. 그냥 곁으로 스쳐보기엔 모두 다 같은 솔잎이었는데, 꼼꼼히 살펴보니 같은 게 하나도 없었다. 길이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천차만별의 각기 다른 솔잎이었다.

노 교수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 속에 생활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 솔잎이 그러하거늘 남자와 여자 사이에 본래 같음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남자와 남자 사이에도 여자와 여자 사이에도 닮은꼴은 모르나 절대 같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활 언어를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역지사지, 배려하면 싸울 일 없다

나는 그 누구의 것도 될 수 없는데도, 그 누구는 영원히 나의 것이 송두리째 되어야 한다. 이 얼토당토 않는 논리는, 하지만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가슴에 새기고 있는 십계명이다. 나는 그럴 수 있지만,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억지는 부부싸움의 단골메뉴이자 되풀이되는 레퍼토리(Repertory)이다.

내가 그럴 수 있듯 당신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감싸준다면 그는 현대판 예수이자 부처이다. 내가 한번쯤 궤도를 이탈해 방황할 수 있듯, 당신도 이탈과 방황이 있을 수 있다며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네스북(Guinness Book)에 이름을 올릴 최초, 최고의 으뜸 반려자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겠지만 가장 먼 당신이 될 수도 있을 터이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정신적으로는 남남인 사람들이 주변에는 띄엄띄엄 있는 듯하다. 부부 인연,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입장 바꿔 생각하면 싸울 일도 줄어들 것이다. 내가 그 누구의 것일 수 없듯, 그 누구도 나의 것이 될 수 없을 테니까.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영원한 섬인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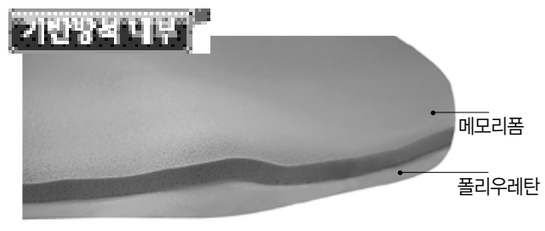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삽!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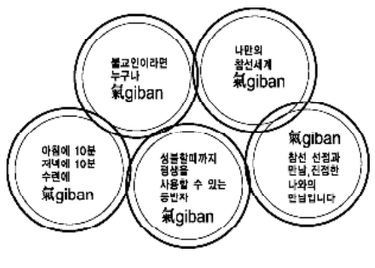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LA 시민들, '맛깔스런 포교'에 빠지다

와트 타이 寺院 푸드코트 지역 내 '맛집'으로 성황

로스앤젤레스 북쪽 산 페르난도(San Fernando) 계곡은 태국 음식의 요람이다. 그렇다고 계곡에 음식점들이 있는 게 아니다. 빨간 지붕이 인상 깊은 상좌부불교 사원 '와트 타이(Wat Thai)'가 있을 뿐이다.

음식 전문지 'Munchies'가 9월 4일 "와트 타이 사원이 운영하고 있는 '푸드 코트'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최고의 태국 맛집"이라고 소개하고 "이곳 푸드 코트에서는 한번쯤은 먹어 봐야 할 태국 음식 쏨땀 타이(spicy papaya salad), 팟타이(stir fried noodle), "ต้มยำกุ้ง(spicy seafood soup) 등 30여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산 페르난도 계곡에 와트 타이 사원이 들어선 건 37년 전이다. 푸드 코트 역시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법회를 마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다. 태국 불교 공동체만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37년이 지난 지금 와트 타이 사원의 푸드 코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유명한 '태국 맛집'이 되었다. 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벽안의 미국인도 한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 된 것이다.

푸드 코트에서 카오팟(fried rice)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제트 티라(Jet Tila)씨는 "푸드 코트는 태국 불교 공동체의 끈끈한 연결 고리"라며 "서로의 불심을 함께 키우고 정성을 나누는 공간이자 벽안의 시민들에게 상좌부불교를 알리는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카오팟은 볶음밥의 일종으로 어떤 재료를 넣고 볶음밥을 만드느냐에 따라 카오팟꿍(씨푸드 볶음밥), 카오팟 무(샐러리 볶음밥) 등이 있다.


와트 타이(Wat Thai) 사원은 사원 주차장서 푸드코트를 운영하고 있다.

푸드 코드가 지금에선 성공한 공간이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걱정 그 자체였다. 와트 타이 사원이 푸드 코트 계획을 알리자 이를 반대하며 사원을 항의 방문했을 정도였다. 산 페르난도 계곡의 수려한 자연환경이 푸드 코트로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잖았던 탓이다.

그러나 우려는 우려일 뿐이었다. 'Munchies'에 따르면 와트 타이 사원은 푸드 코트를 운영하며 일회용품을 일체사용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운영 방침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가게를 연 태국인들 역시 사원의 말을 적극 수용하고 실천했다.

페르난도 계곡서 30여년 운영
공양간이 '푸드코트'로 발돋움
팟타이·"ต้มยำกุ้ง 등 태국음식 '다채'
일회용품, 쓰레기 일절 금지 실천

얌운센(spicy glass noodle salad) 가게를 운영하는 피타 친손(Pita Chinson) 씨는 "와트 타이라는 성전의 주차장이라는 점도 푸드 코트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없애는 데 큰 몫을 했다"며 "태국 사람에게 사원은 신성한 곳이고 그곳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얌운센은 당면 야채샐러드의 일종으로 당면과 같은 면과 함께 야채, 샐러리, 씨푸드 등을 넣고 새콤 달콤 매콤하게 버무린 샐러드이다.

'Munchies'에 따르면 푸드 코트에서 최고의 인기 음식은 쿤야(Kunnya) 할머니가 선보이고 있는 쏨땀 타이다. 싱싱한 파파야와 양념 소스, 땅콩, 고추 등을 넣어 절구에 살짝 두드려 주듯이 빻아서 버무려 만드는 샐러드이다. 원래는 숯불 돼지고기나 숯불 닭고기 등과 함께 먹는 음식이지만 쿤야 할머니는 오직 샐러드만을 내놓는다. 성전 코앞에서 육류를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태국 음식 박람회에 온 것 같다"는 조르단 둔(Jourdan Dunn) 씨는 "잭푸르트와 바나나리프를 맛있게 먹었다"며 "좀 더 둘러보며 이국의 맛을 즐긴 후에 사원을 다시 방문해 이국의 종교문화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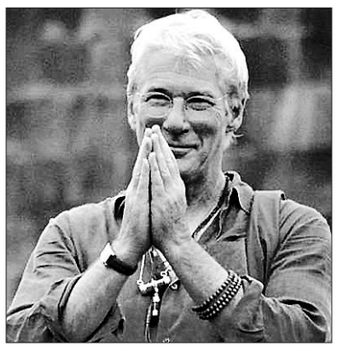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조르단 둔 씨는 푸드 코트에 오기 전에 사원을 방문해 푸드 코트에서 사용할 '토큰'을 구입했다. 이때 생전 처음 방문한 사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푸드 코트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와트 타이 사원이 발행하는 토큰이다. 조르단 둔 씨는 바로 이 토큰을 구입하기 위해 사원을 잠깐 방문한 것이다.

'Munchies'는 "와트 타이 사원의 푸드 코트를 찾는 벽안의 시민들을 보면 '음식 포교'라는 말이 가능하다"며 "이색적인 종교와 맛깔스런 문화가 어우러진 푸드 코트는 로스앤젤레스 시민의 이목을 계속 잡아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서 배운 '관용'… 자녀에겐 어떻게?

리차드기어, 英 잡지 인터뷰서 불심과 함께 자녀 교육관 드러내


2011년 6월 27일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Borobudur) 사원서 합장 인사 중인 리차드 기어. 사진출처=AP통신

올해로 만 66세가 된 세계적 스타 리차드 기어(Richard Gere)는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영국 잡지 'Hello!'를 통해 확고한 신심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9월 5일 북아일랜드 언론매체 'Belfast Telegraph'는 리차드 기어의 'Hello!'와 인터뷰 내용을 담아 "그가 젊었을 때 우주와 과학에 대한 호기심으로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같은 고민에 빠져있는 아들 호머(Homer · 15)가 자신이 느낀 환희심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차드 기어는 '불교 외교관'이란 별칭을 얻을 만큼 언론 · 방송서 수차례 불자임을 밝혀왔다. 인도 · 티베트 등지를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모아 2011년 한국서 '순례의 길' 사진전 개최하기도 했으며, 조계사 진관사 등 한국 사찰을 방문해 한국 불교와 인연을 맺은 적도 있다. 특히 2011년 진관사에는 아들 호머와 함께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Belfast Telegraph'는 "리차드 기어는 최근 캐리 로웰(Carey Lowell)과 이혼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호머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며 "리차드 기어는 아들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벤트'라 표현할 만큼 애착이 남다르다. 그래서 그는 10대의 삶, 10대가 가진 고민 등 바라보는데 큰 흥미를 느끼며 아들의 삶을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노력은 불교와 더불어 그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호머에 삶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보통의 아버지들이 겪는 사소한 걱정, 혼란 등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깊이 사색하다 보면 인내, 관용, 자비를 배우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며 "보통 사람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놓치고 살지만, 그것은 어디에나 있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Belfast Telegraph' 기사에 따르면 리차드 기어는 불교를 통해 '화를 지배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인터뷰서 "화가 나려고 할 때면 내 화로 인해 상처받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떠올린다"며 "참을 수 있는 일에 화를 낸다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고 드러냈다.

이에 대해 그는 "불교는 내가 내면을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쳤다. 이를 통해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것에서 점점 벗어났으며, 내 삶을 즐기고 타인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금발의 톱모델서 비구니 수행자로 변신하다


에니 리첸(Ani Richen · 67) 스님. 1994년 출가의 길을 택한 잭키 글래스(Jackie Glass)는 현재 에든버러에서 Kagyu Samye Dzong 센터를 운영하며 대중의 마음에 불심을 심어주고 있다.

英 언론, 에니 리첸 스님 '주목'…"달라이라마 법회 참석 후 출가"

영국의 축구스타 조지 베스트(George Best, 1946~2005)의 공식 커플로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한 여성이 이제는 비구니 스님으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Daily Mail'는 9월 9일 "과거 톱모델이자 전설적인 축구선수 조지 베스트의 공식 커플이었던 잭키 글래스(Jackie Glass)가 이제는 에니 리첸(Ani Richen · 67)이라는 법명으로 에든버러에서 명상 센터를 운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수행자로 살고 있다"고 전했다.

'Daily Mail'에 따르면 글래스와 베스트의 러브스토리는 영국의 최대 화제였다. 두 사람의 일상 모습까지도 매일 언론 지면을 장식했을 정도였다. 파티글래스의 금발은 영국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옷과 가방은 항상 쇼핑 우선순위였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글래스와 베스트의 결별 이후 급격히 사그라졌다. 당시 언론은 '베스트의 잘못으로 파경을 맞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지만 글래스를 조명하지는 않았다. 글래스는 결별 이후 베스트를 만나지도 않았고 두문불출했다. 딸 로지(Rosie)만이 남아 자신을 지켜줬을 뿐이었다.

"티베트 불교에 귀하게 된 것은 딸 때문"이라는 리첸 스님은 "나무 치료 전문가(tree surgeon)로 발리에 살고 있는 딸이 독실한 불자"라며 "딸의 종교를 알고 싶었던 나는 당시 영국을 방문해 순회법회를 열고 있던 달라이 라마를 찾아간 게 출가의 단초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Daily Mail'에 따르면 이후 글래스는 딸보다 더욱 독실한 불자의 삶을 살았고 1994년 티베트 불교사원을 찾아 수계 과정을 밟고 '에니 리첸'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리고 에든버러의 Kagyu Samye Dzong 센터에서 대중에서 불심을 심어주고 있다.

"나는 여전히 농담을 좋아한다"는 리첸 스님은 "대중을 만날 때 수행자로서 진지한 모습도 보이지만 차담을 나눌 때는 과거의 습성이 배어나온다"며 "자신의 삶을 단순화하는 정도만큼 내면 역시 그만큼의 평화를 가꿀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태국 '행운의 인형' 불티나게 팔려

'스님 축복 받았다' 소문나며 30배 넘는 가격에 거래


태국 불자와 관광객 사이에서 '행운의 인형'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출처=WSJ

태국 불자와 관광객 사이에서 '행운의 인형'이 인기다.

'Wall Street Journal'는 9월 9일 "태국의 사찰 인근 가게에서 행운의 인형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태국 불자나 관광객들에게 인기다"며 "이 인형은 1,5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원래 가격은 44달러에 불과하지만 스님의 축복을 받은 인형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전했다.

태국 사찰 인근 가게에서는 불교 관련 디자인 상품을 부적으로 판매해 왔다. 그러나 사람을 닮은 인형이 행운의 부적으로 판매되기는 최근부터다. 행운의 인형 구매자들은 더 큰 행운을 빌기 위해 '금박'을 따로 구입해 장식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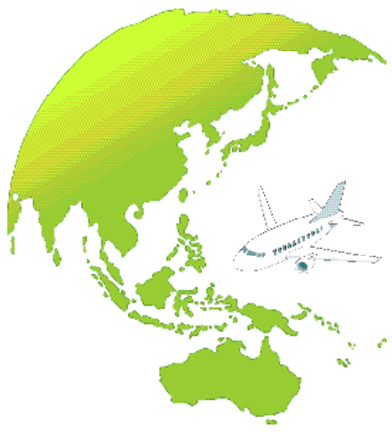
효험 일화도 퍼지고 있다. 이중에서 푼야위 페키위(Punyawii Petkaew)의 일화가 널리 알려졌다. 인형의 금발에 끌려 행운의 인형을 산 그는 구매 당시 '약간의 돈'을 기원했는데 복권에 당첨됐다. 복권 당첨금은 1만 바트(한화 약 32만원)이었다.

"행운의 인형을 구입하며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았다"는 푼야위 페키위 씨는 "단지 퇴직 직후라 가족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당첨금은 부처님께서 주신 여행 경비라고 생각하고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미얀마, 중국 현대불교신문이 준비한 해외성지순례에 불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붓다의 길을 걷는 성지순례, 부모님의 효도여행,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창간 21주년을 맞는 현대불교신문은 독자여러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억에 남을 해외성지순례'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못 떠나신 분, 마음맞는 친구, 여행동반자가 없어 못 가셨던 분, 여행의 안전이 걱정되어 못 떠나신 분, 사는 것이 힘들어 잊고있던 그 여행...
가족과 함께 , 부모님과 함께 현대불교신문사와 품격 높은 여행사가 함께 준비한 '해외성지순례'로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전

① 성지순례 후 특별지면을 편성하여 내용을 지면에 게재합니다.
② 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동일 상품 비교)
③ 성지순례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미리 나눠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④ 여행후기 소감문을 보내주시면 현불뉴스에 게재해 드립니다.
⑤ 전 일정 촬영한 사진을 필요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⑥ 현지와의 문화, 봉사 교류 및 불교행사 가능합니다.
(천도재, 수계법회, 마정수기, 신뿌행사, 봉사활동, 현지불교 교류 등)
⑦ 현지 전문 불자가이드로 성지순례의 감동을 더합니다.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팀 이동격 부장
02)2004-8214 / 010-7339-8688
협력여행사 : 마하연여행사 ☎ 02)365-7747
(견지동 74-8, 조계사 일주문 앞)
■ 종단 및 사찰, 단체 접수 환영합니다.
■ 현지와의 교류 행사는 일정 비용이 추가됩니다.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4박 6일 / 대한항공 (KE471)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790,000원

■ 포함 사항 : 국제선 항공료(유류할증료 포함), 전 일정 호텔(2인1실), 전일정 식사, 전용차량, 전용보트, 전용유람선, 관광지 입장료, 한국인가이드, 기사&가이드팁, 비자수수료, 여행자보험 1억원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매너팁 등)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전일정 가이드/기사TIP (전일정$60) + 공동경비(전일정$10) 포함
- 12명 이상 45인승버스 진행 (타사비교 필수)
- 아름답게 펼쳐진 탑과 마을을 지나는 마차투어
- 갈증을 풀어줄 시원한 미얀마 맥주, 맛있는 열대과일 제공
- 헤호지역 수상 호텔로 이용
- 미얀마 천연썬크림 다나까 체험
- 유람선을 이용 민군순례
- 아름다운 깐도지 호수 산책

제 1일 인 천 양 곤
인천공항 3층 A카운터 미팅
양곤 출발 (대한항공 KE471)
양곤 도착 (시차2시간 30분)
호텔로 이동 – 호텔휴식
HOTEL : 스카이스타 호텔 또는 동급
석 : 기내식

제 2일 양 곤 바 간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바간으로 이동
냥우시장 관광
쉐지곤 파고다/ 부파고다 / 아난다사원 / 틸로민로 사원 / 세산도 파고다 순례
강변레스토랑에서 저녁공양 후 휴식
HOTEL : 트레져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3일 바 간 만달레이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만달레이 이동
우뻬인다리 / 마하간다용 수도원 탁발의식 참여 / 마하무니 파고다 /
신뿌미파고다 / 민군대탑,민둔대종 순례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만달레이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4일 만달레이 헤 호
호텔 조식 후 국내선으로 헤호로 이동
인팽유적지 / 팡도우 파고다 방문 /
쭌묘(수경농경지재배단지) 관광 /
수상마을,전통공방 관광 /
수상호텔에서 휴식
HOTEL : 후핀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5일 헤 호 양 곤
호텔 조식 후 양곤으로 이동
까바이에파고다 /
마하파타나구하 동굴사원 /
쉐다곤파고다 / 차욱타지파고다 순례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
양곤 국제 공항 출발 (대한항공 KE472)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제 6일 인 천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단식
조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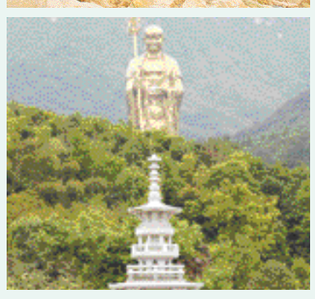
지장도량 (구화산)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성지순례 5박 6일

출발 : 201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상품가격 : 1,490,000원

■ 포함 사항 : 왕복 항공권, 호텔(2인1실), 전용차량, 관광지 입장료, 전 일정식사 ,여행자 보험 가이드&기사 팁, 중국 단체 비자 등
■ 불포함 사항 : 개인비용, 옵션비용, 싱글 룸 챠지 [전일정 18만원]
■ 준비물 : 여권 +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 협력여행사 마하연여행사만의 특전
- 수준 높은 마하연 여행사 전속가이드의 책임 있는 행사 진행
- 가이드 &기사팁 포함 및 공동경비 포함, 전문 인솔자 동행
- 환상적인 상해의 외탄 야경 관람
- 중국 10대 선종 고찰 영은사 순례
- 99m 지장대불 참배
- 전일정 특급 호텔 숙박으로 편안한 휴식
-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발마사지 체험
-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 완벽 순례
- 천년전 항주를 재현한 송성가무쇼 관람
- 혜제사 순례 시 케이블카 이용







제 1일 인 천 / 상 해 / 황 산
인천국제공항 3층 G카운터 미팅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상해국제공항 도착
황산으로 이동(약 4시간 소요) 후
공양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 호텔 또는 동급
중 : 기내식 / 석 : 현지식

제 2일 황 산 / 구화산 (전용버스)
구화산 순례, 천태 케이블카 탑승
– 고경배대 순례
만불 천태사, 육신보전, 백세궁 등 참배
화성사, 99m 지장대불 참배
황산으로 이동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HOTEL : 황산 하워드존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 3일 황 산 / 항 주 (전용버스)
항주 극락 서호유람 및 육화탑(차창)관람
영은사, 청하방 순례, 송성가무쇼 관람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마르코폴로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한식

제 4일 항 주 / 보타산 (전용버스)
보타산, 법우사, 관세음보살님이
방생하셨다는 보제사 순례
혜제사(케이블카), 관세음보살님
화현처 범음동 순례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보타산레이디슨 호텔 또는 동급
조 : 호텔식 / 중 : 현지식 / 석 : 현지식

제 5일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전용버스)
낙가산 자죽림 순례,
남해관음대불 순례 후
상해로 이동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 줄 발마사지 체험
남경로 및 외탄 야경 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가든 뷰 호텔 또는 동급 미정
조 : 호텔식 / 중 : 딤섬식 / 석석 : 한식

제 6일 상 해 / 인 천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상해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 : 호텔식 / 중 : 기내식

쇼핑 2회 포함 일정입니다.

BTN 불교라디오 www.btn.co.kr

불교음악오디오 채널을 풍성하게 할
불교음악을 모읍니다

"혹시 '불교음악오디오 채널' 들어보셨나요?"

10월 가을날, BTN에서는 불교음악오디오 채널운영을 시작합니다. BTN에서는 불교음악의 활성화와 방송로고의 다양화 차원에서 10월부터 9개 음원을 엄정하고, 불자들의 공심과 사랑을 기반으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거나, 또한 최신 다양한 불교음악과 특집, 부처님 말씀을 오디오 채널을 통해 많이 소개 할 예정입니다.

이제 법보시 일 개인 소장용으로 제작 보관하고 계신 불교음반(창불가, 염불, 독경, 부처님말씀 등)의 음원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 3270-3338 (BTN불교라디오 담당자) *E-mail : radiopacem@btn.co.kr
*보내주실곳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BTN불교TV 빌딩 불교라디오 담당자 앞



BTN불교라디오는 BTN홈페이지, 모바일웹(m.btn.co.kr), BTN스마트폰 앱 을 다운받으셔서 청취가능 합니다. ARS수신전화 060-800-7000 방송로고 청기증정 02)3270-3301~2

‘꽃밥’ 이 사랑 되면 세상에 기쁨이 충만

이영철 작가 개인전
9월 25일까지 탑골미술관서



늘 부처님께 아들의 행복을 빌었던 어머니. 화가가 되고 싶었던 아들은 몸이 약했고 두 번의 실명 위기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면 괜찮아질거라며 자식을 안심시켰다. 정말 그럴까 싶었지만 신기하게도 아들은 실명 위기를 넘겼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렇게 간절했다.

3년 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전업작가로 어려운 살림을 이어나가던 화가 아들이 그 이름을 조금씩 세상에 알릴 무렵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찾던 김천 청안사를 찾아갔다. 그가 한번도 보지 못했던 주지스님은 그를 너무나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늘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덕분이었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사무치도록 느껴졌다. 그때부터 그는 마음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그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세상이 주목하는 작품이 되었다.

법륜 스님의 〈날마다 웃는 집〉,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등의 삽화를 작업한 이영철 작가(57 · 사진)의 이야기다. 따뜻한 감성으로 어른들의 동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영철 작가가 특별한 전시를 열고 있다. 9월 25일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에서 열리는 개인전에서는 인연의 이야기를 소중히 담은 작품 30여 점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작가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그 사이에 인연을 맺게 되는 여리고 약한 온갖 순수한 생명들과의 교감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꽃, 봄, 달, 고양이 등 따뜻하고도 소소한 소재들을 작품화하는데 이는 지나간 시간, 추억의 한 장면을 뚝 떼어내 옮겨 놓은듯 선명하다. ‘사랑 꽃밥’ 은 그의 대표 작품 중 하나로 그림 그리기를 열망했던 작가의 사춘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 있다.



‘사랑 꽃밥’. 그림 그리기를 열망했던 이영철 작가의 사춘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 있다.

봄 · 꽃 · 연인 · 고양이 등을 소재로
어른들 위한 동화 30여 점 선봬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실명 이겨내고 전업 작가로 활동
“지금의 삶은 덤, 나누며 살고파”

“고등학교 시절,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무척이나 반대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갔죠. 40일 정도 친구집에서 보내다가 어느날 집에 다시 들어왔는데 가족들이 둘러 앉아 밥을 먹고 있더군요. 그때 어머니가 이불 속에 묻어 두었던 밥공기를 꺼내 상 위로 올려놓으셨어요. 울먹거리며 먹었던 그 밥을 잊을 수가 없어요.”

3년 전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아버지의 묘를 이장해 함께 묻어 드리며 작가는 그때의 밥이 떠올랐다. 환한 봄날 가신 어머니를 연상케 하는 꽃을 밥그릇 속에 담았다. 천송이 이천송이 꽃이 늘어갈 때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잊혀져 갔다. 그렇게 꽃밥 위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시 만나 젊은 시절의 연인이 되었다.

“이 그림을 작품으로 옮겨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출판 관계자들이 보고 같이 작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했죠. 그래서 혜민 스님과 출판 작업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는 계기가 되었죠.”

이런 작가는 나누는 일에 익숙하다. 그는 재능이든 마음이든 나눈다. ‘뿌뿌 친구’ 등의 고양이 작품은 작가의 마음씀씀이를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작품이다. “5년 전부터 작업실, 공원, 도로 등에 돌아다니는 야생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사서 밥을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50마리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제는 고양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죠. 작업실 한켠에 고양이들의 휴식처를 만들어 두기도 했어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양이 밥 때문에 휴가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도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혜민 스님의 마음치유학교 등에 대형 작품을 기부했다. 세상을 향한 회향이다. 진정한 마음을 퍼올려 세상을 향한 붓질을 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도 나누며 살 것이라고 다짐한다.

“저는 두 번의 실명 위기를 겪으며 고도 근시가 됐어요. 렌즈를 끼고도 교정시력이 0.5를 넘지 못해요.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지금 사는 세상은 덤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많이 가져야 할 이유도 없죠. 제 그림을 많은 분들이 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림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세상과 더불어 나누며 살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동산불교대 불교미술학과 불화전

9월 22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서

제5회 동산불교대 불교미술학과(지도교수 법인) 불화 전시회가 9월 22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 1전시실에서 열린다.

미술학과 졸업생들과 재학생 13명의 졸업전을 겸한 이번 전시회는 황경숙의 ‘석가모니 후불탱화’와 전필무의 ‘아미타내영도’, 한상숙 미술학과 동문회장의 ‘율곡사의 보관(寶冠) 노사나괘불도’ 모사본 등의 작품 25점과 소품 15점이 함께 전시된다.

지도교수 법인 스님은 “이번 전시회는 불교미술학과 학생들이 3년여의 시간을 구도자의 자세로 수행하듯 마음속에 새겨진 부처님의 형상을 손끝으로 꽃피운 결과물이다.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불화를 통해 내면의 부처님과 만나고 ‘공감과 치유’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학생들이 교과과정에서 배운 불교 공예를 접목, 불자들의 가정에도 소장할 수 있는 소품들도 다양하게 전시할 예정이다. (02)733-4448



한상숙의 ‘노사나괘불도’ 모사본(부분)

정혜숙 기자

설치미술가 선진 스님 ‘안횡비직’ 전

9월 20일까지 대구 범어 도서관 갤러리서

설치미술가 선진 스님(대구 보현암 주지)의 제10회 개인전 ‘안횡비직’(眼橫鼻直)전이 대구 범어 도서관 갤러리에서 9월 20일까지 열린다.

‘눈은 옆으로 코는 아래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선의 정신을 설치미술로 표현한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선진 스님은 “이번 전시 주제는 ‘안횡비직’(眼橫鼻直)으로 눈은 가로로 생겨있고 코는 세로로 생겨있다는 말이다. 모든 부처님들이 다만 안횡비직을 증득하였으니, 불법을 알려면 안횡비직만 배우면 된다. 눈 둘에 코 하나는 천만의 부처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며 누구나 불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설치미술가 선진 스님의 ‘안횡비직’(부분)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모든 중생이 참나를 찾는 본질과 대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53)767-0274

정혜숙 기자

부여 무량사 ‘3회 힐링음악회’

9월 19일 오후 6시 30분 경내에서

부여 만수산 무량사(주지 제민)가 극락전 ‘아미타삼존불 후불탱화 점안식’ 및 ‘제3회 힐링산사음악회’를 9월 19일 오후 6시 30분 경내에서 연다.

‘하늘 아래 산사, 자연과 음악에 춤추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설운도, 박상철, 유지나, 박정식, 도신 스님, 백제 가야금 연주단 등이 출연한다.

주지 제민 스님은 “천년고찰 무량사에서 열리는 가을 산사 음악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정한 마음의 힐링을 하고 돌아가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041)836-5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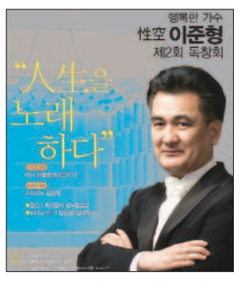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이준형 독창회 ‘인생을 노래하다’

9월 21일 오후 7시 아트밸리 예술극장서

“가수를 꿈꾸던 소년이 열정 하나만으로 합창단 지휘자와 미완성의 성악가로 많은 무대에서 노래 부르기를 30여 년. 뒤늦은 나이에 중앙대 예술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용기를 내어 첫 독창회를 열었으나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금 용기를 내어 행복한 가수 ‘인생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제2회 독창회를 준비했습니다.”

성악가 이준형 씨의 공연 초대장에는 일기장 같은 자신의 독백이 적혀 있다. 그의 30년 음악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하다. 성공 이준형 씨가 9월 21일 오후 7시 구로 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제 2회 독창회’를 갖는다. 2009년 1회 독창회 이후 6년 만이다.



이준형 제 2회 독창회 포스터

이 씨는 이번 독창회에서 사랑 그리움 이별 평화 등으로 주제를 나뉘어 ‘그대는 나의 모든 것’ ‘무정한 마음’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 ‘불법인연 높습니다’ 등의 곡을 선보인다. 육지장사와 삼보합창단이 함께하며, 테너 허철영이 특별출연, 소프라노 김양희가 우정 출연을, 피아노는 양은영과 김미화가 연주한다. 010-9357-5324

정혜숙 기자

불교문화관광콘텐츠 디자인展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0월 5일까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10월 5일까지 ‘불교문화관광콘텐츠 디자인’ 전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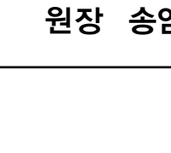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2013년~2015년까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3차에 걸쳐 개발한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그동안 △1차 단청, 꽃살문, 패턴을 △2차 사물, 사천왕, 불교문화유산 인포그래픽, 디자인, 패턴을 △3차에서는 불교문화유산에서 기록된 동물 관련 설화, 디자인, 패턴 등을 개발한 바 있다. 이밖에도 불교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한 본디나 개발 상품도 선보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그동안 한국 전통불교의 문화유산에서 추출한 디자인, 패턴, 설화를 응용해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개발 상품을 홍보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02)2031-2000

정혜숙 기자

實戰四柱 강좌 안내

運命을 개척하는 實戰四柱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운명을 개척하자!”



송암 김서경

각고의 노력으로 드디어 實戰四柱 종합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스님을 비롯하여 법사님 등 누구라도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파멸과 부귀영화는 나 자신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습득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수하시고 무량공덕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 實戰四柱 강좌
◐개강 : 2015년 10월 2일(금요일)
◐강의일시 : 매주 월 ~ 화, 목 ~ 금 (10-12시, 15시-17시, 19시-21시) 하루 2시간 강의
◐강의과정 : 1년 과정 + 육효, 성명학 4개월
◐강의장소 : 명리학연구원 강의실
◐강의교재 : 實戰四柱 (교재비 무료)
◐수 강 료 : 월 20만원

명리학(命理學) 연구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3-1
농협건물 4층 401호
전화 010-3341-4867
원장 송암 김서경

實戰四柱 책 판매 안내
(수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별도 판매합니다)

이 실전사주책은 1,030페이지로 사주팔자가 구백육십개이며 용신과 대운과 세운, 질병, 성격, 팔자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 책만 배우면 어떠한 사주라도 감정해 줄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1년만 배우면 타인을 감정해 줄 수 있으며 육효도 필히 배워야 합니다. 사주와 대운은 큰 틀이며 매월의 운세와 승진, 합격, 재물, 매매, 송사, 문서, 생과 사, 택일, 일진, 모든 길흉사는 육효로 감정합니다. 육효는 4개월만 매우면 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 85,000원
(입금 확인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안산 : 010-2487-3393 대구 : 010-3821-4849 서산 : 010-7301-5854
화성 : 010-3168-9250

BTN 드라마 '붓다'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지난 줄거리

발데프가 살해당한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싯다르타는 연민 · 자비의 형상과 질투 · 분노의 형상을 동시에 만나며 번뇌에 빠진다. 코살라국과 전쟁이 일어나지만 싯다르타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전쟁이 열세에 몰리자 싯다르타는 코끼리 떼를 몰고 들어와 전쟁을 멈출 것을 제안한다. 코살라국왕은 '양국이 전사를 선발해 표적을 맞혀 이기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로 하자' 고 제안한다. 결국 카필라바스투가 승리하며 싯다르타는 영웅이 된다.



망갈라, 데바닷타 등 주변의 온갖 방해를 뚫고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는 싯다르타와 야소다라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료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대신들



싯다르타를 유혹하라는 지시를 받는 시대의 최고 기생 암라팔리



드로나단의 이간질로 싯다르타에게 적의를 품는 코살라국왕

싯다르타의 지혜로 전쟁이 무사히 끝났지만 대신들은 코살라국 왕을 살려둔 것은 옳지 않았으며 모든 상황을 진퇴양난에 빠트렸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또한 싯다르타는 숲에서 나는 연기가 죽은 병사들을 화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번뇌에 빠진다.

"그들의 몸이 아니라 인류가 불타고 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언제까지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스스로를 욕되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야소다라가 "낙심하지 마. 너는 전쟁을 막았어"라고 위로하자 싯다르타는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쩌지? 그들의 증오는 어쩌고?"라고 반문한다.

전쟁이 끝난 왕궁은 싯다르타와 야소다라의 결혼준비로 북적인다. 모두가 결혼 준비로 한창 들떠 있는데, 망갈라는 결혼식에 입을 옷을 고르며 심통을 부려 분위기를 흐린다. 이런 가운데 데바닷타는 야소다라를 납치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그가 납치한 사람은 야소다라가 아닌 향락궁에서 데바닷타가 괴롭혔던 기생 칸차니다. 데바닷타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그녀는 야소다라로 변장해 대신 납치를 당한 것이다. 네가 무슨 짓을 한건지 알고 있냐는 데바닷타의 분노 섞인 말에 그녀는 "여성에게 명예를 회복시켜주신 분(싯다르타)을 위해 작은 일을 하나 했다. 태자마마의 아내가 되실 분의 명예를 보호한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그녀는 데바닷타의 칼에 죽음을 당한다.

데바닷타 야소다라 납치 계획 실패
망갈라는 전갈로 두 사람 결혼 방해
기녀 암라팔리 싯다르타 유혹하지만
신부 위한 확고한 사랑 밝히며 거절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시작되려 하는데 망갈라는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렇게 되자 숫도다나왕과 파자파티는 망갈라의 방을 찾아가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설득한다. 결국 싯다르타가 대관식을 치르면 동쪽 왕국을 데바닷타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망갈라는 결혼식장으로 향한다.

또한 대신들은 코살라국 프라세나짓 왕이 싯다르타의 결혼식에 초대된 것에 대해 옳지 않다고 숫도다나왕에게 항의를 하고 숫도다나왕은 이런 대신들을 다독인다. 한편 결혼식에 초대받은 빔바사리 왕은 당대 최고 기녀 암라팔리를 데리고와 싯다르타 왕자를 유혹해달라고 부탁한다.

망갈라의 음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궁녀를 시켜 신랑 목에 걸어줄 꽃목걸이에 전갈을 놓는다. 하지만 결혼식에 초대 받은 코살라국 프라세나짓 왕이 다행히 이를 발견해 별 탈 없이 결혼식이 진행된다.

빔바사리 왕의 부탁을 받은 암라팔리는 축하공연으로 화려한 춤을 선보이며 남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싯다르타 역시 그녀의 춤에 감동받아 목걸이를 풀어 주는데 암라팔리는 목걸이를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한다. 그 이유를 묻자 "목걸이 대신 왕자님과 단 둘이 있고 싶다"고 하자 싯다르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이제 혼자 몸이 아닙니다. 저는 고파(야소다라)와 일심동체라서 제가 고파고, 고파가 저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야지요." 싯다르타의 확고한 마음을 알아버린 암라팔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목걸이를 받고 물러나버린다.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싯다르타와 야소다라는 신혼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침대 한가득 전갈이 깔려 있다. 야소다라가 경호원을 부르려 하자 싯다르타는 궁의 균열을 가져온다며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한다. 야소다라는 자신들의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는 누군가가 궁 안에 있다며 두려워한다. 싯다르타는 야소다라를 위로하고 결국은 찬나가 마련해두었던 숲속의 집에서 첫날밤을 보내게 된다.

다음날 찬나는 왕자의 결혼식을 알리는 도시행진용 말을 준비한다. 그때 드로나단이 다가와 태자의 말 옆에 숭배의식 말을 함께 묶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자의 용맹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한다. 드로나단의 속셈을 모르는 찬나는 그가 명령한 대로 숭배의식 말을 왕자의 말 옆에 묶게 되고 드디어 도시행진이 시작된다. 이 광경을 본 코살라국 프라세나짓 왕은 분노하는데…

BTN Buddhist True Network
본방 매주 수 · 목 저녁 9시
재방 일요일 새벽 1시 · 오후 3시(각각 2회 방영)
월~목 새벽 1시/ 화 · 수 오전 9시

리뷰 – 법현 스님이 본 드라마 '붓다'

다양한 갈등 보는 재미 풍성

픽션(허구, 상상)에서의 극적인 재미를 극대화 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다. 그들은 권력다툼, 싸움(전쟁), 사랑, 액션 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드라마 특히 사극에서는 이런 요소가 빠짐없이 들어간다. 인도의 종교사극인 드라마 붓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먼저 권력과 나라간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받아들이지만 대를 잇는 제2계열의 숙명을 피해보고자 하는 숫도다나왕의 동생 드로다난왕의 노력은 눈물 나다. 아들인 데바닷타가 혹시나 왕으로 오를 수 있을까 해서 그보다 더 적극적이고 교묘한 아내 망갈라와 함께 싯다르타가 수행자가 되기를 바라거나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죽기를 바란다.

아니면 왕비가 될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은 야소다라와 데바닷타를 짝 지으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민다. 심지어는 적과의 겨룸에서도 아군이자 주군이 될 싯다르타를 해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들에게 내린다. 뜻밖에 데바닷타는 싯다르타의 머리에 쓴 모자를 화살로 쏘아 떨어뜨리는 묘기진수를 보인다. 그의 속마음이 복잡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영웅이 될 것이냐 반역자가 될 것이냐의 고민 속에서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마부 찬나와 병사들이 데바닷타왕자를 연호하자 샤캬왕국 만세를 외치는 쇼맨쉽도 적당히 드러내고 있다.

경전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는 부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왕이 될 코살라의 프라세나짓왕은 위험천만한 인물이다. 마하코살라의 아들로서 기대감을 충족시켜서 일찌감치 대관식을 거쳐서 왕이 되었다. 그러나 마음속의 야욕인 전륜성왕이 되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저주주술을 행하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킨다. 하지만 거의 다 이긴 전쟁에서 싯다르타의 활약에 의해 번번이 깨지는 아픔을 맛본다. 드라마에서는 싯다르타의 바람에 의해 그의 군대가 지닌 모든 무기를 샤카연합국에 반납해서 무기를 녹여 평화비를 세우게 한다. 그리고 절대로 침략의 야욕을 다시는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깨고 다시 침략한다. 물론, 드로다난의 계략인줄 모르는 마부 찬나가 프라세나짓의 패배의 상징인 말을 싯다르타의 마차에 매어 끌게 함으로써 그의 분노를 산다는 복선에 의한 것이다.

숫도다나 대왕의 누이이자 싯다르타의 부인이 될 야소다라의 어머니인 마음 착한 아미타왕비의 남편인 단다파니왕의 이중성격도 드라마의 전개를 재미있게 하고 있다. 그는 전사후보생 데바닷타의 좋은 이야기만을 듣고 싯다르타의 나쁜 이야기를 섞어 들었다. 게다가 자신의 어정쩡한 위상에 관해 궁리를 하다가 데바닷타를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아래 그가 승리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석가족 연합의 명운과 야소다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그마한 이익을 취하다 오히려 큰 손해를 겪을 일을 저지른다. 더구나 그것을 사랑하는 딸인 야소다라에게 들키기까지 한다.

숫도다나왕은 아들 싯다르타를 전륜성왕으로 키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경전을 미리 읽은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만 세세한 과정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매우 복잡한 계략들이 등장해서 마음을 졸이고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싯다르타가 훌륭한 전사로서 대륙을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될 수도 있지만 출가 수행해야 이룰 수 있는 성자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언한 아시타의 말을 머릿속에서 밀어내려고 무던 애를 쓴다.

아버지로서는 눈물 나는 노력이지만 좋은 통치자로서는 문제가 있는 계략들이 그의 힘 있는 머리에서 나온다. 혹시나 좋지 않은 것들을 봄으로써 세상에 관한 미련을 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위해 싯다르타가 좋지 않은 것은 겪지 않도록 한다. 아예 신도시정책을 마련해버린다. 선박왕 오나시스는 말하기를 기회는 파도처럼 온다고 했다. 이런 전쟁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영웅들에게도 기회는 파도처럼 온다. 드라마붓다에서는 물론 싯다르타가 파도같은 기회를 소유하는 주인공이다.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 BTN 자문위원)

부적 기름의 혁명
松 송 根 근 油 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찌들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 · 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9.3~2015.9.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명추회요-종경록 촬요본	회당조심/원택	장경각
2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3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4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5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6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7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8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박진여	김영사
9	감산자전	감산덕청/대성	탐구사
10	남을위해기도합시다	퇴옹성철	장경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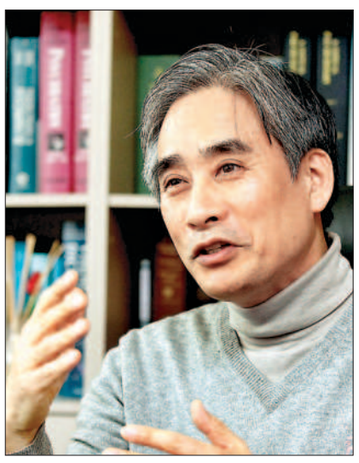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불교와 정신치료는 하나… 고통서 벗어나게 도와줘"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1만 6천원



미얀마 파욱 숲속센터 프로그램 직접 체험
어떤 '주의'로 대상 마주하느냐가 중요
"연기 믿을때 충실한 삶 따라와" 강조

강남서 잘나가던 병원 문을 두 번이나 닫고 미얀마와 한국을 오가며 수행에 몰두한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씨〈사진〉. 그가 돈과 명예를 뒤전으로 하고 수행에 몰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는 어떤 수행을 했고, 수행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가 불교를 만난 것은 정신과 전공의 2년차이던 1985년 무렵이다. 이때 처음 불교를 만나, 불교와 정신치료 사이의 공통점에 주목하고, 이후 불교를 정신치료에 꾸준히 접목시켜 불교계와 의학계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불교와 정신치료가 '둘'이 아니며, 불교가 그 자체로 훌륭한 정신치료임을 깨닫고는 불교를 통한 정신치료를 끊임없이 시도한다.

이를 위해 불교를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그는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로 된 불교 경전을 독파하는 한편, 경전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 2009년과 2013년 두 번이나 병원 문을 닫고 미얀마와 한국을 오가며 수행에 몰두한다. 이 기간, 미얀마 파욱 전통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작동 원리를 깊이 터득하고 본인의 전생과 미래생을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교 정신치료의 체계를 더욱 뚜렷하고 탄탄히 세울 수 있었다.

이 책은 그가 세운 불교 정신치료 바탕인 불교 수행, 그 가운데 파욱 수행서 하는 사마타(선정)와 위빠사나(통찰) 수행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저자는 파욱 사야도와 그의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한 것을 '파욱 숲속 수행센터'의 프로그램대로 정리하면서, 본인의 체험을 소개해 왔다.

이 책에는 다른 수행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장점이 있다. 저자가 정신과 의사 입장서 깨달은 불교 수행의 정신치료적 의미를 짚어간다는 점이다. 수행이란 수행 자체가 아닌 삶을 위한 것이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다. 수행을 통해서 삶을 바꾸려 한다면 그의 안내를 이정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궁극 물질을 보면 '나'로부터 자유로워져

어느 날, 수행을 지도하는 스님으로부터 손을 움직이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보라는 주문을 받은 저자는, 선정 상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랬더니 손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보였다. 손을 움직이려고 하자 마음서 생겨난 물질이 이동하고 분열을 거듭해 손에 닿았고, 그 순간 그 물질 안에 있는 바람의 미는 속성이 손에 있는 물질 안의 바람의 미는 속성과 함께 작용해 손이 움직였다.

손동작만이 아니다. 움직임과 말을 비롯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모두 물질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따라 일어난다. 파욱 수행에서는 이렇게 겉모습 안에 있는 궁극적인 물질의 작동 원리를 하나하나 관찰하고 알아간다. 이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물질의 일어남과 사라짐으로 보고 아는 것이 거듭되면, '나' 혹은 '내 몸'이라는 생각이 없어진다. 그 결과 나에 대한 집착서 비롯된 갖가지 고통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반이 마련된다.

유익한 또는 해로운 마음 결정하는 '주의'의 힘

마음이 복잡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봐도 심드렁하지만, 마음이 가벼울 때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만 보고도 웃음이 나올 때가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고 뜻을 세운 것도 아닌데, 저절로 그렇게 된다.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에서 어떻게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핵심은 어떠한 '주의'로 대상을 마주하느냐에 있다.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대상을 마주할 때 어리석은 주의를 기울이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현명한 주의를 기울이면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수행을 통해 이 과정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리석은 주의를 거의 품지 않게 된다. 그것이 자신에게 해로운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명한 주의를 품게 된다. 자연스럽게 해로운 마음이 줄어들고 유익한 마음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무엇이 현명한 주의인가?

있는 그대로 알고 보라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 속에서 사람이나 사물과 마주한다. 생각대로 보고 욕망대로 순서를 매기면서,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은 고사하고 자기 생각 하나조차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다. 모든 것은 제 법칙에 따라 작동할 뿐이다. 여기서 마음병이 생겨난다.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거나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없을 때, 이를 자연스레 넘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제자인 아난다가 스승인 붓다에게 수행의 목적과 이익을 묻자 붓다가 답한다. "목적은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고, 이익도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다". 불교는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실제 모습과 구성 및 작동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앎을 바탕으로 최선의 길을 선택하게 한다. 다시 말해 불교는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이나 욕망이 끼어들 틈이 없음을 명백하게 일깨워, 세상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이끈다. 마음병의 바탕을 송두리째 날려버린다.

그래서일까? 불교를 깊이 경험한 어느 정신과 의사는 불교의 핵심을 '불취외상 자심반조'(不取外相 自心返照)라고 말했다. '겉모습을 취하지 말고 제 마음을 돌아본다'는 건, 바깥 대상에 자신의 욕망이나 생각을 투사하기를 멈추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불교와 정신치료는 서로 통한다. 정신치료 역시 실제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있는 그대로 알게 한 후,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이나 문제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본질에서 볼 때, 불교와 정신치료는 하나다.

연기 수행을 하는 중에 저자는 자신의 전생과 미래 생을 본다. 전생으로는 모두 6가지를 봤는데, 경찰 혹은 군인이던 생, 개였던 생, 왕자였던 생, 수행자였던 생, 천상의 존재였던 생이었다. 미래 생으로는 4가지를 봤는데, 스님, 천신, 범천, 다시 스님으로 살 것이라 했다. 이렇게 전생과 미래 생을 보는 수행을 통해 삶 또한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뤄진다는 걸 알고 믿게 된다고 한다. 저자는 윤회를 믿는 사람은 자살을 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생이란 어차피 다음 생으로 이어질뿐더러, 현재 생이 원인이 되어 그에 합당한 다음 생이 전개되니, 죽음을 앞당기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삶에서 더 충실히 수행해 더 나은 다음 삶으로 이어질 원인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현직 교장선생님이 펴낸 반야심경 해설서

어린이 반야심경

글 민병직, 그림 용정운 | 운주사 펴냄 | 1만 1천원



오랫동안 교단서 아이들을 가르친 현직 교장선생님이 어린이들을 위해 펴낸 반야심경 해설서이다. 어렵고 딱딱한 경전을 최대한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이했다. 또한 중간중간 예쁜 삽화들이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어린이를 위한 책이지만, 어렵기만 한 반야심경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어른들이 보기에도 손색이 없다.

〈반야심경〉은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익숙한 경전이다. 260여자에 불과한 적은 분량 때문에, 그리고 그 짧은 글 속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한국불교의 모든 의식서 독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 걸맞게 아주 다양한 관점의 해설서들이 출간돼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책은 이제껏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펴낸야 된다는 필요성들이 제기돼 왔다. 그 결실이 바로 이번 책이다.

〈반야심경〉은 원래 600권에 이르는 방대한 반야경을 압축했다. 그런 압축성 때문에 글자 한 자 한 자, 문장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대승사상의 정수를 담은 경전인 것이다. 물론 문자적 풀이는 이미 수많은 해설서들에서 밝혀 놓았으니, 그 말하는 바를 어림짐작하기 어렵지 않겠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대승, 아니 불교 사상 전반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경전을 어린이용으로 펴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우선 저자가 경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할뿐더러, 그것을 어린이들의 언어로, 어린이들의 정서로, 어린이들의 감성으로 다시 써야 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평생을 초등학교 현장서 아이들과 울고 웃고 함께한 현직 교장선생님이다. 게다가 이미 다수의 동화를 펴낸 아동문학가이기도 하다. 물론 젊은 시절부터 오랜 기간 불교공부를 해온 터이다. 어린이용 불서를 쓰기에 적격이고, 이미 몇 권의 저서도 있다.

저자가 이번에는 〈반야심경〉에 도전했다. 어떻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야심경 해설서가 여지껏 한 권도 있을 수 없는지, 한국불교에 대한 자괴감과 책임감을 느껴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물론 쉽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공, 무상, 연기 등 전문적인 불교용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부터……,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면서도 경전에 충실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 재미있는 일화나 예화, 이야기들도 가능한 많이 이용하였다. 설명도 문어체보다 구어체 형식을 많이 취했다. 또한 곳곳에 이해를 돕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예쁜 삽화들을 그려넣어 지루하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이 반야심경 해설을 통해 저자는 어린이들에게 행복해지고 지혜로워지는 방법, 즉 세상만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반야심경〉을 읽고 암송하기는 쉬워도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인내를 가지고 읽다보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목과 마음가짐에 눈뜨게 될 것이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려 최대한 노력
재미있는 일화나 예화 많이 사용
문어체보다 구어체 형식 취한 것 특징

이 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단순히 어린이 책에만 머물지 않는다. 반야심경에 대해, 그리고 불교의 핵심 가르침에 대해 알고자 하는 초보자나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 있더라도 반야심경 한구절을 능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인연따라 생겨난 것은 반드시 인연따라 소멸되지만, 반야심경은 세상이 멸하든 멸망하지 않든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이다. 어린이 들이 반야심경을 읽으며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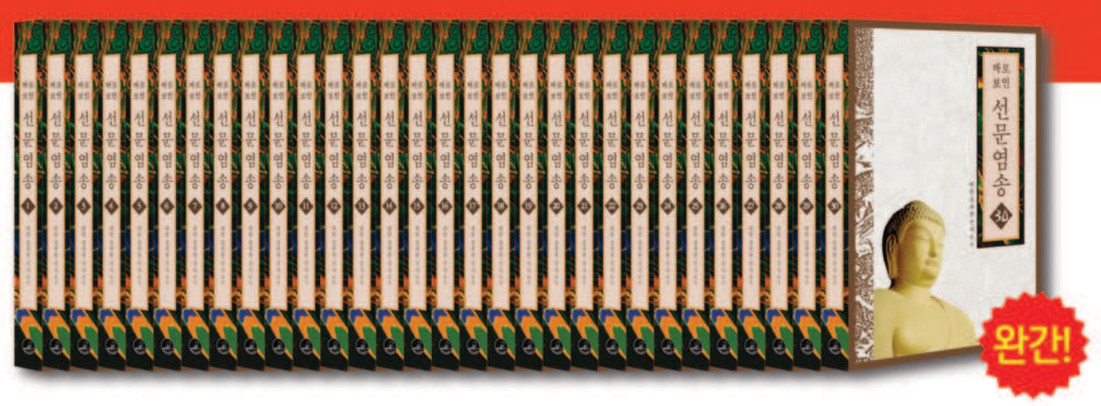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저자 민병직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였으며, 오랜 기간 불교교육기관에서 공부하였다. 충청일보와 대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나왔다. 좋은 동화를 쓴 작가에게 수여하는 아동문학세상 문학상과 교원문학상을 받았으며,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는 '올해의 불서 10'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쓴 책으로는 동화집 〈참외서리〉, 〈섬마을에 뜨는 별〉, 〈서울에서 온 촌놈〉, 〈삼팔선에 피는 꽃〉, 〈솔뫼골 장승제〉 등과, 교육서로 〈주니어라이브러리 문학〉, 〈머리를 물들여본 아이가 성공한다〉, 〈아이, 당신의 것이 아니다〉, 〈전생의 DNA를 찾아야 성공한다〉 등이 있다.

현재 경기 삼가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향기롭게 자라도록 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불조정맥 제78대 대원 문재현 선사님 73번째 저서 출간!!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각 칙마다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의 참 뜻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이다.

* 각권 15,000원 / 도서정가제에 따라 전권 구입시 15% 할인됩니다

〈도서출판 바로보인〉이 〈도서출판 문젠〉으로 개명되었습니다

MOONZEN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소이(SOY) 왁스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X 18㎜
연소시간 : 60~70시간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찾자

불안과 외로움을 다스리는 인생의 약상자

마스노 ˇ\묘 지음 | 김정환 옮김
담앤북스 펴냄 | 1만 3천원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불안할 것 같은 우리의 삶. 특히 매스미디어에서 연일 떠들어대는 '위기' '침체' 등을 들으면 불안과 외로움이 가중된다. 이를 떨치려 음주가무에 눈을 돌려도 나아지는 건 그때뿐.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뭔가 단단한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 이 해법에 목말라하는 이들이라면 이 책을 들여다보자.

책에는 일본 선승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스노 ˇ\묘가 오랜 수행과 상담 경험으로 얻은 38가지 처방전이 담겨져 있다. 그는 "인생은 불안이라는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것과 같다. 외로움이라는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온다"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곁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다만 "불안도 외로움도 전부 마음이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혜롭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 책서 불안과 외로움을 만들어 내는 강박 관념, 쓸데없는 생각, 집착, 열등감을 줄일 수 있는 처방전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지금 여기에' 몰입함으로써 행복을 키우는 방법도 전한다. 그의 처방전은 매우 쉽다. 또 실용적이다. 자신에게 맞는 처방전을 골라 실행에 옮기면 분명 내면의 안정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층 건물이나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자동차나 집 따위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아는데도 우리는 매사 안달복달한다. 늘 남들과 비교하며, 남들처럼 살지 못할까봐 불안에 떤다. 저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상, 세상의 상식이나 남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기란 어렵다고 말한다. 다만 실체 없는 '세상의 잣대' '평균값'에 연연하는 마음이 불안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나 집착을 줄이는 방법은 '나만의 잣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집중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승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며 성장해 가는 것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남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연한 태도를 뒤흔드는 건 쓸데없는 생각이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지?' '부장님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큰 병에 걸리면 어쩌지?' 알 수 없는 미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저자의 해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무상(無常), 즉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의 불안과 외로움조차 곧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면 쓸데없는 생각을 쉽게 흘려보낼 수 있다. 또 병이나 죽음, 자연재해처럼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련을 앞서서 걱정하는 대신 받아들이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쓸데없는 생각을 없애는 또 다른 해법은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다. 몸을 바쁘게 움직이면 불안이나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는다.

이밖에도 출퇴근길이나 사무실에서 오분간 좌선하기, 걱정을 멈추는 나만의 관문 만들기, 몸가짐과 말씨 정돈하기 등 저자가 제시하는 여러 처방전은 모두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무상의 진리와 더불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좀 더 열린 마음과 여유로운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과정에 떨어진 수많은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 불안과 외로움의 파도가 몰아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힘'은 불안과 외로움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약이 아닐까.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기로 마음먹으면" 누구나 평온무사한 나날에 깃든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과 가족 모두 건강하다는 것, 머물 곳이 있다는 것, 설령 혼자여도 평온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소중함을 매순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내면의 안정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삶이 계속되는 한 불안과 외로움도 지속
근본 원인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 내는 것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38가지 처방전
"평범한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저자 마스노 ˇ\묘는?
1953년 태어났다. 일본 조동종의 총본산인 소지지(總持寺)서 수행했으며 현재 일본 겐코지(建功寺) 주지이다. 이밖에 다마미술대학 환경디자인과 교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특별교수 등의 직함을 갖고 있다. 선(禪)을 주제로 한 정원 창작 활동을 펼쳐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원 디자이너로는 처음으로 일본 예술 선장 문부대신 신인상을 받았다. 2006년에〈뉴스위크〉일본판의 '세계가 존경하는 일본인 100인'에 선정됐다. 도쿄의 캐나다 대사관과 세룰리언 타워 도큐 호텔의 일본 정원 등이 그의 작품이다.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는〈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9할〉〈스님의 청소법〉〈심플한 생활의 권유〉〈삶의 품격을 높이는 1일 몸가짐〉 등이 있다.

책속의 밑줄 긋기

–"결과에 얽매이는 사람은 단순히 '결과'에만 얽매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세계'에 얽매인 것이지요. 하나의 세계에서만 살려고 하면 불필요한 불안이 생겨납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속박하기 때문에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인생은 좀 더 모호해도 괜찮습니다. 설령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노력한 자신을 칭찬해 주십시오."
〈강박 관념을 떨치는 약〉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 불안과 외로움은 그런 시간 속으로 몰래 숨어듭니다. 처음에는 문득 외로움을 느낍니다. 다음에는 왜 외로운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그 외로움은 불안으로 모습을 바꾸고,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납니다. 그리고 눈덩이가 지나치게 커지면 혼자 힘으로는 녹일 수 없게 되지요."
〈쓸데없는 생각을 잠재우는 약〉중에서

–"불안 또한 매일같이 변화합니다. 변하지 않는 불안감은 없습니다. 만약 똑같은 불안을 계속 안고 있다면 그 사람 자신이 마음의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변화에 주목하십시오. 자신이 놓인 상황의 변화를 깨달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대다수의 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불안을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잠재우는 약〉중에서

"아들러를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다"



오늘, 행복을 쓰다

김정민 엮음
북로그컴퍼니 펴냄
1만 2800원

"모든 괴로움은 다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이는 마음의 모든 평화와 행복도 다 내 마음이 만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를 떠오르게 하는 이 구절은 세계 심리학의 거장 중 한명인 아들러가 한 말이다. 크리스천인 아들러의 이론은 불교의 마음공부와 상당히 닮아있다. 그는 지금 여기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한다.

지난날을 점검하고 변화를 위한 시동을 걸고자 하는 이들에게 대단한 사랑과 호응을 받고 있는 아들러. 하지만 해설서가 아닌 그의 책은 전공자가 보기에도 쉽지 않다. 아들러의 책에서 가려 뽑은 김정민의 '행복과 긍정의 메시지'〈오늘, 행복을 쓰다〉는 이런 이유에서 탄생했다.

이 책은 심리학자도 아니고 아들러 전문가도 아닌 마흔 중반의 워킹우먼이 만난 아들러 이야기이다. 대입에 실패한 아들, 늘 매출에 신경 써야 하는 중소 출판사의 CEO, 조금씩 삐걱대는 인간관계, 불안하기만 한 노후의 삶 등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엄습해오면서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던 그는 아들러를 만나면서 삶의 긍정성과 행복,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지독히도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공황장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고백하건대, 내가 아들러를 만났던 지난가을은 내 안의 우울감과 불안, 열등감을 떨치려 부단히 애쓰며 그 터널 끄트머리에 서 있을 때였다.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다. 일하며 겪은 여러 문제들도, 인간관계의 크고 작은 갈등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도 결국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내가 선택한 걱정꾸러미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정확히 간파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남 탓, 환경 탓, 외부 탓을 할 수 없었다"

저자는 아들러의 책 십여 권을 집중적으로 읽고 공부한 뒤 좋은 글을 노트에 써내려갔다. 뿐만 아니라 행간에 녹아 있던 보석 같은 귀한 메시지들을 캐내 자신만의 언어로 한 자 한 자 기록했다.

"나 자신 돌아보며 삶의 주인공 돼라"
아들러의 행복과 긍정 메시지 99제

그는 자신만의 행복에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그를 살리고 힘을 내도록 용기를 준 아들러의 글과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책으로 엮었다. 이는 아들러가 말한 사회적 관심과 타인 공헌을 직접 실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저자는 지난 5월부터 매일 아침 108배 수행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공부도 시작했다. 또한 이 책의 판매 수익금 일부는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에 기부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와 물리학의 만남, 유부의 극미설 재조명



불교의 원자설

윤영호 지음
씨아이알 펴냄
2만원

유부의 극미설이란 "극미들이 상호접촉 없이 결합한다."는 주장으로, 불교 최초의 원자설이다. 이는 존재론, 인식론, 업론 등 교학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아비달마불교의 담론을 풍부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부 극미설은 불교지평에서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경부와 유식학파의 비판에 의해 불교 내부서 고루한 학설로 전락해버렸다.

그러나 유부 극미설은 서양 원자설의 시초인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보다 더욱 논리적 · 합리적 원자설이며, 놀랍게도 현대물리학에서 무방분인 점입자로 정의되는 소립자와 장입자를 매개로 한 소립자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방식과 친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유부 극미설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극미설 논의의 본격적인 주창자이자 비판의 원초적 대상자인 유부 극미설에 대해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유부 극미설의 성립배경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유부 극미설에 대한 분석, 유부와 경부의 극미설 논쟁, 유부 극미설에 대한 유식학파의 비판, 유부 극미설과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 비교, 유부 극미설에 대한 현대물리학적 해석을 다룬 후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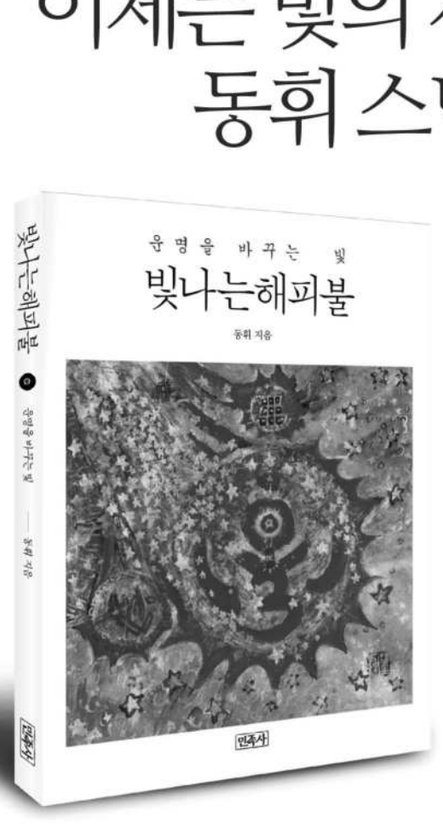
유부의 극미설은 물론 불교교학은 붓다의 교설이 정립되었던 역사적인 맥락과 그 과정을 고려할 때 결코 종파적이거나 교조적 담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제 사상들과의 대론을 통해 끊임없는 재해석의 역동적인 담론이 돼야 한다. 즉, 지나간 역사의 유물로서 단순히 문헌학의 텍스트로만 남아 있지 않고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체계는 항상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해석돼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이 다룬 담론은 유부 극미설에 대한 종론(終論)이 아닌 역동적인 담론의 시론(始論)이다.

유부의 극미설은 불교 최초의 원자설
유부 극미설에 대해 심층적 연구

김주일 기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이제는 빛의 시대, 사는 게 힘들고 답답한 이들에게 보내는
동휘 스님의 빛나는 희망과 행복, 성공의 메시지



우리 모두가 빛나는 해피불임을 일깨워 주는, 동휘 스님의 만다라의 세계!
그 빛나는 에너지가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빛을 의식하자. 그냥 계속 햇빛, 불빛, 부처님을 생각하고 밝은 쪽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된다.
나 역시 출가 이전 어둡고 추울 때가 있었다. 나 자신이 빛으로 치유했기에 그 에너지의 힘을 정말 잘 알고 있다. – 머리말 중에서

운명을 바꾸는 빛
빛나는해피불

동휘 스님 글 · 그림 :: 208쪽 :: 값 16,200원 :: 변형 신국판, 올 컬러 :: 민족사 펴냄

빛나는 해피불 북 콘서트
일시 2015년 9월 18일(금) 오후 2시~4시
장소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특별 출연 중견탤런트 이재용 씨의 빛나는 토크
공연 동휘 스님의 옴 퍼포먼스, 승무 등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신라인, 예술 통해 불국토를 재현하다

9. 통일신라, 불교문화를 꽃 피우다

한국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세계적 문화유산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려대장경과 고려불화를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완벽한 조형의 석굴암,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과 일명 무영탑으로 알려진 석가탑이 있는 불국사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실제로 석굴암과 불국사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로서 통일신라시대의 화려한 불교문화의 정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삼국유사〉에서는 신라의 수도 경주에 대해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았고 탑은 기러기가 줄지어 서 있는 듯했다"라고 기술하였는데, 휘영청 밝은 달밤에 웅장한 사찰과 우뚝 솟은 탑들이 연이어 늘어선 서라벌 거리를 상상해 보면 왠지 모를 아련한 감회를 느끼게 된다. 당시를 살았던 신라인들은 현실의 행복과 내세의 안녕을 이들 절과 탑에 가서 간절히 염원하였을 것이다.

통일신라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조형물인 불국사와 석굴암은 당시의 불교신앙과 신라인들의 꿈과 바람을 집약해 놓은 공간이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8세기 중반 재상을 지낸 김대성(700~774)이 전생과 현생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을 주도하였다고 한다. 진골출신인 김대성 가문은 2대에 걸쳐 재상을 역임하였고 성덕왕과 경덕왕대의 정국을 주도하였다.

불국사는 그와 일족이 사재를 내어 세운 절로 23년이나 공역을 지속했지만 미처 완공되기 전에 김대성이 죽어서 사후에 왕실에서 후원하여 완성되었다. 즉 시작은 김대성이 하였지만 결국 왕실이 중심이 된 국가 차원의 공역으로 준공된 것이었다.

그런데 김대성과 불국사, 석굴암 조영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다. 김대성은 원래 경주 모량리의 가난한 여인 경조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모친은 부잣집에서 품팔이를 하며 밭 몇 마지기를 받아 생활하였다. 하루는 흥륜사의 점개라는 승려가 "하나를 시주하면 만 배를 얻어 안락하고 장수할 것이다"라고 시주를 권하자 후세의 복을 얻기 위해 생활터전인 밭을 보시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대성이 죽었고 재상 김문량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는데 아이는 대성이라는 이름을 새긴 금으로 된 간자를 왼손에 쥐고 있었다. 간자는 점찰법회에서 전생과 현세의 죄를 참회하며 안락을 기원할 때 쓰는 도구였다.

또한 김대성은 전생의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살았다. 어른이 된 김대성은 사냥을 좋아해 토함산에서 곰 한 마리를 잡고 잠을 자는데 꿈에 곰이 귀신으로 변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죽였으니 나도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용서를 빌자 귀신이 자신을 위해 절을 지어달라고 하였고 그 뒤로는 사냥을 하지 않고 곰을 잡은 장소에 장수사를 세웠다. 그리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석굴암)를 조성했다고 한다.

불국사에는 진리의 상징인 비로자나불, 현세불인 석가모니불, 서방 극락정토를 주관하는 아미타불, 그리고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이 함께 모셔졌고 각각의 공간이 하나의 불국토로 조형되어 있다. 다만 청운교와 백운교 등 석조 건축물 외의 목조건물은 조선후기에 중창되고 최근에 새로 복원된 것이어서 원형을 그대로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간결한 형태의 석가탑과 화려한 다보탑이 웅장하게 어우러져 부처의 세계를 장엄하고 있다.

무영탑이라고도 불리는 석가탑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슬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석가탑을 만들 때 김대성은 당시 가장 뛰어난 석공으로 이름난 백제 유민 출신 아사달을 불렀다. 아사달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탑을 만들었고 세월이 한두 해가 흐르자 남편을 기다리다 지친 부인 아사녀가 불국사로 찾아왔다. 하지만 탑이 완성되기 전에는 여자와 만날 수 없다는 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조금 떨어진 연못에 탑의 그림자가 비칠 때 즉 탑이 완공되면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사녀는 하릴없이 남편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기다리다 지쳐 기력을 상실한 아사녀는 끝내 남편의 이름을 부르다가 못에 빠져 죽었다. 탑이 완성되고 나서 아사달은 그제야 아내가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달려갔지만 아사녀는 이미 죽은 뒤였다.

이에 사람들은 이 못을 그림자 연못이라는 뜻의 영지라고 하고 그림자가 끝내 비추지 않았다고 하여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 불렀다.

석굴암은 과학적 설계와 극치의 예술적 조형으로 유명한데, 이는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석굴사원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면서도 완전한 인공석굴이라는 점에서 독자성을 띤다. 석굴암의 본존불은 돔형의 석굴 중앙에 동쪽을 향해 앉은 석가모니불로서 정각을 이룬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고 한다. 10대 제자상과 11면 관음보살상에 둘러싸인 석굴암 본존불의 숭엄한 아름다움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종교적 경외심을 갖게 한다.

그동안 석굴암의 배치와 구조, 조성 원리와 목적 등을 둘러싸고 수많은 학설이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석굴암이 천상의 초월적 존재인 천인들을 위해 만든 천궁이며 본존불은 석가가 모친을 위해 설법하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김대성이 스승으로 숭모한 화엄학승 표훈의 일승세계론, 즉 해인삼매로 표현되는 부처의 깨달음이 보현보살을 통해 중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신앙이 상층부터 기층민까지 확산되면서 사찰뿐 아니라 죽은 이의 명복을 빌고 산 자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탑과 불상, 종 등이 다수 조성되었다. 황복사 탑(692년), 석남사 비로자나불상(766년), 성덕대왕 신종(771년) 등 간절한 기원을 담은 거대 불사가 이어졌고 이는 화려한 불교문화의 전성기를 꽃피웠다. 그 중 성덕대왕 신종은 일명 에밀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에밀레종의 전설은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근대기에 들어 채록되어 인구에 널리 회자되었다.

부왕인 성덕왕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효성왕이 경주 북천 가에 봉덕사를 창건하였고 성덕왕의 또 다른 아들인 경덕왕은 종을 주조하려 하였다. 이때 한 승려가 민가를 돌면서 보시를 받았는데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아낙네가 가난하여 시주할 것이 없으니 애라도 가져가라고 농을 하자 듣고 그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대종의 주조 작업은 계속 실패로 돌아갔고 어린애를 바쳐야 종이 완성된다는 일종의 계시가 있었다. 이에 승려는 그 아낙네의 집을 찾아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쇳물에 넣었고 마침내 종이 완성되었다. 이후 종을 치면 아이의 원혼이 울어서 에밀레라는 종소리가 났다고 한다.

통일신라의 수준 높은 불교문화가 낳은 또 다른 자랑거리는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로 알려진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다. 이는 한 축의 두루마리로 말려진 너비 약 8㎝, 길이 약 620㎝의 경전으로 목판으로 인쇄되었다. 1966년 불국사 석가탑의 해체, 복원공사 때 2층의 사리함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간인 연대는 석가탑 건립연대의 하한선인 751년 이전의 8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판인쇄물로 알려져 있던 일본의 〈백만탑다라니경〉의 770년보다 20년 이상 앞서는 셈이다. 그런데 이른 시기부터 이러한 다라니류의 경전이 인쇄된 이유는 그 수요가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신라에서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 의거해 탑을 만드는 것이 유행하였고 그 안에 사리와 함께 소형 탑과 다라니를 넣어 극락정토로의 왕생을 기원하였다. 창림사, 동화사, 보림사, 해인사 등에 세워진 왕생 기원 탑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큰 불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했는데, 신앙 및 수행 공동체인 결사가 조직되어 불교신앙을 실천하고 공동으로 불사의 재원을 마련하였다. 아미타 정토신앙에 의거한 염불결사는 8세기 중반에 이미 성행하였는데 경덕왕대의 만일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865년 철원 도피안사의 철제 비로자나불상을 조성할 때 작성된 "비천한 이들이 긴 어둠에서 깨쳐날 것이며 게으르고 추한 뜻을 바꾸어 진리의 근원에 부합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거사를 찾아 1,500명이 인연을 맺어 쇠와 돌과 같은 굳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불사에 힘써 힘들 줄을 몰랐습니다"라는 기록을 보면 당시 결사에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지방 단위에서는 종교적 성격의 향도가 결성되어 경제적 보시와 불사를 행하였는데,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어 뒷날의 보응을 기원하는 매향을 위한 향도 조직이 다수 생겨났다.

사찰과 탑, 불상과 종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자가 필요했는데 그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사원 장인이 존재하였다. 불교의 전래와 함께 사원 건축기술, 불보살상 조영에 필요한 조각과 회화, 경전 조성을 위한 종이와 먹 등의 제작기법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당시 최첨단의 하이테크 기술과 선진 문물이 동시에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급기술을 가진 전문 장인들은 박사, 장으로 칭해졌고 삼국에서 일본에 불교문화를 전할 때도 교학을 연찬한 승려 외에 이들 기능장의 역할이 컸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사원의 조영과 중창을 담당하는 관청인 사원 성전이 있었고 승려 장인과 속인 장인이 공동 작업을 하였다. 또한 큰 사원의 경우 자체 승장(僧匠)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승직체계를 운영하여 분업과 조직화를 이루었고 전문 기술과 기능이 후대로 전수될 수 있었다.

신라를 대표하는 승장으로는 불세출의 조각가이자 서화가였던 양지를 들 수 있다. 7세기에 활동했던 그는 석장사, 영묘사, 법림사 등의 불상과 신장상, 전불 등을 조성하였고 사천왕사의 탑 기단부를 장식한 녹유소조상도 그가 조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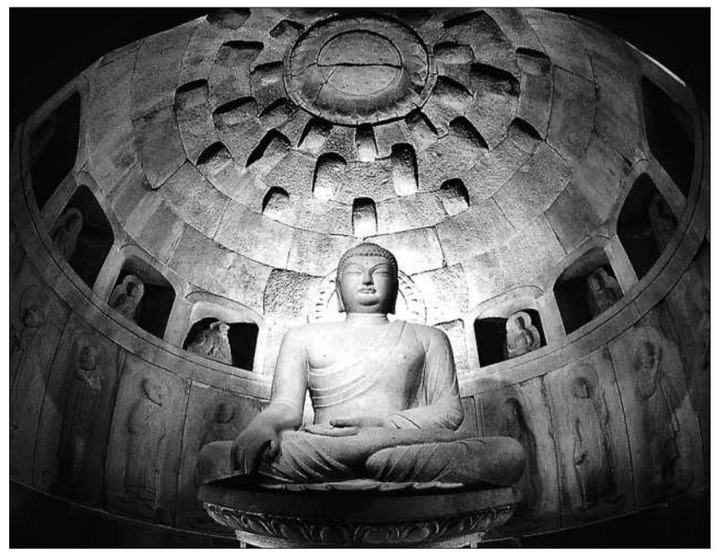
그런데 그의 출신과 생몰년 등 자세한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삼국유사〉에는 그가 지팡이에 포대를 걸어두자 지팡이가 저절로 시주받을 집으로 날아가 흔들흔들 소리를 내었고 포대가 보시물로 꽉 차면 지팡이가 되돌아왔다는 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양지는 신비의 베일에 싸인 인물이었고 이질적인 뛰어난 조각기법 때문에 그가 서역 출신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났고 최근에는 동남아에서 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한편 양지가 영묘사 장육삼존상을 조영할 때 성 안의 남녀들이 다투어 진흙을 날라 와 쌓으면서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서럽도다. 서럽도다 우리들이여. 공덕 닦으러 오라"는 내용의 풍요를 지어 불렀다고 할 정도로 당시 그의 명성과 인기는 대단하였다.

신라 사회에서 불교문화의 확산은 향가의 성행과 그것을 기록한 향찰 표기에서도 확인된다. 향찰은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 고유어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신라와 고려시대 향가 기재에 사용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현실을 벗어나 서방 극락정토로 왕생하기를 희구하는 광덕의 '원왕생가', 미륵보살에 대한 곧은 마음과 믿음으로 이변의 극복을 염원하는 월명사의 '도솔가' 등 불교적 서정을 노래한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월명사가 죽은 누이의 사십구재를 지내면서 부른 노래인 '제망매가'는 "생사의 길은 여기 있음에 너와 나를 갈라서게 만들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 이르고 가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 나서도 가는 곳을 모르는가. 아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고 하여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서 서로 만나기를 바라는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사진 왼쪽)와 석굴암(사진 오른쪽). 통일신라시기에 조성된 불국사와 석굴암은 당시 불교문화의 정수이자 신라인들의 신앙의 집약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불국사 · 석굴암, 당대 문화 정수
불교신앙과 신라인의 발원 집약
애절한 사연담긴 성덕대왕 신종
最古 목판인쇄물 무구정광다라니
사찰 중창 · 창건 담당 관청도 운영
다양한 분야서 화려한 발전 이뤄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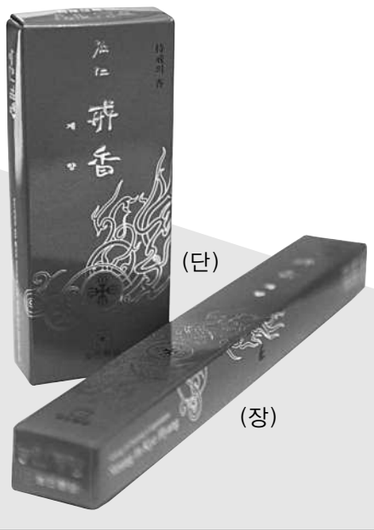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단)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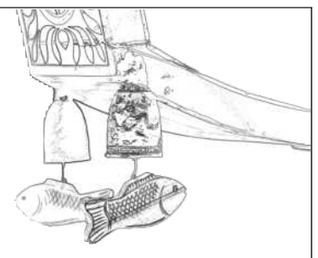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천 겁의 긴 시일 속에서도 부처님 만나기란 아주 어렵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명호을 듣고 부처님께 귀의해야 한다.

- 대방광불관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약사여래불사 권선문
약사여래 부처님은 왜 해야 하는가? 약사여래 부처님은 모든 장애와 두려움과 곤란을 없애주시고 모든 나쁜 질병과 고통을 없애주시며 모든 좋은 일을 소원 성취시켜주시는 신비한 부처님이시다.
성원사 (제주시 도련길 66)
064-783-2092, 010-9267-2092,
011-699-2616
우체국 510446-01-000934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정확한 방편술
한권의 책으로 방편술의 전문가가 되어 보십시오
정가 25만원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스님을 찾습니다
울산 연암동 만덕스님
군위 고원사 혜일스님
연락주세요
김국희 010-9208-3835

미륵불 (대형)
알 림
010-4630-8005

명리첩경의 저자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리공부와 수련 하실 분
010-3054-3345
전화 상담환영

비구니 부전스님
구합니다
011-9514-3721

도심 속 사찰,
비구니 기도스님
(염불기도) 구합니다
010-3160-2838

기도 예불스님 구함
절에서 심부름 공부할 행자 구함
절에서 예불드릴 처사 구함
노장스님 환영
(부산 절)
010-3840-43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수성구, 60대 전)
010-3500-697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961-5498

신심깊은
노보살님
모십니다
010-2078-9595

기도스님
모십니다
(부산, 60세 이하)
010-7311-5335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대전, 50-60대, 부부환영)
010-5209-7420

특수한 기도법
- 하루 만에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불교무용 특별지도
바라춤,극락무,나비춤,
살풀이,법고,승무 등
30년 경험 선생 직접지도
수강료 : 십만원/월(선착순)
010-3711-5072
부산 서면역 부근 반야선원

등산 포교선원 지부
바둑,태권,등산,종교시설,주택,
아파트,사무실,사설암자
월수2백보장. 매월 회비 납입
경기 오산시 오산로 62번길 8
031-373-1120 (오후 6~8)
등산 포교선원 다르마 사업부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최면과 기공술을 특별 전수합니다
대한불교약사불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오
010-9229-3801

사무장 (원주보살) 모십니다
· 지 역 : 부산 남구 대연동 소원사
· 급 여 : 130만 (보너스 200%)
· 컴퓨터 사용 가능한 보살님
· 마 감 : 9월 30일까지
· 연락처 : 정암 전종민
010-9911-1890
대한불교조계종 부산 황령산 소원사

인 연 명 리
삶은 인연생, 인연멸입니다!
· 영가 찾고 보는 법 / 매화역수, 속성반 모집
· 명리기초반 (10월 개강)
· 명리 통변반 (현재 강의 중)
* 지금 내앞에 있는 인연이 가장 소중합니다!!
정인스님 010-4047-0134
(서울 광진구)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재앙 공포 위급한 사태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는 감당할 범위 안에서 힘을 다해 구해 줌으로써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어야 한다.

- 기신론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1,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 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 (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경주시 급 양도 사찰
- 청정계곡 접 토지 약 6400㎡
- 기와단청법당.단청산신각.지장전.요사채
- 양도금액 : 9억(융자 5억 있음)
- 실인수가액 4억. 주변산세 좋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7호선 사가정역 근처
- 평수 : 4층 54평, 방4개, 내부화장실 2개
- 보증금 : 3,000만원 월 임대료 130만원
- 시설비 별도. 상담 후 결정 (법당 집기류외, 에어컨 2대, 냉장고 2대 TV 등 기타 모든 집기류 포함)
- 기존 신도가 있으니 몸만 오셔서 법회 보시면 됩니다

010-7144-0066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경기
◎ 대지:60평 ◎ 종교용지:220평
◎ 법당:30평 ◎ 법당:50평, 요사:60평
◎ 요사:60평 ◎ 차량진입, 신도시
◎ 양도:9억원 ◎ 양도:6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단양시토굴 암자 급 양도
* 요사채 80㎡, 토지 4500㎡. 과실수있음
* 뒷편은 산이고 전망좋은 토굴겸암자
* 양도가 : 2억 7천만원.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신축 한옥 주택

땅을 알고 터를 잡은
산 자락에 예쁜 한옥
이웃환경 좋은 마을

- 위치 : 경남 창녕 부곡 부곡리
- 대지 167평, 건평30평, 목조, 기와
- 가액 : 2억 7천 5백(황토방, 정자)

010-3703-58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총평수 : 373평
- 건물, 법당
- 요사채 합 50평
- 가액 : 1억 7천만원

010-8034-8309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 매각(가격 협의)

010-5097-3468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문경 관음리
- 지목 : 전, 면적 : 221평
- 토지이용 : 생산관리지역
- 금액 : 1억원(목재 석재 포함)
- 참고사항 : 백두대간 포함산 주변 2차선 도로에서 200m 거리이며 지적도상 도로 구거와 연결되어 있고 양쪽은 산이며 입구 주택 3가구 까지 차량통행 주차가능 주택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완료 15톤 덤프 레미콘 차량 출입 가능

연락처 : 010-8555-448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돌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포교원(급)안내

- 위치 : 포교원 최고의 위치
- 부산 서면역 5분 거리(부전시장)
- 5층 건물에 4층 47평(엘리베이터)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후불탱화 108호신불, 시설완비,
- 강의실(명리학, 불교대학, 불교의식)겸 공양실, 종무실, 주지실, 화장실(남녀)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삼천오백중 일부(급이전관계)

문의전화 : 010-3711-507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123번지
- 화재로 요사채 전소 , 산신각, 미륵불상
- 암반수, 전기
- 대지 1,240평
- 가액 : 9,000만원

010-3763-280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청평 한옥 주택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 (큰방 1, 작은방 2 중 1개는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암자나 토굴 교환 가능
- 가액 2억 6천만원

주인직 : 010-9411-5302

포교원 임대

- 위치: 안산 시내 위치좋은 역세권
- 교통편리 유동인구 많고, 포교원 운영으로 최적지
- 상가형성 잘되어 입지조건 좋고, 일체행사 민원없음
- 전철, 농수산물시장 10분거리
- 4층 전체(엘리베이터), 실평수 60평
- 법당, 상담실, 요사채, 다용도 공간, 주방,욕실, 쾌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 월 90만원 시설비 3,300만원(상담시 가격절충 가능)
- 절살림 준비 잘되어 있어 바로 여법하게 법회가능 옥상활용(기도, 행사) 너무 좋음
- 현대 원활히 운영중이며, 불사관계로 소입을 맡아 급하게 내놓습니다

010-5913-7239 일연스님
010-3145-8626 종무소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아미타, 지장, 관음, 삼존불, 소불, 인등, 연등, 후불탱화
- 집기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일부 보시함 약 40평
- 가액 : 시설비 5백만원, 절충가능 전세금 삼백만원에 월세 오십만원 좋은 인연 만나길 바랍니다 명리, 철학 호 조건

010-4609-4377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 가액 : 6억 8천만원(1억8천 융자)

010-6898-911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송추계곡 근방
- 2층 건물 중 2층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백만원
- 시설비 : 2천 5백만원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면지역
- 대지 : 120평, 전 390평
- 법당 : 목조 13평
- 요사채 : 26평, 종무소 6평, 산신각
- 가액 : 1억 8천만원

010-9231-6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 가액 : 3억 6천
- 대지 : 1408㎡ (약 425.92평)
- 임야 : 340.49㎡(약 103평)
- 전 : 287.60㎡(약 87평)
- 경내로 청정한 개울이 흐르고 있음

010-5479-5779

포교원안내

- 위치 : 김해 김수로왕능과 공원사이 (김수로왕능이 한눈에 보이는 전경)
- 평수 : 2층 50평(상가건물)
- 시설 : 포교당 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3628-1156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
- 부지 종교용지 1,700평, 산 4,130평 합계 5,830평
- 대웅전 35평, 요사채2층 80평, 지장전 45평
- 양평시내(남한강이 보이는 전망 양호)
- 주인직접 (매수, 전세 : 계약 후 분할 납부가능)

010-4225-0012
02)403-3333

포교원(급)안내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위치 : 경북 경산시 진량읍
- 평수 : 52평, 3층중 3층, 옥상 사용가(소대)
- 법당 : 상단(삼존불, 후불탱화), 신중단(탱화) 산왕단(탱화), 영단(천혼단)
- 요사 : 주지실1, 사무 친견실1, 방사2 후원, 공양간 각1개, 차고 2대이상
- 가액 : 보증금 3백, 1년 월세 2백 시설비, 집기일체 5백만원

※온난방 완비, 월 전기세 3만 미만

010-2329-1424 (주지직)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수영구 망미 2동 팔도시장 인근
- 3층 중 2층 약 48평
- 시설 일체 완비, 몸만들어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44만원 시설비 11천 8백만원

010-3868-743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기 화성 산밑 전원주택다수
- 민원 없이 즉시 예불 가능
- 토 230평 인법당 단층한옥 52평
- 가액 : 4억 전세 월세도 가능

010-9470-4207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로 11-1
- 아담한 법당
- 포교활동 최적지
- 평수 : 30평, 3층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월30만 시설비 2,000만원

010-7740-600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사천시내 5분거리
- 대지 175평, 법당 13평
- 요사채,방2개,주방1,거실
- 양도가 : 7천 8백만원 시설비 500만원

055-833-5769
010-8503-576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 관음전, 종각
- 요사채, 방 총13칸, 공양간, 창고, 차고 외 부하장실 등등 건물 총 13동
- 대형버스주차장,소형차주차장 등
- 가액 : 3억 9천만원

010-4628-5699
스님 건강 문제로

사찰 싸게 (급)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계성면 화왕산로 (화왕산 군립공원 입구) IC에서 8분
- 목조단청, 전통토기와, 대웅전25평,부지600여평 (종교부지,3필지)
- 요사채 (60평), 칠성각, 산신각,석탑,심야보일러,창고,텃밭경작
- 산밑에 도로 인접(뒷산, 소나무울창) 150m암반수 및 상수도
- 가액 : 대출 7천안고 양도금액 2억8천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연락처 010-3149-4478
(스님건강상 문제로 급 양도)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논산시
- 목조법당 42㎡, 목조 공양간 40㎡, 스님실 8㎡ 요사 50㎡, 토지 400㎡
- 논산 IC 부근 마을 주변 조용하고 깨끗함
- 가액 : 1억 2천만원 (3천 4백만원 융자있음)

010-9918-7937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시 소재
- 대지 1,030평, 법당 30평
-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100평 3동
- 산속 조용한 사찰
- 가액 : 5억 7천

010-6766-5506

사찰 터 및 전원주택 안내

- 위치: 경기 양평 용문역에서 서가원 2㎞
- 임법당 있음
- 좌청룡 우백호 최고의 풍수대지 대지 500평, 연못, 정원수 30년생 100여수
- 교통최적 청량리 - 용문 20분간격 전철운행
- 주위에 영어마을 국공립 유치원 집 옆 국유지가 동산처럼 붙어 있음
- 가액 : 5억

010-2705-0365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동대구역 동대구 시장부근
- 대로변, 교통요지, 철학 및 포교의 최상위치
- 평수 60평, 4층 건물의 4층
- 법당 큰방1, 친견실1, 거실, 주방 화장실2
- 시설 올수리, 난방 도시가스 사용
- 법당 집기류 에어콘 냉장고 등 가정살림 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250만원

053-943-5959

수양관(암자)안내

- 위치: 대전시내 보문산
- 대지: 10평, 건물 40평
- 가액: 2억 9천
- 대지: 168평, 건물 100평
- 가액: 4억
- 꼭 필요하신분께 양도 (대한병원 5분거리)

010-5407-8034

큰사찰 및 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경치 좋은곳
- 1만평 33,000제곱미터 평당 10만원
- 1만평 개인분할 등기 진행중
- 답사후 결정 주인직접
- 현재 사찰운영중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조립식건물
- 주차장 넓음
- 양산시내 및 고속도로 지하철 25분거리 부산, 울산, 김해 1시간거리

010-3879-2544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2차선 대로변 2층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소불
- 영가단, 종, 음향시설, 냉 난방기, 조명 등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는 방문 후 상담. 방 없음
-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053-651-1514
010-2500-1514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마산시 진동고성방향 국도변
- 대지 : 약150평, 건평80평, 1~2층 양옥 기와집
- 법당 : 20평, 주지실1, 경내주차15대, 해우소5개
- 요사채 40평, 공양간2평, 별도다용도실30평
- 창원, 마산 7분거리, 비구니스님, 법사, 철학, 최고위치
- 가액 : 1억2천백만원(1억7천3백만원 대출안고) 절충가능 보증금 7천만원, 월35만원. 월세도 가능 시설비없음

010-8846-7090
010-2646-4050

농가주택 (토굴)

- 위치 : 경기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 건물 2동
- 가액 : 4천 5백만원
- 문중땅이며 건물만
- 건물 등기 있음

010-9849-7727
덕산 합장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 25평
- 친경방2, 공양간, 법당 삼존불, 집기일체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5042-1003

암자 임대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읍 용산리 567-2
- 저수지에 위치해 있음
- 1층 식당, 2층 살림집, 3층 법당
- 현재 스님이 미국으로 가게 되어 스님이 내놓은 3,000만원에 전세 임대합니다.
- 다만 손보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 참고 : 현재 연탄보일러임

010-8947-6142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시 의장구 도계동
- 평수 : 40평 4층 건물 중 3층
- 전통시장 입구 및 최고 요지 (현 성업중)
- 포교원 시설 완비 (상담 미 방편 요지 최고 적지)
- 전세: 1500만원 /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3118-117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사찰 및 요양원 안내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요양지

- 사찰 -
- 위치: 경남 밀양
- 2층: 법당 3존불(25평)
- 1층: 칠보관음궁전 천불상(30평)
- 요사채 45평. 큰방 3개 황토방 1개

- 요양원 -
- 1층 90평, 2층 90평
- 입소정원 25명, 현원 24명
- ※요양원만 분리 양도 가능

총 대지면적 약 900평 / 가액: 21억

010-9567-0813

마산 암자 안내

- 위치 : 무학산 입구, 주차편리
- 2층건물, 1층 법당, 2층 방 2칸, 친견실 별도
- 특징 : 37년간 암자로 사용 삼존불,용왕당,에어컨 등 건물 깨끗함(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시설비 1천만원, 보증금 800만원,월세15만원 (주변임야 활용가능)

010-7169-987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5억8천만원 (대출 2억8천 안고 양도금액 3억)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신녕면 매향리
- 팔공산 뒷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풍경과 조용한 기도도량임
- 대지 : 337평 시유지포함 700평
- 법당 : 20평, 요사채:50평
- 가액 : 9천5백만원 (불상 및 집기일체포함)

053-986-1080
010-9361-556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 일체완비
- 주차 시설 좋음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 4천만원

010-3937-3020
010-3123-311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시장 근접
- 2층 80평
- 법당.방3개 부엌1. 화장실3개
- 삼존불. 후불 일체
- 보증금5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1.800만원 조정가능

010-5942-2032
070-8844-203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부시장 경남 양산시 중부동 429-7(2층)
- 평수 : 80평
- 대법당 삼존불 탱화
- 실내화장실 3개, 부엌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9945-2030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마음 다이어트

김대선 (명상 지도자)

〈7〉 명상, 어디서 어떻게 하나

공간 · 빛 · 방향 '3박자' 명상효과 높인다



명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

명상이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호흡하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 운동법이다. 일반적인 운동이 근육의 움직임을 이용한다면 명상은 정중동으로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마음이 움직이도록 유도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의 바른 자세를 통해 기혈이 원활히 순환되도록 관절 운동을 10분 정도는 하는 것이 좋다.

명상 자세는 앉거나 눕거나 서거나 관계없으나 척추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척추의 커브 곡선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의자에서 엉덩이를 약간 앞으로 빼고 앉아 가슴을 펴면 허리가 바르게 세워진다. 턱은 몸 쪽으로 약간 당기면서 고개를 들어 수평을 향하도록 한다. 둘째, 무릎은 90도 정도로 하여 발바닥이 바닥에 고루 닿도록 한다. 무릎과 발은 붙이는 것이 좋으나 불편하면 무릎과 양발이 같은 넓이로 조금 벌어져도 된다. 셋째, 양손은 깍지 끼고 손바닥을 아랫배에 붙여 놓는다. 불편하다면 손바닥이 위로 가게 하여 무릎에 올려놓는다. 넷째, 마음의 눈으로 아랫배를 바라본다. 이때 머리를 숙이지 않도록 하고 시선이 실제로 아래로 향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아랫배를 날숨에 집어넣고 들숨에 앞으로 내밀며 호흡을 반복한다. 여섯째, 아랫배로 호흡을 하면서 내쉬고 들이쉬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호흡 시간은 3초 내쉬고, 3초 들이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 나간다. 날숨에는 자신 안의 모든 탁기가 발바닥으로 빠져나가고 들숨에는 맑은 우주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명상한다. 일곱째, 명상을 마무리할 때는 자신에게 '사랑한다', '수고했다' 인사하고 수공을 하며 마무리한다.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공은 명상을 하는 동안 자신의 주변에 형성된 기운을 아랫배로 모아 주는 동작이다. 양팔을 옆으로 벌려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린 후 양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자신의 기운을 단전에 모은다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한다.

명상 초보자들은 하루 중 시간을 정하여 아침이나 저녁에 관계없이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여유 시간에 잠깐씩 해도 무방하다. 하루 동안 몸을 움직이며 활동했기에 저녁에 명상을 하면 초보자가 집중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잠들기 전에 자리에 앉아 합장 명상이나 주머니 명상을 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고민과 근심을 비우면 쉽게 잠들 수 있다. 다음 날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

명상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밤늦은 시간이 아닌 의식이 깨어 있는 동안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조금씩 익숙해지면 아침에 명상으로 시작해서 저녁에도 명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해가 뜨는 아침은 하늘의 시간, 낮은 하늘과 인간의 시간, 저녁은 인간의 시간이라고 한다. 자시(子時)를 의미하는 밤 11시는 뇌의 휴식을 위해 잠을 자야하는 시간이다. 예부터 자시는 귀신의 시간이라 하여 무속인들이 수련하는 시간이므로 늦은 밤에 명상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하루 중 자신이 힘들어하는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명상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이른 새벽과 아침이 힘들다면 목기인 간과 담의 기능이 약한 경우다. 오전에 힘들어 출근해서도 비몽사몽에 빠지는 것은 화기인 심장과 소장의 기능이 약한 사례다. 한낮에 점심 식사를 전후하여 힘든 것은 토기인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약화된 것이며, 식곤증은 체력이 부족한 상태다. 오후는 금기의 폐나 대장과 관련이 있음, 저녁에는 수기의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힘들 수 있다. 명상을 통해 오행의 기운이 조화되고 균형이 잡히면 평소 힘들던 시간대에도 문제없이 지낼 수 있다.

어느 방향으로 해야 좋은가

깊이 명상을 하고 싶다면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집이나 사무실 등 장소에 관계없이 잠시라도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혼자 명상을 할 수 있는 곳이면 된다. 집이라면 방이나 거실 등 위치는 관계없으나 주변을 정리해 놓아야 한다. 주변이 지저분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까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책이 많은 서재는 다양한 파장이 혼재되어 있어 명상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명상하는 데 적합한 환경은 공간, 빛,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명상을 하기 위해 좋은 공간은 명당의 구조를 가진 곳이다. 풍수에서 명당의 위치를 배산임수라 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앞이 트여 막히지 않고 뒤와 좌우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명상을 할 때는 자신의 앞이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고, 벽에 딱 붙어서 마주보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명상센터에서 보면 구석에 앉아 인상을 쓰면서 달마 대사께서 동굴에서 했다는 면벽수행은 전문 수행자가 고비를 넘기 위해 극기로 도전할 때 하는 것으로, 초보자가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명상을 하는 데는 자연광 정도의 밝기가 가장 좋다. 너무 강한 불빛은 방해가 된다. 너무 어두운 곳에서 하는 것도 정신을 밝게 하고자 하는 명상에 적합하지 않다. 벽면의 한 방향에서 오는 빛도 몸의 감각을 한쪽으로 쏠리게 하기 때문에 감각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좋지 않다. 우리 몸은 해바라기와 같아서 빛이 왼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시선과 몸이 돌아가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몸이 좌우나 전후 불균형이 심하고 취약한 쪽에 불빛이 있으면 균형이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명상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이다. 좌측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빛이 있는 것도 좋고, 우측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좌측에 빛이 있는 것이 좌우 뇌의 균형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을 준다. 방안의 빛은 사방에서 고루 비추는 것이 몸과 정신 건강에 좋고 명상에도 도움을 준다.

셋째, 명상은 해가 뜨는 동남쪽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 햇빛과 함께 아침의 맑은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명상을 하면서 기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단계에는 동서남북의 방향을 바꿔서 해 보면 조금씩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명상을 하면 된다. 다만 남향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간과 담장에 질병이 있을 때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맑은 기운을 간담으로 받아들이고 탁한 기운을 날숨을 통해 내쉬도록 소개한다. 마찬가지로 심장과 소장은 남쪽, 폐와 대장은 서쪽, 신장과 방광, 생식기는 북쪽을 향해 명상한다. 비장과 위장은 방향과 관계없다. 나는 부족한 열정을 채우기 위해 남쪽을 향해 명상을 하고 잠을 잔다.

명상시 척추 커브곡선 돼야
초보자는 저녁시간 효과적
탁 트인 명당서 집중 잘 돼
건강상태 따라 방향 달리해야

명상은 마음의 힘으로 몸과 주변의 환경을 극복하려는 훈련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다면 원하는 환경을 상상하면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이 트인 방향이 서쪽인데 남쪽이라고 상상하면서 명상을 하는 것이다. 도심에서 명상을 하더라도 백두산 천지에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마음의 힘이 커질수록 주변 영향을 적게 받는다.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다 보면 그곳에 자신이 가진 기운의 장이 형성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명상이 잘 된다.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자세만 정확히 취해도 수련의 30%가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로 명상에서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정돈된 자세는 명상의 기본이다.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자세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일수록 정확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유연하지 않고 근육의 힘이 부족하다면 장시간 동안 한 가지의 명상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몸의 유연성과 근력은 수련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명상에 앞서 몸의 모든 관절을 풀어 주고 오행의 균형을 잡아 주는 오행체조를 20~30분 정도 하게 된다. 자세와 관계없이 의식과 시선을 단전에 두고 초보자는 눈을 지그시 감는 것이 집중하는 데 효과적이다.

명상은 어떠한 자세로든 가능하지만 목적과 효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아랫배 호흡을 익히고 기운을 모으기 위해 누워서 하는 '와공'이다. 사람이 피곤하거나 잠을 잘 때 주로 눕는 것처럼, 눕는 동작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신체의 대사 활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몸을 유지하기 위한 기운 소비가 줄어든다. 와공 자세를 취하려면 바르게 누워서 양발을 서로 붙이고 손은 가볍게 단전에 올려놓는다. 베개는 베지 않는 것이 좋고 가급적 온몸이 모두 가볍게 바닥에 닿도록 한다. 바닥은 약간 딱딱한 곳이 좋다. 몸을 이완하려면 팔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리는 약간 벌려서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지만, 와공으로 기운을 모으기 위해서는 팔다리를 모두 모아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인체의 혈과 경락을 열고 몸을 단련하기 위해 서서하는 '입공'이다. 서서하는 명상 자세는 몸을 단련하고 강화시키기 때문에 '신법(身法) 수련'이라 한다. 신법 수련은 정확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몸의 근골격계를 바로 잡고 혈과 경락을 열어 스트레스로 인해 생성된 탁기를 제거한다. 피부, 근막, 근육에 쌓여 있는 탁기는 움직이지 않고 30분 이상 유지할수록 많이 받거나, 혈이 많이 막혀 기혈 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때 신법 수련을 하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몸의 근육과 골격이 바로잡히면서 마음의 균형도 조금씩 잡혀나간다. 신법에는 몸 안의 혈을 열고 독맥을 통해 기운을 유통시키는 '독맥 명상'과 몸의 외부로 통하는 혈을 열고 경락을 유통시켜 자연과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주천 명상', 몸의 기운을 바꾸어 주고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지수화풍 명상' 등이 있다. 자세는 뒤쪽 수련법을 참고하면 된다.

셋째, 의식을 확장하기 위해 앉아서 하는 '좌공'이다. 명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세로, 장시간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는 데 효과적이다. 앉아서 하는 수련을 '좌공'이라고 한다. 이는 기운을 유통시키고 집중해서 마음을 비우고 조절하는 명상 자세이다. 엉덩이를 바닥에 놓고 앉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어놓고 왼발을 위에 올려놓는다. 이때 양발 중 한 쪽이 앞으로 나오지 않아야 하고, 양 무릎이 가급적 바닥에 닿는 것이 좋다. 양 무릎의 높이가 같아야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을 때 좌우에 균형이 잡히기 때문이다. 가슴을 펴고 상체를 앞쪽으로 숙여서 엉덩이를 약간 뒤쪽으로 보낸 후 다시 상체를 바로 세운다. 좌우 엉덩이에 같은 느낌이 나도록 상체를 좌우로 움직여 균형을 잡아 준다. 상체가 뒤로 넘어가면 엉덩이가 짓눌리고, 앞쪽으로 과도하게 숙이면 다리에 무게가 쏠려 명상하는 동안 계속 움직이게 된다. 상체를 5도 정도 앞쪽으로 기울여 무게중심이 자신의 아랫배에 오도록 한다. 무게중심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아랫배에 집중할 수 있다. 움직이지 않고 오래 명상하기 위해서는 앉을 때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하면 엉덩이뼈의 뾰족한 부분이 아니라 항문과 생식기 사이의 회음형을 바닥에 밀착시키고, 척추를 꼿꼿이 편 상태에서 머리의 정수리인 백회와 회음이 일직선이 되도록 상체를 5도 정도 앞으로 숙이고, 고개는 약간 들어 하늘을 향하도록 한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마음 다이어트〉(책나무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탈 종 공 고

• 법명 : 양명(박승철)

• 승려번호 : 0189-2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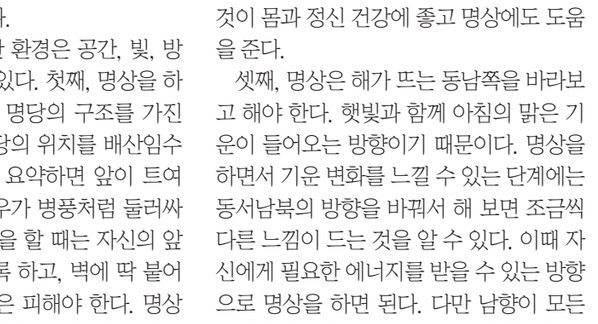
• 주소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외율10길 60-104번지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대한민국 새로운 장래문화
분 재 공 원
특허권취득! 화분장묘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없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읍시다.



화분장이란?
연꽃좌대화분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 점
◆ 이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1기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상조회사. 지역장례식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현 수목장비용 300 ~ 500만원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영가등.천도재.기타

화분장묘 특허권자 : 김성만 / 특허번호 : 제10-1467668
상담전화 : 054)331-9303.010-8458-3310
www.화분장.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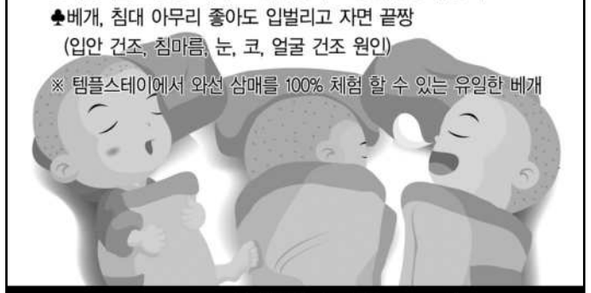
영남 범음. 범패
제5기 학인모집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실용의식 : 천도재 및 49재의식, 실전강의, 각 사물 등
◆ 작 법 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수시모집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육대상 : 승, 속 관계없이 가능 함
◆ 개강일시 :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까지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27
가동 205호 (중앙시장 2층)
◆ 문 의 처 : 010-5065-5690

근 화 학 당
◆ 역학교실 : ① 교양반 ② 전문반
◆ 강 사 : 추송 ◆ 수강료 : 월 10만원
◆ 문 의 처 : 010-8948-7948
◆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 7시까지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되고 있는
의식, 역학을 집중 지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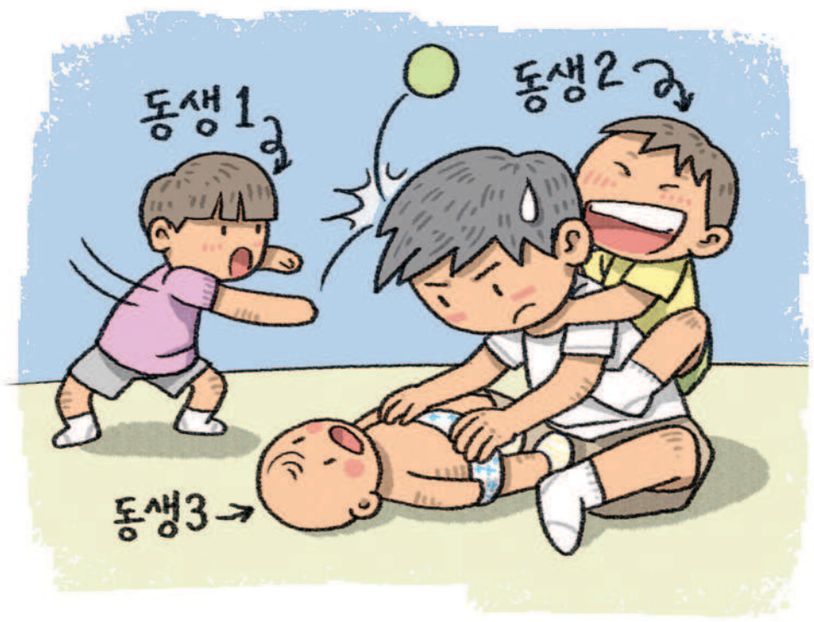
영남범음 범패원장 제 봉
근화학당 역학원장 추 송 합장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다른 집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겠어요

I love my family for who they are and I will not compare them to other families.

한동안 크게 유행한 우스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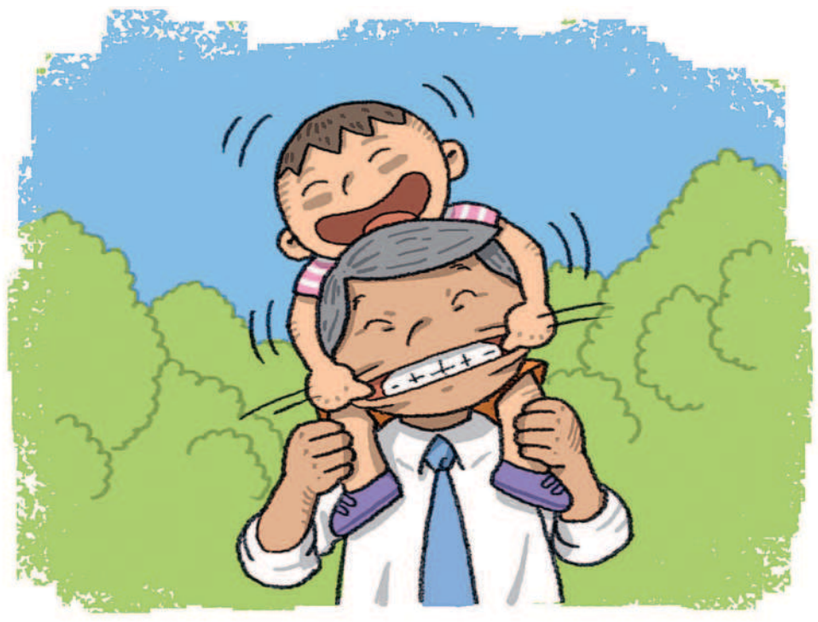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굴도 훤하고 성격도 좋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다니는 동안 계속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오라는 회사가 하도 많아서 고르고 골라 들어가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찌나 효자인지 수시로 부모님께 선물을 사 드립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을 때 '엄마 친구 아들은…' 하며 비교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족도 자주 비교의 대상에 올려놓습니다.

'다른 집 부모님들은 좋은 휴대전화도 척척 사주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 '다른 집의 형들은 동생한테 잘하는데, 우리 형은 왜 저래?' '우리 집 아이들은 왜 남의 집 아이들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할까?'

이런 비교는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올 뿐입니다. 가족의 나쁜 점을 확대해서 남과 비교하려 들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더없이 든든한 가족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 부모님이 여러분을 누구와 비교한 적이 있나요?
* 여러분은 어떤 때 가족을 남과 비교하나요?
* 우리 가족의 좋은 점을 말해 보아요



가족에게 예의를 벗어난 행동은 하지 않겠어요

I will treat my family with respect.

"엄마! 내 청바지 아직도 안 빨았어? 아이, 참. 엄마는 집에서 뭘 하는 거야?"

"아빠는 왜 새 가방도 못 사 줘?"

"으이그.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

"아빠가 돈 벌어오는 기계야?"

누구든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예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편하니까 함부로 해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런 생각이 가족 간의 예의를 허물어뜨립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절을 지키라' 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다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참모습입니다.

* 가족끼리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족에게 부드러운 표정으로 다정하게 말하겠어요

I will talk to my family with a smile, not a frown.

옛날 인도의 한 나라에 총명한 왕이 살았습니다. 왕은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딱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성품이 급하고 거친 왕의 어머니는 날마다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왕이 어머니를 모시고 신하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의 어머니와 신하들은 귀를 막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왕과 일행은 재빨리 그곳을 벗어나 꽃이 무성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코킬라 새가 내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새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왕의 어머니도 평화로운 얼굴로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옥구슬 구르는 소리를 내도, 말씨가 거칠면 외면 받네. 코킬라 새는 모습이 흉해도 우아한 소리로 사랑을 받네. 말씨가 부드럽고 현명하면 모든 이에게 세상의 진리를 설명할 수 있네."

왕의 어머니는 잘못을 깨달고 슬며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표정과 다정한 목소리는 누구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가족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족끼리의 대화가 줄어들면서 서로 다정하게 마음을 나누는 일이 드뭅니다. 서로 필요한 것만 요구하다 보니 말투도 다정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다정하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 가족끼리 대화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나요?
* 가족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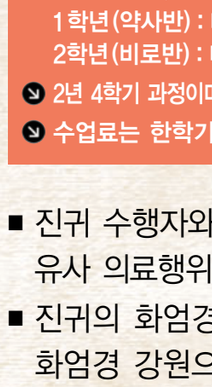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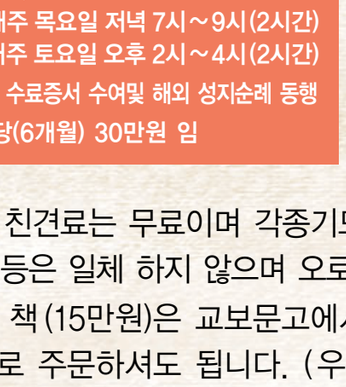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화엄경을 대본 없이 즉설로 강의하는
진귀의 화엄경 강좌

진귀스님의 화엄경 수행의 가피로 사람들의 몸과 1m이상 떨어진곳에서 마주앉아 차만 마셔도 절을 전혀 못하는 노보살이 절을 삼배하는 기적같은 일들이 강원에서는 누구나 체험 하게됩니다.

- 대상 : 비구, 비구니, 불교대학을 졸업한 재가불자
  1학년(약사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2시간)
  2학년(비로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 2년 4학기 과정이며 수료증서 수여및 해외 성지순례 동행
- 수업료는 한학기당(6개월) 30만원 임

■ 진귀 수행자와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천도재와 불교적 방편 및 유사 의료행위 등은 일체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잔의 친견과 강의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책(15만원)은 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이며 화엄경 강원으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입금(15만원)을 하신후 전화로 택배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2016년 1학기 과정부터는 등록 후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화엄경 강원 전화(대구) 1899~9532

평화 통일, '實利 외교'로 앞당겨야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실버타임즈 편집국장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 방법으로 '남북평화통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론은 역대 대통령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화두로서 동북아 국제관계에 던지는 파장도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박대통령의 북한 핵과 통일에 대한 이러한 새 해법은 지난 9월 2일 베이징(北京)에서 가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표면화 되었다. 박대통령은 남북화해와 협력시대를 열면서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 등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찌보면 절박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과 자리를 마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박대통령과 시주석의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더욱 끌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끝내고 언론보도문을 통하여 북한에는 도발을 경고 하고, 미국에는 대화를 촉구하며, 일본에는 한 · 중 · 일 3개국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또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에서 대일 역사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 했다.

박 대통령은 한 · 중 두 나라간 환난지교(患難之交)의 역사를 언급했고, 이에 시 주석은 "역사적으로 양국 국민은 식민 침략에 항쟁했다"고 화답해 일제(日帝)에 대한 두 나라의 저항의 역사를 상기 시켰다.

동시에 두 정상은 오는 10월 말, 11월 초를 포함한 서로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자는데 합의 했다. 마침내 한 · 중 · 일 3국의 협력의 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3자 정상회의는 꽉 막힌 한 · 일 양국의 외교적 물꼬도 터서 양국 정상회담 까지도 끌어낼 수 있을 가능성도 갖게 했다.

이번 회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중 두 나라 정상이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에는 9.19공동성명의 준수, 미국에는 6자회담의 촉구, 일본에는 한중일 3자회담 제의를 해 동북아 국가 외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새 남북통일론은 2박 3일의 중국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내 기자 간담회서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언론에 따르면 박대통령은 간담회 서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와 관련해 사실은 북핵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긴장상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할 때, 그 귀결점은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북한 핵 해결을 위한 '평화통일' 론은 확실히 새로운 것이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로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남북의 평화통일을 하나의 이슈'로 묶어 만든 것은 절묘한 방안이며, 암시하는 바가 의미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는 한-미-중-일-남-북 등 6자가 핵문제 따로, 통일문제 따로 이렇게 분리하여 생각하고 정책을 세우는 것이 고정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도 향후부터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독트린이 6자회담에서나 UN 등 국제회의에서 하나의 아젠다로 등장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핵과 남북통일은 남 북 당사자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군사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난관이 첩첩산중인 것도 사실이다.

한 · 중 정상이 제안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일정 이전에 9월 말에는 미 · 중 정상회담이 있고 , 이어서 10월 16일에는 한 · 미 정상회담이 있다. 우리로선 다행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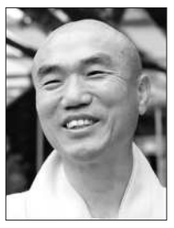
이렇게 연속 되는 미 · 중, 한 · 미 정상회담에서는 박 대통령의 북핵을 합친 '평화통일' 제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고, 잇따라 한중일 3자회담과 예상되는 한 · 일 회담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다루어 질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사자의 하나인 북한을 제외한 여러 나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도전 "북한 핵은 평화통일로 끝"이라는 새 화두를 어떻게 풀어 가는지 잘 지켜볼 일이다.

조계종 승가청규 의미와 과제

조계종이 9월 8일 수년간의 논의 끝에 최근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를 공포하고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스님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청규에 따른 삶을 통해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종단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포살본 발표 등 후속 절차 돌입



일감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청규는 종단이 어려운 시기에 종단 쇄신위원회라는 일시적이지만 기구를 만들어 만들어 낸 노력의 산물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청규 제작 작업을 짧은 시간에 하다보니 숙성시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계속적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부족함이 있더라도 새로운 청규를 만들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계속 만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청규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직급별로 자동차를 지정하기도 하는 등 세세하게 지정했다. 하지만 검소함을 잃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유동성과 탄력성을 주었다. 현실에서 융통성이 있는 부분을 감안한 것이다.

나름대로는 귀한 청규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계율을 반포 한 것처럼 선도적인 역할이 크다. 청규의 포살본을 현재 작업 중인데 반포하면 실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청규는 각 교구본사에 보내져 말사에까지 전달된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계율과 율장정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불교계에서는 청규 발표 이후 호텔 행사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불자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규는 약속, 약속을 지키길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이번 조계종의 청규는 인도의 계율과 중국의 청규 정신을 현대사회에 맞게 펼쳐보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다. 특히 날로 떨어지는 승가의 위상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가청규에는 토굴과 정당활동 금지 등 구체적인 생활규범이 상세히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규는 타율적인 강제수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약속이기에 스님들이 자발적인 실천이 성패를 가를 것이다.

승가의 권위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스님들이기에 더욱 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쪽에서는 스님들이 이런 것도 지켜야 하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세세한 규정이 승가의 권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불교의 중심은 청정한 스님들에게 있다. 재가불자들도 스님들이 계를 지키는데 얼만큼 도움을 주는지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 모두가 건전한 감시자가 됨과 동시에 도움을 주는 도반으로 활동해야 한다.

작은 물 한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사부대중의 작은 노력 하나 하나는 청정승가 확립과 위상 확대의 단초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식주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최근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며 승가의 도덕 · 윤리적 의식이 많이 저하된 상태이다. 이런 시점에 조계종단 공식 승가청규가 발표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발표 그 자체가 아니라 실천과 행동이다. 승가청규를 어떻게 종단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키고 실질적으로 유용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종단과 중앙의 역할이다. 발표된 내용 중 '실천의 장'에는 현대사회에서 승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을 담고 있다. 이 중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것은 의식주, 소유와 소비 등서 근검절약,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이다. 물질 풍요 사회로 접어들며 스님들이 물질문명에 노출된 경우가 왕왕 있다. 고급스런 생활, 향락적 취미 등은 수행자가 지양해야할 것들이다. 특히 삼보정재(三寶淨財, 신도들의 시주 혹은 스님들 재산을 가리킴)의 사유화는 반드시 막아야할 문제다. 종단과 교구본사는 삼보정재가 개인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무소유(無所有)'는 시대를 막론하고 승려가 지켜야할 최고 덕목이다. 무소유를 실천하면 승가의 청정이 바로 서질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社說

총무원장 선거제도 제대로 바꾸자

前 호계원장 법등 스님의 '염화미소법' 등 총무원장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종단 차원의 논의가 본격된다는 소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8일 열린 203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의 건'을 다루고 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위원장에는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초격 스님이 선임됐다.

특위 구성은 의장단에 위임해 종단 집행부, 본사 주지, 종회의원 등 21인으로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특별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현행 간접선거 제도에서 '추첨제'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前 호계원장 법등 스님은 '염화미소법'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선거제도 개선안인 '염화미소법'은 종정 스님이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추첨해 선택하는 '추첨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염화미소법' 제안은 사실상 직선제가 어렵다고 판단한 조계종 종책모임에게는 새로운 대안이다. 실제 삼화도량 측은 그동안 직선제를, 불교광장 측은 준직선제를 선거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었다.

현행 원장 선거제도는 1994년 종단 개혁의 성과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금권, 종책모임 이익화, 직책 거래 등의 폐단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도와 국민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굳이 추첨제를 골자로 한 '염화미소법'이 아니라도 선거제도는 변화를 해야 할 시기다. 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을 잘 운영하고 구성원들이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관건인 만큼 종도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소통'으로 새로워질 BBS를 기대하며

지난 7월 22일 불교방송 이사회는 선상신 前 보도국장을 제9대 사장으로 선출했다. 선출 당시 내부 공채 출신이 사장으로 선출된 것은 창사 25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라 기대를 모았다.

선출 이후 2개월이 지난 9월 7일 선 사장은 기자들을 만나 근황을 전했다. 그간 선 사장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 스님,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예방하고 불교방송에 대한 관심을 부탁해왔다고 한다.

사실 선 사장은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불교방송은 갈수록 어려워진 방송 미디어 환경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급감하는 라디오 광고 수익이다. 여기에 뿌리깊게 박힌 구성원들의 갈등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다. 회사의 미래 비전을 느끼지 못한 젊은 인재들의 이탈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인지 선 사장은 기자 간담회 내내 '소통'을 이야기했다.

'소통'을 위해 직원 전체 워크숍과 미디어 전문가 세미나, 외부 홍보를 위한 홍보 라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정관계 인사가 참여하는 불교방송 비전 선포식도 계획 중이라는 복안도 내놨다.

10월 8일 열리는 취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불교방송 사장 취임식 사상 2번째로 참석하며, 9월 30일 직원 조회에서는 김규칠 진흥원 이사장이 격려사를 하는 것도 소통을 위한 조치다.

불교방송은 한국 불교계에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전파 포교 매체이다. 그가 내세운 '부처님 사상을 전 세계에 전하고 세상을 맑게 하는 글로벌 미디어'란 소통을 통해 이뤄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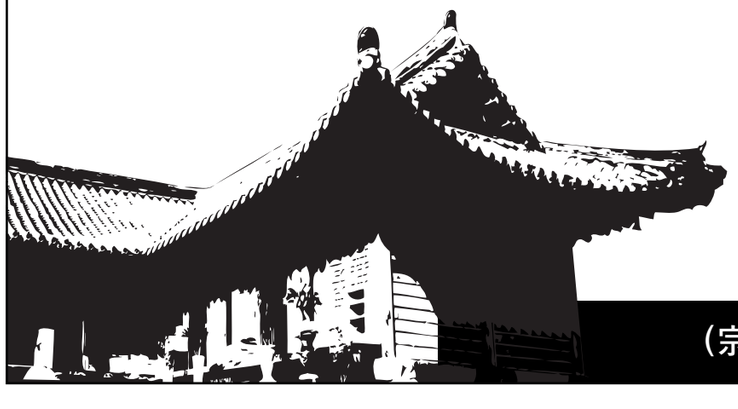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 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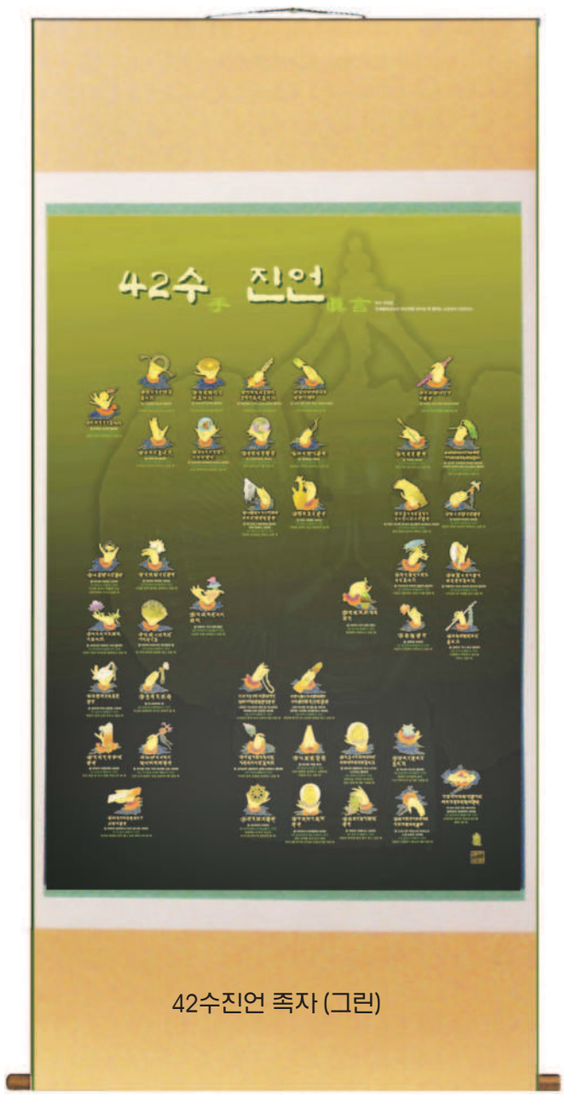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출발일 : 11월 13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 일	출발일 : 11월 28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 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출발일 : 12월 5일, 11월 14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 10월 20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 : 10월 31일, 11월 21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짝 (껄로/뻰띠야 동굴)	7일	출발일 : 11월 14일, 12월 16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Myanmar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뻰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 인도/네팔 15일
-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빨간 떡볶이로 맺어진 인연,

75사단 호국 철마사 법당 봉사자들



떡볶이 법회로 인연을 맺고 있는 불자들이 확짝 웃고 있다. 사단에 적을 둔 불자들부터, 지역 사찰 스님, 떡볶이 보시를 위해 먼길을 찾아온 불자들까지 모두 군장병들을 위하는 한 마음이었다.

봉선사 · 화계사 봉사 인연이 철마사로
군장병 떡볶이 보시 15년 이어와
이웃종교 종교활동 비해 장병 10배 넘어

법회 · 음식장만 등 분업화해 상부상조
인천에서 전날 출발, 밤새서 봉사하기도
군장병 편지글 "덕분에 불교 알게 돼"

"군인 아저씨! 이 쪽에서 떡볶이를 펴가도록 해야지…. 아이구, 저 아저씨 저렇게 많이 고추장을 넣으면 어떡해?"

9월 6일 법회가 한창이던 경기도 남양주시 75사단 철마부대 군법당. 모락 모락 김이 올라오는 떡볶이를 만드는 군종병들을 부르는 보현경 보살(이청자 · 73)의 목소리가 법당 밖에 까지 울려 퍼졌다.

호국 철마사 식당의 한쪽에서는 떡볶이 떡과 어묵 등을 조리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날은 철마부대 군장병들이 한달에 한번 손꼽아 기다리는 '떡볶이 법회' 가 열리는 날이었다. 보현경 보살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5~7명이 불자장병들을 위해 떡볶이를 보시한 지 15년이 흘렀다. 이른바 '떡볶이 법회' 다. 떡볶이 법회는 특정 주관단체가 없이 인연법이 닿는 불자들이 십시일반 참여하고 있었다. 떡볶이 법회가 만들어지기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노력이 함께 있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서울 강남과 수유, 인천, 분당 등에서 떡볶이 보시 하나로 남양주까지 먼 길을 봉사자들은 마다 않고 달려왔다. 이들은 손발을 맞춰 순식간에 떡볶이를 만들어 냈다.

보현경 보살은 "일선 법당에서 단순한 법회를 진행하면 군장병들이 찾지 않는 곳이 많았다. 조금이라도 부처님 법을 접하게 하고자 간식거리를 제공했고, 그러나 보니 이렇게 떡볶이를 만들게 됐다"고 했다.

아직 불심이 영글지 않은 군장병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는 곳으로 몰리는 것이 인지상정. 떡볶이 법회를 시작하고서 효과는 놀라웠다. 보통 법회 때 100여 명의 장병이 몰리던 것이 250여 명까지 늘어난 것이었다. 예비부대 인원 감축으로 75사단 장병들의 수가 줄어 최근에는 50명에서 100명 가량이 법당을 찾고 있다. 하지만 가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의 10여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 정도 장병들이 법회에 참여하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는 명물이 된 호국 철마사의 떡볶이 법회는 보현경 보살의 남편 지수 강노식 포교사(77)와의 인연으로부터 시작됐다. 강 포교사는 군에서 드물게 신심이 넘치던 불자였다. 강 포교사는 중령 예편 후 1997년 조계종 포교사가 됐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군포교에 뛰어 들었다. 남양주 봉선사 사무장을 맡게 되며 인근 철마부대, 연천 28사단 신병교육대, 청학 호국사 등에서 군법회를 지도하게 되며 보현경 보살도 함께 군장병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뛰어들게 됐다.

처음에는 과자며 음료수를 주는데 그쳤다. 그러던 것이 역시 자원봉사자였던 도성인 보살의 어머니가 떡볶이를 만들어 보시하며 본격적인 떡볶이 법회로 진행됐다. 지금은 어머니의 원력을 이어받아 도성인 보살이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다. 먹을 것을 준다기에 모인 장병들이지만 지금은 장병들을 모이게 하는 것은 그 것 뿐만이 아니었다. 바로 호국 철마사 자원봉사자들의 열정 때문이었다.

"군불교의 신행활동은 이웃종교에 비해 매우 열악해요. 숫자도 적을뿐더러 비교적 혜택도 적기 때문이지요. 민간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초코파이 하나, 볼펜 한 자루가 군인들에게는 종교활동의 선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질로 유혹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불교를 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시절 들은 부처님 말씀 한구절이 평생을 가는 법이니까요." 떡볶이를 만들며 봉사자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처음 떡볶이 법회를 시작할 때는 어려움도 많았다고 한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재정적인 문제였다. 보현경 보살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립의료원 봉사활동도 나서고 있는 보 보살은 군포교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털어놨다.

"아시다시피 이런 곳에 까지 종단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잖아요. 군법사님들이 많지만 아직 없는 법당도 많아요. 결국 부대와 인연이 닿는 지역불자들이 십시일반 꾸려나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선사찰의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병사들이 많을 때는 한끼를 보시하는데도 약 50여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다행히 백령도 주지 부명 스님이 떡과 초코파이 등을 재료를 후원해주었다. 국립의료원 봉사도 함께 나서고 있는 보현경 보살은 자녀들도 봉사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 보살의 세 자녀들은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떡볶이 봉사를 후원하고 있었다.

이런 힘을 모아 군포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의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 돈보다도 떡볶이를 만들 쌀이나 사찰에서 49재를 지내고 남은 사탕, 약과 등 군인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 하나가 더 절실하다.

특히 떡볶이를 직접 만드는 도성인 보살은 그 어려움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재가자들이 쌀 등을 얻기 위해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다행히 스님 등 불자들이 조금씩이나마 도와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재료준비, 차량지원 등 여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 자원봉사자들도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도성인 보살은 처음 어머니를 따라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상계동 사천왕사에서의 민들레 결식아동 급식봉사 등을 거쳐 현재 철마사까지 흘러왔다. 서울 상계동에서 거주할 무렵 시작한 봉사활동은 인천으로 이주해서도 이어져 오고 있었다. 철마사 떡볶이 법회가 열리는 날이면 도 보살은 전날 인근으로 이동해 사우나에서 자고 아침에 봉사활동을 하고 귀가한다.

도 보살은 "법당에 올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따로 볶아 만드는 떡볶이 방식을 어머니가 군장병을 위해 개발하셨다. 어머니가 남긴 방법대로 떡볶이를 만들며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떡볶이 법회는 분업화가 잘 되어 있었다. 떡볶이 법회에서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법문은 강기천 법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강 법사는 화계사 회주 성광 스님의 유발상좌였다. 화계사 성광 스님은 육군 중령 출신으로 군법사 제도 안착 등에 크게 기여했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의장등록

사업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돼,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 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개업선물, 사업성공의 선물로 품격

▶ 가격 :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 문의 : (02)723-4533
▶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사찰 · 스님 20% 할인)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얻고 평생부자로 살게!!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에나멜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별도로 옴자로 된 교통카드 꽂이도 있다.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장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23-4533
(사찰 · 스님 20% 할인)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www.kapilla.co.kr ※ 공휴일 접수 가능



앞면 뒷면 의장등록

호신불규격직경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용 호신불

운전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 · 스님 20% 할인)
문의 : (02)723-4533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군장병 마음속 불심으로 물들인다



일손을 거드는 군장병과 철마사 보살님이 함께 떡볶이를 만들고 있다.



법회 후 철마사 군장병들이 떡볶이를 받아가고 있다.



법회에는 60여 장병이 참여했다. 인근 이웃종교 활동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강 법사는 "은사 스님께서는 항상 군포교를 강조하셨다. 화계사 봉사단에서 인연을 맺은 불자들이 호국 철마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에 처음 찾게 됐고 그 인연으로 이 곳에서 10여년 째 민간인 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법사는 "최근 아들이 군대에 간 상태"라며 "모인 군장병들에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 강 법사는 '잘먹고 잘사는법 식사하셨어요' 에서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가 네티즌들의 악플에 시달리며 털어 논 사연을 장병들에게 소개하며 불교에서 마음다스리는 법을 설명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격이 밝은 것으로 유명한 홍진영 씨도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법을 강조합니다. 연기법은 쉽게 말해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에 다른 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영향으로 다시 자신이 상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군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후임간에 무심코 내뱉은 거친 말 한마디에 서로가 힘들어 질 수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 법사가 최근 연예계 이슈로 법문을 하는 동안 군장병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군 법회에서는 장병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리를 말하더라도 듣는 이들이 듣지 않는다면 말그대로 '소 귀에 경읽기' 겠죠. 처음에는 불교교리 위주로 법회를 하다가 최근에는 사회 이슈를 통해 불교 가르침을 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되도록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강 법사는 장병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왜 가져야 하는지를 직접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병사들은 2년 주기로 바뀝니다. 처음 오자마자 발심을 하여도 불교를 알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죠. 차라리 인생에서 힘들 때 어떤 방식으로 불교적 사고를 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인생선배로서 전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한 장병이 법회 후 찾아와서 '불교에서 출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더군요. 그때 이 장병을 데리고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불자들이 청년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다 보면 언젠가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이날 법회에는 봉선사 법등 스님과 75사단 불자들도 함께 봉사에 나섰다. 이들은 매주 철마사 법회의 맥이 끊키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법등 스님은 "어린이 · 청소년, 군포교 분야는 불교의 미래라고 볼 수 있음에도 아직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웃종교와 비교해 종단의 여력도 부족하고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본사 차원에서도 힘이 되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식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불교가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현재 남편이 75사단에 원사로 근무 중인 세연화 보살은 "평소 주말 법회에도 많은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떡볶이 법회를 계기로 전역한 장병들이 후원하는 등 힘이 되고 있다. 많은 불자들이 이런 현장 포교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연화 보살은 "군장병들을 위하는 일이 군 생활하는 남편에게도 힘이 되는 것 같다.법회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보살님부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법회가 끝나고 장병들은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부대로 내려갔다. 법회에 오지 못한 근무장병들을 위해 한보따리씩 떡볶이를 싸가는 모습에서 바깥 사회에서는 쉽게 보지 못하는 인정이 넘쳐 흘렀다.

보현경 보살은 끝으로 지난해 한 병사로부터 받은 편지 한구절을 소개했다. '처음에 먹을 것을 위해 법당에 나가던 자신이 부처님 법을 접하고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게 됐다' 는 내용이었다. 밖에서도 열심히 절에 나가겠다는 이 장병의 편지글에 보현경 보살은 건강상의 이유로 봉사활동을 그만두려고도 했던 마음이 저만치 달아났다고 털어놨다. "저희들이 모여서 만드는 떡볶이 한 그릇 한 그릇을 먹은 군장병들이 나중에는 전역 후 사찰에서 불자로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떡볶이 속에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심이 전해지는 하루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꽃밭과 노스님

하루가 다르게 산 빛이 달라지는 걸 보니 정말 가을이 왔나보다. 내가 있는 절 앞마당에는 해마다 가을이면 설악초가 작고 예쁜 꽃을 피운다.

잎도 희고 꽃도 희어서 꽃이 피면 마치 흰 눈이 온 듯 하얗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설악초는 입적하신 혜안스님이 참 좋아했던 꽃이다. 노스님은 이생에 인연을 다하여 3년 전 먼 길을 떠나셨는데, 설악초는 아직도 인연이 남아서인지 피고 질 때마다 스스로 씨앗을 떨구어 해마다 가을이면 절 마당 한가득 새하얀 눈꽃을 뿌려놓는다.

홀연히 떠났던 3년간의 만행을 접고 대구의 조그만 절 대륜사에 머문 지도 이제 11년이 훌쩍 넘었다. 세상 가운데 배움을 찾고자 만행에 올랐다가 노스님의 병환 소식을 듣고 잠시 들렀는데, 병환 중에도 서릿발이 성성하셨던 노스님은 만행 중인 내 모습을 보시자마자 호통을 치셨다. 무일푼으로 이곳저곳을 떠돌며 다니던 중이라 꽤나 행색이 누추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네 승복이 멀쩡한 걸 보니 그동안 만행을 다닌 것이 아니라 여행을 다녔구나."하시며 꾸중하셨다.

스님께서는 참 모질게 기도를 하셨다. 출가수행자가 365일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며, 밤이고 새벽이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바랑을 꾸리라 하셨다. 그 길로 차를 몰아 강원도로, 전라도로 밤새 달려 산 아래 암자나 바위 밑 어디든 앉을 곳만 있으면 몇 시간이고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기도하셨다. 어떤 때에는 신도가 절에 찾아오면 사정도 묻지 않고 "기도하러 가자"하시며 차에 태워 함께 기도를 떠나셨다. 혹여 신도가 다른 바쁜 일이 있다고 우물쭈물하면 그 자리에서 "그 일은 내일 해도 되지만 기도는 내일이 없다"시며 야단을 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막무가내셨다.

4년 전 이맘때쯤 어느 가을날, 입적하실 때가 가까워지신 스님께서 설악초가 가득 핀 꽃밭 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서 하염없이 꽃을 바라보던 때가 생각난다. 가을 햇살을 받으며 모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떠나면 그리울거야. 나처럼 기도하자는 말을 누가 하겠느냐."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스님은 언제나 법당 문을 활짝 열어놓으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항상 꽃을 볼 수 있도록 꽃밭을 정성껏 가꾸라 하셨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 올리는 꽃공양이라고.

오늘 아침 새벽예불을 마치고 법당문을 열어젖히다 문득 노스님이 떠올라서 "우리절 꽃밭"이란 노래를 불러보았다. 노스님께서 살아계실 때 곡을 써보라 해서 절 마당 꽃밭을 가꾸던 일을 떠올리며 내가 노랫말을 썼던 곡이다. "우리절 꽃밭에 꽃들이 가득/ 노란 꽃 분홍꽃 연보라 꽃이/ 봄 여름 가을에 피어나지요/ 땀 흘려 풀 뽑고 가꾸어주면/고마움 아는 듯 더욱 예뻐라/ 오늘도 스님은 꽃밭 가꾸며/ 부처님께 꽃공양 올리고 있네." 만약 지금 스님께서 곁에 계셨다면 이 가을 예쁘게 피어난 새하얀 설악초를 참 좋아라 하셨을 터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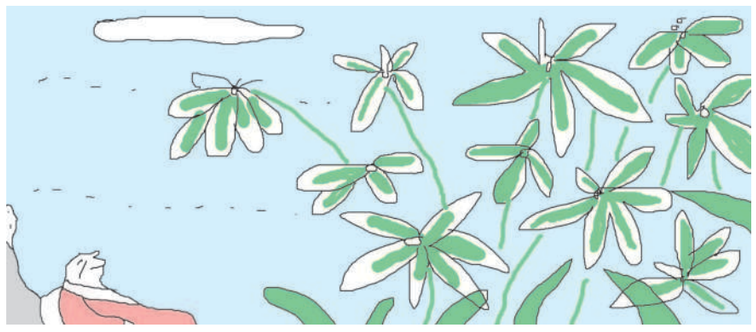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가끔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하는 일이 소홀해지고 구도심이 약해질 때면 나는 꽃밭을 가꾼다. 마음의 잡초도 뽑고 중심 없이 쓰러진 심기(心氣)도 바로 세우고 선행의 꽃씨도 심으며 본본사(本分事)를 잊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는다. 스님께서는 떠나시며 "내가 먼저 가서 터 잡고 있을 테니 공부 잘하고 오거라." 하셨는데 나는 다시 스님을 뵐 수 있을까. 혹여 남은 생애 동안 공부가 미진하여 스님을 뵐 수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싶다. 오늘도 하얀 설악초 향기가 살랑살랑 가을바람에 실려 내게로 온다. 약속을 잊지 말라고, 더욱 정진하라고 내게 죽비를 내린다.



덕신 스님(좋은벗 풍경소리 회장)

since1973
2016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010-2094-2991-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 : 상호인쇄





미니 : 상호인쇄





수첩 : 상호인쇄

12절(벽걸이형)달력
100부 이상 @ 1000 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 25.8cm × 26.5cm

한지달력 200부 이상 @
• 정가 1800원
• 규격 : 30cm × 63cm
1,600 원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18장

탁상달력 200부 이상 @
• 정가 1800원
• 규격 : 26cm × 19cm
1,600 원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규격 : 8.9cm × 9.5cm • 매수:16장



대행 스님

똑바로 觀해 보고,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행하라!

일체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천(天) · 지(地) · 인(人)이 다 공용(共用) 공체(共體) 하면서 우리는 혼연일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색상(色相)이라는 것은 너 나가 있으니 오래도록 못 만났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같이 한 자리를 하지만 우리 색상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색상이 실체라는 것, 또한 실질적으로 이 색상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의 모습은 허무하다고 버리면서까지 이 도리를 알려고 애를 쓴다면 그거는 극히 오산일 것입니다. 수많은 스님네들과 더불어, 인도로 중국으로, 또 중국에서 인도로 법을 구하러 다니면서, 또는 좌선을 하면서 얼마나 모습을 망가뜨리고, 그 모습을 망가뜨림으로써 세세생생에 윤회가 되면서 얼마만큼 돌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마는 전 너무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뀜으로써 옛날의 명주를 말입니다, 지금은 실크라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틀리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발전을 한 것입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명주가 아니라는 말은 못하시겠죠? 우리는 시대가 바뀌는 대로 방편도 바꿔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요, 부처님의 법이요, 부처님의 활용이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태초가 있고, 불법이 있고 부처님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태초가 어딨으며 우주가 어딨으며, 실감할 수 있는 실체가 어디 있으며 상대가 어딨으며 세상이 어딨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알아야 하며 그 자신의 본능에 의해서 우주의 본체는 어디 있는가? 바로 천(天) · 지(地) · 인(人)이 근본이라면 그 천지인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처님 앞에 가야만이 부처님이 계신 줄 아는 그런 마음은 여간 어리석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처님이 가르치실 때에 관세음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은 이 손가락을 쳐들고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생활을 하면서 똑바로 관(觀)해 보고,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행하라. 그것이 즉 보살이니라." 하고 일러 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맹종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매달리고 있다 이겁니다. 상대성, 즉 말하자면 그 이름, 물컵의 이름을 듣고서 "컵이여, 목마르니 물 좀 먹게 해 주시오." 하고 아무리 빌어도 내가 목마른데 목을 축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이름이라는 것은 인간이 질서 또는 계율, 법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름이 아니라면 모두가 서로 상부상조할 수 없으니까 지어 놓은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야 할 때는 이름을 부르지만 물을 떠먹는 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물을 떠먹는데 "컵아, 나 너한테 물 떠먹는다." 이러고 부릅니까? 컵을 그냥 들어서 목마르면 물 따라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컵의 이름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수없이 흘러내려 오면서 경을 안 본 사람 없습니다. 불자다 하면 경을 안 본 사람이 없고 세상을 살았다 하면 세상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양이나, 또는 법칙이나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도리를 너무도 잘 압니다. 효도도 할 줄 알고 충성도 할 줄 알고, 나쁜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알고, 이렇게 첨단을 넘어갈 수 있는 고등 동물의 인간 자체가 만약에 컵의 이름만 가지고 매달린다면 물은 누가 줍니까?

여러분한테 이거 한번 질문할까요?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그때 나는 그게 뭐 말라빠져 죽은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이 손가락으로 컵을 가리키는데 컵만 보지 않고 내가 목마르면 물 떠먹을 수 있게끔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얘야, 공양을 들여오면 군말을 하지 마라. 짜면 물 타 먹고 싱거우면 간장을 넣어 먹어라." 그게 그냥 보편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뜻이 말입니다, 그 후에 뜻을 보니 이것은 우주 이 세상 모두가, 사생(四生)이 돌아가면서 살아나가는 법칙의 긍정적인 말입디다. 긍정적인 법입니다. 만약에 "얘, 짜다. 물 가져오너라." 이랬다면 벌써 삼백 년이 흐르고 말아요. 이거 한마디라면 우리 생활하는데에 얼마만큼 지침이 될지 모릅니다. 또 이게 "싱겁다. 간장 가져오너라." 이런다면 벌써 이거는 삼천 년이 흐르고 만다 이 소립니다. '들어와도 삼십 방망이 나가도 삼십 방망이' 한 소리가 바로 그 말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간은 누가 타 먹느냐. 누가 간을 맞춰서 먹을까요? 짠 것도 아니고 싱거운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다 놔라 이랬습니다. 짠 것도 놓고 싱거운 것도 놔라. 놓으란다고 불교가 그냥 맹종하고 부처님 앞에, 그저 타신을 믿으면서, 나 아닌 대상을 놓고 믿으면서 극진히 정성을 들인다 한다면 그건 자기를, 자신을 모르면서 맹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노예입니다. 이 세상의 노예입니다. 자기 자신이 간을 타서 맞게 먹을 수 있어야 그것이 참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서 계율이 따로 없고 스스로서 질서도 없고 스스로서 법칙도 없다 하는 거죠. 그렇게 없기 때문에 철두철명한 것입니다. 철두철명하기 때문에 진리는 고정됨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삿갓을 쓰고 죽장을 짚고 땅을 디뎠으니
바리때 하나면 족한 것을.
허허! 무엇을 더 바라랴.

허허! 하고 하늘 쳐다보니 청정하고
내려다보니 땅은 잔잔하더라.
산천초목은 우거져서 무성하나
물은, 바닷물은 잔잔하게 흐르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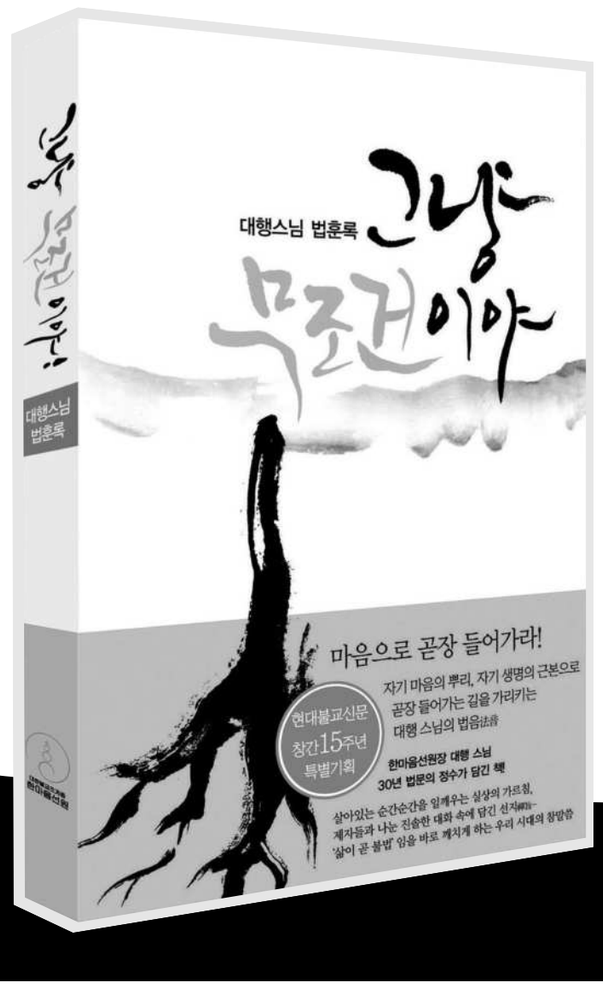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그러나 쳐다보고 울고 내려다보고 웃는
그런 맛은 어디로 가고
사생(四生)의 눈물은 바다를 메우고
바다를 메우는
그 한 방울의 눈물은 어디 있는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만 생명이 있고 사는 법칙이 있는 줄 아시는 분은 없겠죠. 사생(四生)이라는 그 자체가 천차만별로 돼 있지마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살생이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쫓기고 쫓는 게 아니라 사생이 모두 쫓고 쫓기면서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나만이 생명이 있고, 나만이 살고, 나만이 친척이 있고, 나만이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내면세계의 그 마음을 찾아서…, 찾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있기 때문에 발견하라는 거죠.

이름해서 만약에 우리가 삼세심(三世心)이라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짜면 물 타 먹고 싱거우면 간장을 넣어 먹어라!

☞ 29면에서 계속

하면은 일심(一心)이요, 일심이 드는 데는, 이름으로써의 방편을 말하자면 삼중천(三重天)에 이른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과거에 살던 그 이치가 꼬리를 물고 현실에 물려 있고, 현실에 사는 꼬리가 바로 미래에 얽혀 있으니 어찌 삼중천이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삼세심이 일심인 줄 알면 그 일심이 어디에 있는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간장 얘기 한 거나 똑같이 만약에 '이것이 틀린가 옳은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삼중천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하나가 어디로 간 건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하나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삼중천이라 이름한다면, 방편으로서 사왕천(四王天)이다 합니다. 사왕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삼중천에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왕천이 바로 일심으로서의 원심력을 얻는다면 이 사방을 다 지배하고 들이고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선조들이 우스갯소리로 "너, 개구리탕만 할 줄 알았지, 용탕은 할 줄 모르는구나." 이런 말들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아까 실크 얘기도 했지만 불법을 믿는 사람들은, 불교국이 다 이런다면은 항상 그게 자비라나요? 칼을 가지고 들어와도 가만히 있는 것이 자비라나요? 그게 아닙니다. 또 칼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나도 칼을 가지고 대결을 해야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삿갓 쓰고 주장자 짚고 땅을 디뎠고 바리때 하나면 족한 것을." 했죠. 그걸 뜻으로 보십시오. 만약에 구지 스님이 손가락을 하나 들었다면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그 뜻을 말한다면 머리로 하늘을 받치고, 주장자는 기둥이 되고, 땅을 디딘 평발은 주춧돌이 돼서 바리때를 들이고 낼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법륜(法輪)을, 사무 사유(四無四有)의 법륜을 그냥 굴리면서, 체계 없으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체계가 있고 스스로서 법칙이 있고 한 것을, 그대로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중용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진정한 자비가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중에는 '불법이란 무조건 자비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도,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끼리끼리 자기가 죄지은 대로 감옥에 넣었습니다.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끼리끼리 돌아갑니다. 상점에 놓여 있는 것도 끼리끼리 놓여 있듯이,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천차만별로 차원에 따라서 알맞게 자기 환경에 따라서 집어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는 모두가 부처님이 가르친 것을 질서정연하게, 스스로의 법칙을 그대로 활용하라는 거지, 너는 그대로 고립돼서 무(無) 공(空)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붙여서 사왕천(四王天)이라 한다면 무명천(無明天)도 있고, 무명천이 있다 하면은 생사천(生死天)이 있다. 그 생사천은 누가 다루나. 만법천(萬法天)이 다룬다. 만법천은 누가 다루나. 여래천(如來天)이나 도솔천(兜率天)이나 도리천(忉利天)에서 다룬다, 모두를. 우리가 옥황상제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가 있을까? 대법원장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에 따라서 너무나 철두철명합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자비요, 살려도 자비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생(四生)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만법천에서 생사천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그 자체를 지금 현실에 살고 계십니다. 과거에 살 때에 사신 대로, 차원대로, 그릇대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릇대로 출현하신 거라면 바로 우리가 옷을 벗을 때도 생사천에서 벗게 하고 또 내보낼 때도 생사천에서 내보낸다 이겁니다. 자기 차원대로 말입니다. 금이면 금대로 만나게 하고 은이면 은대로 만나게 하고, 까마귀면 까마귀대로 만나게 하고 말입니다. 또 오무간지옥에 갇힐 거라면 아주 무명천에다 가두고 말입니다.

무명천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너무나 마음에 복수심이나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까 봐 가둬 두는, 영혼을 가둬 두는 감옥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잘 보세요. 감옥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감옥이 왜 생겼겠습니까? 천차만별로 그렇게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감옥이 생긴 거죠. 현실에 있기 때문에 바로 무(無)의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배하는 것은, 만법천에서 내보내면 생사천에서 가려서 내보낼 때에 오무간지옥으로도 보내고, 칼산지옥으로도 보내고, 무명천으로도 보내고, 또 화탕지옥으로도 보내고 여러 군데로 분리해서 다 보내는 것입니다. 묘한 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으니 현실에서 잘 관조하라고 했습니다. 천차만별로 사생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길을 가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지저거리고 있더랍니다. 무슨 소리를 하나 그러고 들어 보니까 "스님, 스님! 제가 까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가 지금 오백 년이 됐습니다." 한번 까마귀로 모습을 받으니 거기에서 벗어날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스님이 제 모습을 한 점이라도 잡숴 주신다면 저는…." 이 까마귀 모습을 벗겨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너는 까만 짓을 잘하는데 어떻게 희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니까 "비록 거죽은 까마나 속살은 하얗습니다." 이러거든.

여러분도 참 거죽으로는 못생기고 못났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마음이 아름답고 착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내면적으로 언제나 자기를, 자신을 믿고 만법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아마 거죽은 비록 그럴지언정 속은 하얄 겁니다. 백옥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즉시에 까마귀 모습을 벗겨 줬더랍니다.

자기 자신이 간을 타서 맞게 먹을 수 있어야 그것이 참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서 계율이 따로 없고
스스로서 질서도 없고 스스로서 법칙도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얘길 하면 옛날 얘기처럼 들으시는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옛날이나 미래나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돼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항상 '공(空)했다, 공했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난 게 주인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성신이…. 그 행동 하나하나 하고 마음 찰나찰나 바뀌지면서 돌아가는 것이 공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질서를 가르쳐서 질서를 지킵니까? 사생 그 자체, 까마귀 얘기 한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인연을 만나서 서로 고생을 하고 이러는 것도 당연하지마는 고(苦)를 누가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알로 낳는 거, 태로 낳는 거, 화(化)해서 낳는 거, 질척한 데서 낳는 그 사생이 어떻게 해서 사생으로 빠지나. 인간이 까마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죽어서 까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어느 날 한 마디를 잘못해서 백 마디를 잘못하게 되고, 만 마디, 천 마디를 잘못하게 돼서 독사지옥에 떨어졌더니, 독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니 아무리 내가 사람이라고 부르짖어 봐도 독사라고 그러지 누가 사람이라고 대해 주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귀먹고 눈뜨지 못한 사람들은 까치 소굴에 들어가서 까치 새끼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잘못하면 새 종류로 아마 태어나겠죠.

마음을 독하게 써서 독사지옥으로 떨어지고 이러는 것이, 독사지옥으로 떨어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서 그렇게 고를 당하고 그렇게 쫓기면서 쫓으면서 땅꾼한테 붙들려 다닙니다. 이거 한 가지 말을 했다고 그래서 고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더니 아, 몇 달 만에 다 큰단 말입니다. 사람은 어른이 되려면 십 년, 이십 년, 삼십년 이렇게 가지만 아, 그거는 단번에 어른이 되거든. 금방 크면 금방 모가지 졸려서 죽고, 걸렸다 하면 죽고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합니까?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그러니 얼마나, 그것은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닭 사다 잡수시죠? 여러분이 닭이나 생선이나 꿩이나 무슨 돼지를 보세요. 돼지만 하더라도 돼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일 년 이태 삼 년만 산다 해도 몇 번 죽임을 당할까요. 커서도 당하고, 작아서도 당하고, 근수만 나간다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있느냐. 돼지에서 또, 또 출현을 하게 되죠. 그거 벗어날 수 없죠.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 습을 익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모든 양면을 다 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는 데는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부처도 뛰어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채식을 해야만 공부를 한다 이러거든요. 물론 공부할 때는 채식 아니라, 채식도 없죠. 먹으려고만 생각한다면, 죽지 않고 먹으려고만 생각한다면 공부를 못하니까, 물론 육식보다도 아무거나 먹고 그냥 공부하게 되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사생의 어떠한 것들은, 돼지나 소들은 사람들도 되니까요. 짐승이다, 사람이다 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한 찰나 찰나 돌아가거든. 사람이라도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돼지도 돼지로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사생(四生) 가운데 한 점의 고기를, 이런 공부하는 사람한테 한 점을 공양하기가 천 년 만에 한 번 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 뜻을, 그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경허 스님이 돼지 다리를 뜯고선 술을 한 병들이를 자셨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걸 흉을 볼 텐데 그 분은, 돼지 한 마리 하면 돼지 속의 돼지의 생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건 인연에 따른 만남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두서없는 얘기 같지마는 진리는 순서 없는 게 진리니까요. 허허허. 아니, 글쎄 돼지 속에도 생명들이 인연에 따라서 드는 겁니다. 이거 잘 들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苦)가 있나? 왜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고가 닥치나, 이런 액이 닥치나?' 이러시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할 이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왜? 부부가 만나서 임신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은 수십억 마리의 생명이 한데 합쳐집니다. 그건 왜 합쳐지느냐? 악의 인연도 만나고 선의 인연도 만나고 그래서 그 인연들 따라서 모습 모습을 바꿔 가면서 같이 인연이 된 겁니다. 좋은 인연으로만 인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서 그렇게 모두가 한데 합쳐졌는데 그대로 놔줄 수가 있나요? 그래 가지고선 서로 내가 제일 대장이 된다, 대표인이 된다 하고선 싸우다 싸우다 하나가 대표가 된다면,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하나가 대표가 된다면, 인과로서 만난 인연들이 악의 인연, 유전의 인연, 또는 업보의 인연, 그 인연들이 모두 한데 합쳐지면서 그 모습은 다 없어집니다. '흥! 너 가는데 내가 못 가?' 하고 붙어 돌아가는 거죠.

붙어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나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 모습이 생겨서 자라는 대로 그것도 커 가고 있죠. 점점 모습이 갖춰지죠. 세포의 모든 생명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선의 인연을 만난 게 차례가 돌아오면 참 흥미롭고 좋은 때가 있고, 거기에서 악의 인연을 만나고 유전의 인연을 만나고, 업보의 인연을 만나고 병고의 인연을 만났으면 고만 병이 들고 말죠. 그러한 요소 요소가 돌아가면서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참, 하늘을 쳐다보고 웃었는가 하면 땅을 내려다보고 울어야 하는, 이런 피맺힌 사연들을 어찌….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되 어찌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88년 9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이 운동의 창시자는 폐결핵으로 한쪽 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을 기다리다가 「발끝치기운동」으로 살아난 후 「척추운동」, 「골반운동」, 「통증자가치유법」, 「엉덩이치기」, 「기지개운동」 시리즈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TV조선에서 방영한 발끝치기운동법 수록!

좋다는 것 다 해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증상이 계속 되는 분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고 오셔서 딱 한번만 체험해보면 전신에 상쾌함을 느끼시게 되고 스스로 고칠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골격이 삐뚤어져 오는 병은 골격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무료강좌 안내★ ★무료체험★

※ 책을 구입하시면 「무료강좌권」과 「무료체험권」을 보내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퇴행성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삐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자극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법 수록
- 악어가죽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건강 증진하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3,000원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창립 22주년기념 !
독자에게 드리는 파격적 건강선물!
책 2권 (25,000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파워21봉」 1개를 보내드립니다.
〈선착순 500명한〉

※ 구입방법 〈토, 일요일 휴무〉
25,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전화 알려주시면 책 2권 과 「파워 21봉」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신청전화: (02)452-1445~6
계좌: 농협 1149-12-090771 이영숙
위치: 2호선 뚝섬역 5번출구 앞 우영빌딩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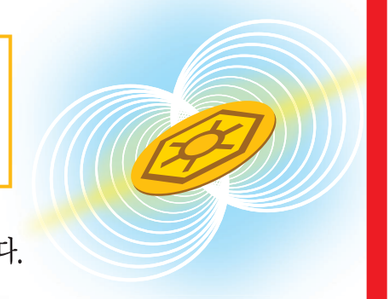
정말 신통하다

알수없는에너지-히란야의 신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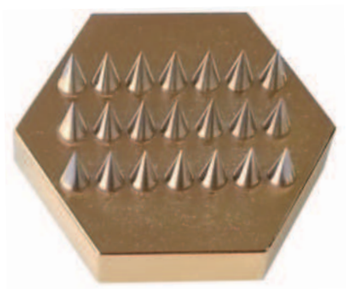
HEXAGRAM POWER SYSTEM – 氣주입기

20여년 전 수녀님들을 통해 비구니 스님께 전해져서 전국선방에 빠짐없이 보급되었고 입소문으로 수십만 명이 체험 증명한 육각성 파워 효도제품!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 불리우는 피라미드 파워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히란야의 파워의 놀라움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독자님들께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파워 21봉

- 파워봉의 위력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 한번만 사용해 보시면 바로 압니다.

~~70,000원~~